아름다운 구슬다락의 주인들을 찾아서

평 양 출 판 사
주체112(2023)

아름다운 구슬다락의 주인들을 찾아서

평 양 출 판 사
주체112(2023)

차 례

책을 내면서……(3)

100만여리의 순회길을 달린 직포공 ……(6)

공훈자동차운전사부부 ……(25)

우리 시대의 참된 의료일군……(41)

인민의 사랑을 받는 만담명수……(56)

위인의 슬하에서 자라난 유능한 건축가……(68)

비약의 《나래》로 세계에 도전한 《도자기소년》 ……(81)

《석개울의 새봄》의 조맹원 ……(95)

청류관의 뱀장어구이료리전문가 ……(107)

대동력기지의 《수리개》 …… (118)

400여년을 1년으로 맞선 녀성과학자 …… (132)

도로관리원대의원 …… (147)

책을 내면서

주체111(2022)년 4월 수도 평양의 보통강강안에 사회주의번화가, 다락식주택구의 본보기가 일떠서 성대한 준공식이 진행되였다.

보통강반을 마주한 산등성이의 자연환경을 그대로 살리면서 건설된 다락식주택구는 비탈면과 안쪽면에 소층살림집들과 다락식살림집들이 나름대로의 멋을 자랑하며 늘어서있다. 고급호텔들의 특등실보다 못지 않은 살림집건물들의 내부는 새롭고 독특한 형식으로서 사람들이 생활하는데 대단히 편리하게, 현대적이면서도 호화롭게 꾸려졌다.

소로길 량옆에 아치모양의 덕대를 3㎜간격으로 세우고 포도나무, 등나무 같은 덩굴나무를 심어 소로길입구가 문주처럼 보이면서 살림집과 잘 어울린다. 그리고 주단처럼 펼쳐진 파아란 잔디밭과 키높이 자란 사철푸른 바늘잎나무들, 화단의 갖가지 꽃들이 펼쳐진 보통강강안공원의 정결함은 호화주택구의 풍치를 더욱 돋구어준다.

그런가 하면 보통강강안다락식주택구에 일떠선 살림집들은 조형화와 예술화, 실용성과 편리성이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된 새로운 형식의 다락식주택인것으로 하여 살림집건설의 새로운 본보기, 사회주의새 문명을 향유하는 인민의 행복의 별천지로 되였다.

제국주의련합세력의 극악한 반공화국제재압살책동속에서 조선이 현대문명과 영화의 상징물과도 같은 멋쟁이주택구를 일떠세운 자체도 경탄을 자아냈지만 그런 궁궐같은 호화주택을 로력혁신자, 공로자들과 같은 평범한 근로자들에게 무상으로 배정하였다는 꿈같은 현실에 세인이 받아안은 충격과 감흥은 상상을 초월하였다.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그에 대한 견해를 피력하는 글들을 인터네트홈페지에 경쟁적으로 올려 마치 큰물이 난듯 무섭게 범람했다.

온 세계를 또다시 조선충격으로 달구었던 궁궐같은 호화주택에 새

집의 주인들이 보금자리를 잡은지도 1년 남짓한 세월이 흘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화국에 처음으로 일떠선 훌륭한 다락식호화살림집에 대한 세인의 관심은 식을줄 모른다.

주체건축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며 또 하나의 사회주의선경을 펼친 보통강강안다락식주택구.

이곳은 과연 어떤 곳인가.

지형상으로 보면 경루동의 보통강강안다락식주택구는 모란봉의 남쪽릉선에 잇달린 대동강과 보통강사이에서 이루어진 구릉렬의 맨 마지막언덕에 위치하고있으며 보통강을 마주하고 평양8경의 하나로 알려진 보통문을 가까이하고있다.

본래 이곳에는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 금수산의사당이 건설되여 옮겨가시기 전까지 생활하시던 저택이 자리잡고있었다.

만민이 세세년년 흠모하며 따르는 자애로운 어버이, 우리 인민의 영원한 수령이신 **김일성**주석님께서 계시던 저택이 있던 그처럼 성스러운 곳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직접적인 발기에 의하여 인민의 만복의 보금자리인 현대적인 다락식주택구가 일떠선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다락식주택구를 최상의 수준에서 일떠세우시기 위해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살림집설계에서도 좋다는것은 다 참고하여 설계를 완성하도록 하시고 여러 차례나 건설장을 찾으시여 구체적인 세부에 이르기까지 세세히 관심하시며 공사 전 기간 커다란 심혈과 로고를 바쳐가시였다.

그 나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인민들에게 희한한 호화살림집만이 아니라 계절의 변화와 함께 갖가지 아름다움이 수놓아질 세계적인 원림경관도 펼쳐주시고 그 무엇에도 오염되지 않고 공원의 풍치를 더해주며 끝없이 출렁일 맑고 정가로운 보통강도 안겨주시였다.

보통강강안다락식주택구의 행정구역명칭도 아름다운 구슬다락이라는 뜻에서 몸소 《경루동》으로 이름지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

그이께서는 그토록 숭고한 뜻과 리상을 담아 일떠세우신 호화주택에 간부들이 아니라 국가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복무하고있는 모범적인 로력혁신자, 공로자들과 과학인재들이 보금자리를 잡도록

해주시였다.

몸소 명단을 펼쳐놓으시고 한명한명 골라 선정해주신 경루동의 주인들이 남다른 행복감에 울고웃으며 보금자리에 드는 광경을 만족하게 바라보시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도 자신의 저택이 철거된 대신 그 뜰안에 애국자, 공로자들의 행복넘친 보금자리가 마련된것을 아시면 만족해하실것이라고, 한생토록 그처럼 사랑하신 인민을 따뜻이 품어안으신것같아 정말 기뻐하실것이라고 절절히 말씀하시였다.

인민의 존엄이 아름다운 구슬처럼 령롱하게 빛을 뿌리고 행복이 끝없이 흘러내리는 경루동은 진정 인민의 리상거리, 사회주의번화가의 축도이다.

인민의 리상과 념원, 행복과 번영, 긍지와 자부심의 상징인 이곳은 참된 행복을 갈구하는 인류에게 희망의 등대마냥 우뚝 솟아 빛을 뿌리고있다.

이런 행복의 구슬다락에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남다른 사랑과 믿음속에 사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

이에 대해 알고싶은것은 우리만이 아닌 독자들모두의 한결같은 심정일것이다.

기자로서의 남다른 호기심에 독자들의 마음까지 합쳐 우리는 여러달에 걸쳐 이곳에서 사는 사람들을 만나보았다.

그들중에는 직포공도 있었고 도로관리원도 있었으며 발전소로동자, 만사람의 사랑을 받는 만담명수, 과학자, 건축가, 예술인, 료리사, 의사, 공장지배인, 무궤도전차운전사도 있다.

직업도, 살아온 환경도 서로 다르지만 그들의 마음속에서 하나같이 고패치는것은 응당 해야 할 일을 한 너무나도 소박하고 평범한 자기들을 인생의 최절정에 내세워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한없는 고마움과 함께 조국의 부강번영에 혼신을 다 바칠 뜨거운 일념이였다.

애국자동네에서 살고있는 사람들의 사연많은 생활일면을 한권의 책에 담을수는 없지만 그들의 참다운 애국의 삶의 일부분만이라도 전하고싶어 이렇게 붓을 들게 되였다.

100만여리의 순회길을 달린 직포공

(사회주의애국공로자, 공훈방직공인 김정숙평양방직공장
1직포직장 1작업반 반장 리명순)

다락식, 소층, 다층 등 10여가지나 된다는 각이한 류형의 아빠트들, 그 사이사이로 동화의 세계처럼 산뜻하게 펼쳐진 원림경관이며 아기자기하게 뻗어나간 아스팔트도로, 여기저기에 꾸려놓은 휴식터며 아이들의 놀이터들…

그것만도 눈이 부신데 구슬다락에 몸을 담은 수많은 사람들이 기쁨속에, 행복속에 웃고우는 광경이 우리의 마음을 끌어당긴다.

근로인민의 호화주택 경루동을 찾은것은 우리만이 아니였다.

경루동의 새집구경이 수도의 풍조로 되였다는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하지만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현지에 와서 직접 보며 느끼고보니 격정으로 가슴이 찌르르 젖어들었다.

여기저기서 울리는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우리가 경루동에 이사온것만큼이나 기쁩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꿈을 꾸는것만 같습니다.》라는 감동에 겨운 목소리들…

찾아와볼 일이 있다는것이 얼마나 긍지스러웠던지 몇호동이면 어디쯤 되는가고 큰소리로 묻는 사람, 한걸음 앞서 온것이 마치 큰 자랑거리나 되는듯 저쪽으로 곧추 가면 된다고 선선하게 알려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경루동의 희한한 경관을 돌아보는것만으로도 족한듯 벌써 몇번째나 와본다는 이웃동네의 나이지숙한 사람도 있었다.

경루동은 거주자들보다 그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자고 수도의 곳곳에서 구름처럼 모여드는 사람들로 장사진을 이루어 더더욱 명절날처럼 들끓었다.

지나가던 사람들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세워주신 희한한 살림집

들을 보고싶다며 집주인들과 새집들이기쁨을 함께 나누며 울고웃는 감동적인 화폭이 어느 집에서나 펼쳐지고있었다.

이런 환희로운 풍경, 경탄을 불러일으키는 명화폭이 준공식날부터 매일과 같이 그려진다고 한다. 아니, 온 나라 방방곡곡에서 다 와보겠다니 이런 풍경이 언제 끝이 날지 알수 없다고 현지주민들은 누구나가 즐겁게 말들을 한다.

경루동의 이런 풍경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우리는 누구부터 만나볼것인가 참 고민도 많았다.

그런데 우리의 고민을 풀어주려는듯 문득 청높은 녀인들이 웃고떠드는 말소리가 귀가에 들려왔다.

《정말 멋있지요! 말그대로 궁궐이구만요.》

《리명순직포공도 호화주택에 입사했다는데 가서 축하해주자요.》

리명순직포공이라면 김정숙평양방직공장의 소문난 혁신자가 아닌가.

하루에 180리이상의 순회길을 달린적도 있다는 직포공.

180리이상을 달렸다고 하면 아마 사람들은 마라손선수부터 떠올릴것이다. 하지만 그는 마라손선수가 아니였다.

천을 짜는 기대사이를 오가며 끊어진 실을 이어주는 직포공이였다.

그런데 그 기대사이를 오고간 거리가 하루에 180리이상이나 된다면 누구나 쉽게 상상이 가지 않을것이다.

사람이 하루종일 걷는다고 할 때 과연 얼마나 걸을수 있을가.

내가 대학을 다닐 때 실습기간에 8시에 떠나 20시까지 부지런히 걸어간 길이 120리였던적이 있었다. 한시간에 10리정도 걸었던것같다. 그 길을 걷고는 남자들도 너무 피곤하여 말이 아니였다.

그냥 걷기만 한것도 이럴진대 리명순은 하루에 180리나 되는 길을 하루이틀도 아니고 수년세월 하루와 같이 달렸다니 그가 얼마나 힘들었으랴 하는 생각과 함께 그가 넘었을 수많은 극한점들이 생각키웠다. 그러면서 아마 리명순은 마라손주로에 섰어도 꼭 성공했을것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이런 생각을 하며 우리도 앞선 녀인들의 뒤를 따라 소문난 로력혁신자의 집을 찾아가 새집들이경사를 축하해주기로 하였다.

그가 같은 녀성이라는 생각에 더 끌리웠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걱정도 없지 않았다. 일밖에 모르는 그가 지금 집에 있기나 하겠는지… 여하튼 내친걸음에 소학교에 다니는 딸이라도 있을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로, 그가 어떤 집에서 살고있는지 구경이라도 하고싶은 마음으로 그의 집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그의 집은 경루동에서도 특색있는 다락식살림집에 있었다.

다락식살림집의 2층에 올라서니 출입문에 그의 이름을 쓴 문패가 있었다.

《리명순》.

문패에 적힌 이름을 보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다.

로동자가, 그것도 녀성이 호화주택의 주인이 되다니!

공화국의 사회주의제도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런 일을 상상조차 할수 있겠는가.

《딸랑— 딸랑—》

초인종을 누르자 한 남성이 나왔다. 새집들이를 취재하러 왔다고 하자 그는 리명순의 남편이라고 자기를 소개하며 우리를 반겨맞았다.

다부진 체격에 어글어글한 눈매를 가진 선한 마음씨가 엿보이는 남편의 안내를 받으며 집안에 들어서니 사람들속에 둘러싸여 축하의 꽃다발을 받고있는 녀성의 모습이 안겨왔다. 그가 바로 리명순이였다.

막연한 기대를 안고왔던 걸음인데 마침 리명순이 집에 있었던것이다.

남편의 말이 오늘 신문사에서 자기 가정을 취재하러 온다는 바람에 안해가 직장에서 일찍 들어왔다는것이다.

공장에서는 로동자가 어떤 황홀한 집에서 사는지 자기들의 마음까지 담아 마음껏 소리높이 자랑하라고 전적으로 시간을 보장해준다고 한다.

정말 경사는 경사였다. 누구나 자기 일처럼 기뻐하며 축하해주는 모습이 얼마나 정겹게 안겨오는가.

손님들의 발길이 좀 뜸해졌을 때 우리는 리명순과 그의 남편 그리고 소학교에 다니는 딸과 마주앉았다.

《축하합니다. 정말 기쁘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 아직도 꼭 꿈을 꾸는것만 같습니다.

우리가 새집에 입사한지도 몇달 잘되였습니다.

하지만 매일 퇴근길에 올라 집문을 열 때면 처음 새집에 들어설 때처럼 이 집이 정말 내 집이 옳긴옳은가 하는 생각에 슬며시 내 살을 꼬집어보군 합니다.

사실 창전거리, 미래과학자거리, 려명거리를 비롯한 새 거리들이 일떠설 때마다 새집을 받고 기뻐하는 사람들을 보며 부러움을 금치 못했댔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도 새집이 차례졌습니다. 그것도 어버이수령님께서 계시던 저택자리에 일떠선 가장 훌륭하고 황홀한 새집이 말입니다.

보통강이 유유히 흘러가는 강변에 황홀하게 솟아난 널직한 로대가 달린 호화주택에서 저와 우리 가족이 살고있습니다.

우리 집에 해외에 나가 몇년동안 살던 가족이 집구경을 왔던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외국에서 일정하게 돈이 있고 권세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이런 집에서 살 엄두를 내지 못한다고, 그런데 조국에서는 자본주의사회 같으면 상상도 할수 없는 이 희한한 집을 평범한 로동자에게 안겨주고있다고, 이것은 인민을 하늘처럼 떠받드는 우리 나라에서만 있을수 있는 일이라고, 우리 세상은 정말 로동계급의 세상이라고 감격에 겨워 이야기하는것이였습니다.

처음에는 받아안은 사랑이 너무도 커서 잠이 오지 않아 밤새 입사증을 들여다보며 뜬눈으로 밤을 새우군 하였습니다. 지금도 저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입사증을 바라보며 일을 더 잘해야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군 합니다.

이렇게 크고 현대적이며 궁궐같은 이런 집에서 정말로 내가 살고있다는것이 아직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정말 꿈만 같습니다.

저의 이 감정은 오늘래일만이 아니라 숨이 지는 마지막날까지도 없어지지 않을것같습니다.》

격정에 넘쳐 어쩔줄 몰라하며 이야기하는 그를 보느라니 생각이 깊어졌다.

체소한데다가 별로 눈에 띄우는데가 특별히 없는 그야말로 수수한 40대의 녀성이였다.

18살 처녀시절부터 천을 짠 직포공, 한 직종에서 묵묵히 맡은 일을 성실히 해온 이 나라의 어디서나 볼수 있는 너무도 소박하고 평범한 녀성이였다.

그에게서 남다른것이 있다면 직기앞에서 온종일 달리고도 퇴근시간이 되면 떠나기 아수해하며 그 작고 연약한 손으로 수많은 직기들을 돌본것이라고 할가, 자기가 짠 천으로 학생들의 교복도 만들고 사람들에게 옷을 해입히면 얼마나 좋으랴 하는 희망을 안고 직포공이 되였다는 그것일가.

그가 처음으로 맡은 기대는 4대였는데 해마다 기대수가 늘어나 21대까지 되였다고 한다. 기대수가 늘어나면서 처음 10㎡를 오가던 그의 순회길도 점점 늘어났고 생산실적도 해마다 높아갔다.

이 나날 그가 짠 천만 해도 펼쳐놓으면 무려 6 000여리에 달하고 그가 걸은 순회길은 지구둘레를 열바퀴 돌고도 남는다고 한다.

로동의 보람찬 생활속에 수십년세월 무수히 찍어온 그의 애국의 마음을 나라에서는 값높이 빛내여주었다.

평범한 직포공인 그는 공화국의 품속에서 사회주의애국공로자로, 공훈방직공으로, 시대의 전형으로 자라났고 공화국창건 73돐때에는 경축행사대표로 되여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앞에서 사랑의 기념사진을 찍는 크나큰 영광을 받아안았던것이다.

《명순동무는 공화국창건 73돐을 경축하는 행사에 참가하여 경애하는 원수님을 만나뵈옵고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앞에서 진행된 연회에까지 참가하였으니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정말이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부풀어오릅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공화국창건 73돐 경축행사에 참가한

로력혁신자, 공로자들을 만나주시고 성대한 연회도 마련해주시였습니다.

글쎄 모두가 부러워하는 인생의 가장 영광스럽고 행복한 그 자리에 평범한 직포공인 저도 있었습니다.

공장일군들과 동무들의 따뜻한 바래움을 받으며 뜻깊은 경축행사장으로 떠날 때까지만 하여도,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의 넓은 뜨락에 들어서는 그 순간에조차도 저에게 그런 영광의 자리가 마련되였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꿈결에도 뵙고싶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행사참가자들 모두를 사랑의 한품에 안으시고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어주시고 성대한 연회까지 마련해주실줄이야. …

만면에 환한 웃음을 담으시고 앞줄에 서있는 저에게 악수를 청하시는 원수님의 손을 잡고서야 꿈이 아니로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크게 한 일도 없이 영광의 자리에 섰다는 죄스러움에 아무 말씀도 올리지 못하고 그냥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기념촬영후 연회상에 앉아서도 음식을 들 생각마저 잊은채 원수님만 우러렀습니다.

경애하는 그이께서 대표들에게 사랑의 축배잔을 찡어주시자 그들은 저저마다 어려움도 잊고 그이곁에 다가가 자기들의 이름을 아뢰이고 해놓은 일들을 자랑하였습니다.

그들속에는 고령의 나이에도 우리 공화국의 기상을 만방에 떨쳐가는 인민방송원도 있었고 인민들모두의 사랑을 받는 녀성가수도 있었으며 체육인도 있었고 영화예술인도 있었습니다. 또 농장원도, 탄부도 있었으며 과학자도, 나어린 소년단원들도 있었습니다.

직포공인 저도 그들처럼 무랍없이 그이곁으로 다가가 <경애하는 원수님, 김정숙평양방직공장 직포공 리명순입니다.>라고 삼가 인사를 올렸습니다.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저에게도 사랑의 축배잔을 찡어주시였습니다. 정말이지 화목하고 단란한 한가정, 한식솔이 모여앉은것만 같았습니다.

자애로운 어버이를 모시고 꿈같은 시간을 보내는 우리들의 가슴은

이 세상 만복을 독차지한것만 같은 무한한 행복감에 넘쳐있었습니다.

그때 정말 생각이 많았습니다.

과연 우리들이 누구인가. 너무나 소박하고 평범한 이 나라의 공민들이다.

또 나는 누구인가. 꽃나이처녀시절부터 천을 짠 평범한 직포공이 아닌가.

그런데 나라에서는 나를 공훈방직공으로, 시대의 전형으로 내세워주었다.

응당 해야 할 일을 한것뿐이고 수십년간 맡겨진 일터에서 자기의 본분을 다했을뿐인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의 성스러운 애국의 력사속에는 지켜선 일터와 초소마다에서 근로의 땀을 뿌리며 나라의 재부를 늘이고 과학과 문화전선의 선두에서 조국의 영예를 떨치며 사회주의문명의 개화기를 열어나가는데 크게 공헌한 로력혁신자, 공로자들의 공적이 진하게 슴배여있다고 값높이 평가해주시였습니다.

그때 우리모두를 일일이 손잡아주신 자애로운 어버이의 사랑을 세월이 간대도 정녕 잊을수 없을것같습니다.

저는 지금도 영광의 그날 경애하는 그이를 모시고 찍은 사랑의 기념사진을 보며 생각하군 합니다.

우리들이 경애하는 그이를 한가정의 어버이로 모시고 혈육의 정을 나누며 찍은 이 영광의 기념사진이야말로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사랑의 가족사진이라고 말입니다.

제가 20여년간 다기대운동의 순회길을 달린것은 사회주의 내 조국을 위하여 공민으로서 응당 해야 할 본분이였습니다.

그런데 이렇듯 대해같은 사랑을 받아안고보니 정말 송구스러웠습니다.》

력사의 그날을 못잊어 뜨거운 감동속에 토로하는 그의 두볼로는 격정의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한공장에서 일하는 그의 남편도 공장에서 수십년동안 성실하게 일해온 9명의 혁신자들이 경루동의 새집들에 입사하였다고, 우리 나

라는 정말 로동계급의 세상이라며 눈굽을 찍었다.

자본주의사회 같으면 피땀을 흘리며 《말하는 로동도구》가 되여 혹사당할수밖에 없는 평범한 로동자들이 억만장자들도 부러워할 명당자리에 일떠선 호화주택에 돈 한푼 들이지 않고 보금자리를 펴게 되였으니 왜 그렇지 않겠는가.

이들부부의 이야기를 들으며 이 세상에 로동자의 호화주택이란 말은 인민대중제일주의의 대화원을 가꾸어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품에서만 태여날수 있는 전설같은 말이라는 생각으로 우리의 가슴은 젖어들었다.

《명순동문 어떻게 되여 직포공이 되였는가요?》

《저의 어머니는 지방에 있는 어느한 농장의 이름난 혁신자였습니다.

그런데 시집을 와서 산후탈로 앓다나니 집에 들어앉게 되였답니다. 어머니는 나라에 아무런 보탬도 주지 못하는 자신에 대해 죄책감을 금치 못하며 사람은 성실해야 하며 일을 하려면 오륙을 바쳐 헌신해야 한다고 늘 자식들에게 당부하군 하였습니다.

제가 중학교를 졸업할무렵이였는데 하루는 어머니가 신문을 보니 어버이수령님께서 인민들의 옷감때문에 항상 걱정하고계시는데 몸만 성하다면 지금이라도 방직공장에서 일하고싶다는것이였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몫까지 합쳐 어버이수령님의 심려를 덜어드리는 일에 앞장서자고 방직공장에 가서 일할것을 결심하게 되였습니다.

꿈과 희망이 마냥 부풀어오르는 중학교졸업반시절이면 앞날에 대한 생각으로 가고싶은 곳, 하고싶은 일이 많을 때입니다.

하지만 졸업을 앞둔 어느날 제가 지망란에 <대학>이 아니라 <방직공장>이란 글자를 세번이나 써넣었을 때 선생님과 학급동무들이 얼마나 놀라와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대학으로 갈것이라고 생각했었기때문이였습니다.

선생님과 동무들은 즉흥적인 기분으로 결심한것이 아닌가고 하며 다시 생각해볼것을 권고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즉흥이 아니였습니다. 청년들을 어렵고 힘든

부문으로 부르는 시대의 호소에 심장의 박동을 맞춘 새세대의 량심이였고 신념이였던것입니다.

이렇게 되여 저는 평양종합방직공장(당시)에서 직포공으로 사회생활의 첫걸음을 내짚게 되였습니다.》

리명순은 감회깊은 얼굴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는 공장에서 운영하는 기능공학교에 들어가 공부하다가 졸업을 앞둔 주체83(1994)년 7월 위대한 수령님께서 뜻밖에 서거하시였다는 청천벽력같은 비보에 접하게 되였다.

하늘도 울고 땅도 울던 7월의 그 나날 매일 밤 만수대언덕으로 오르는 리명순의 가슴속에는 굳은 각오가 바위처럼 들어앉았다.

(더 많은 천을 짜서 인민생활향상을 위해 그토록 마음쓰신 어버이수령님의 숭고한 뜻을 기어이 관철하겠습니다!)

이런 비상한 결심을 품은 리명순은 기능공학교를 졸업할 때 공장적으로도 제일 어렵고 힘든 부문인 직포종합직장 1직포직장 직포공으로 배치해줄것을 제기하였다.

1직포직장은 천리마시대의 영웅들을 배출한 자랑많은 일터였던것이다.

그는 천리마시대의 영웅직포공들처럼 살고싶었다.

그러나 욕망이 곧 실천은 아니였다.

그가 직포공일을 시작한 얼마후 조국앞에는 고난의 행군, 강행군이라는 어려운 시련의 시기가 닥쳐왔던것이다.

전기사정, 자재부족으로 숨죽은 기대들이 늘어났고 식량난으로 기대공들이 하나, 둘 쓰러지기 시작하였다. 지어 일터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는 눈앞이 캄캄했다. 하루에 죽 한사발로 때식을 에우는 배고픔도 견디기 어려웠지만 보다 참기 힘든것은 숨죽은 기대를 돌릴수 없는 피로움이였다.

그러던 어느날, 그날도 멎어있는 기대앞에서 교대시간을 보내고 집에 돌아온 그의 앞에 한통의 편지가 놓여있었다. 농촌에 자원진출한 학교동창생이 보낸 편지는 그의 마음을 순간에 휘저어놓았다.

헤여진지 2년정도 되였는데 그는 벌써 해마다 농사일을 알심있게 할뿐 아니라 거름생산에서 높은 실적을 내는 혁신자로 이름떨치고있었던것이다. 거기서는 전기가 안오면 등짐으로라도 물을 길어 논에 대고 비료가 없으면 자체로 부식토를 듬뿍 생산하며 농사를 짓는다는것이였다.

리명순은 마음껏 땀을 뿌리며 일하고있는 그가 몹시 부러웠다.

(나의 모든 힘을 깡그리 바쳐서라도 멎어있는 기대를 돌릴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가. 하지만…)

다음날 그는 어머니에게 자기의 심정을 터놓았다.

《어머니, 이제라도 농촌에 진출하면 어떨가요? 숨죽은 기대앞에서 허무한 나날을 보내기보다 차라리 땀흘리며 농사라도 꽝꽝 짓고 싶어요.》

그때 흔들리는 그를 보며 어머니는 말했다.

《사람이 일을 가릴 버릇하면 어떤 일도 성공하지 못하는 법이다. 기대가 죽었다고 정신까지 죽어서야 되겠니. 나라에서 큰일을 맡겼으면 구실을 해야지.》

이것은 그의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아주며 어제날의 혁신자가 새 세대에게 넘겨주는 귀중한 유산이였다.

리명순은 그날에 한 어머니의 말을 심장속에 깊이깊이 새기였다.

동요하던 마음이 가라앉고 다음날부터 그의 발걸음이 달라졌다.

새로운 눈으로 일터를 보고 기대를 보았다. 그러고보니 일감은 부지기수였다.

정전이 되면 날실정리를 하였고 자재가 떨어지면 온몸이 기름투성이가 되여 직기들을 정비하였다. 그리고 밤마다 현장에서 기대다루기 가상훈련을 하면서 기술기능을 높여나갔다.

이러한 때 위대한 장군님께서 평양일용품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는 소식이 온 공장에 전해졌다.

방직공장과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있어 항상 그 공장옆을 지나 출퇴근을 하던 리명순은 하루일을 마친 그날 저녁 평양일용품공장으로 달려가 정문앞에 오래도록 서있었다.

어버이장군님께서 혹시 우리 공장에도 찾아오시지 않을가. 그러면 나는 무엇으로 그이께 기쁨을 드릴가 하고 생각하니 그의 눈에서 순간에 뜨거운것이 왈칵 쏟아져내렸다.

그는 자기가 어떻게 공장으로 다시 돌아왔으며 어떻게 직장사무실문을 열었는지도 느끼지 못했다.

《우리 작업반 처녀들로 돌격대를 무어주십시오. 저 멎어있는 기대들을 우리가 맡아 돌리겠습니다.》

그의 절절한 호소는 직장일군들의 마음을 움직여놓았다.

이렇게 되여 그처럼 어려웠던 시련의 시기에 1직포직장에는 청년들로 리수복청년돌격대가 무어지게 되였다.

청년돌격대활동이 맹렬히 벌어지던 어느날, 다기대운동의 봉화를 추켜들고 맨 앞장에서 무섭게 내달리던 그가 갑자기 배를 그러쥐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남들이 볼가봐 기대사이에 쪼그리고 앉아 아픔을 이겨내고있는데 실이 끊어지는 바람에 직기들이 멎었다.

그는 칼로 에이는듯한 아픔을 참으며 멎어선 직기를 향해 앉은걸음으로 한치한치 다가갔다. 가까스로 날실들을 이어주고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또 기다싶이 하여 다음기대로 가서는 씨실을 이어주기를 그 몇번…

다섯번째 기대앞에 이르러 그는 끝내 쓰러지고말았다.

직장일군의 등에 업혀 공장병원으로 간 그가 정신을 차린것은 그로부터 몇시간이 지난 후였다.

직장일군들과 의사, 간호원들이 긴장한 눈빛으로 자기의 얼굴을 들여다보고있었다.

《명순동무, 큰일날번했군요. 여기서 며칠 치료를 받아야겠어요.》

그러나 밤새 앓음소리를 내며 신고하던 그가 다음날 새벽 병원에서 없어져 소동이 일어났다.

그날 작업장에 들어서던 직포공들은 깜짝 놀랐다. 병원에 실려갔던 리명순이 제일먼저 출근하여 기대정비를 하고있는것이 아닌가.

직장일군들과 직포공들이 달려와 그의 앞을 막아섰다.

《일손을 놓으면 내 병은 낫지 않아요.》

불사신같은 이런 인간의 앞을 과연 무엇으로 막을수 있단 말인가. 또 이런 일이 처음이였던가.

열번 쓰러지면 열번 다시 일어나 승리의 고지를 향해 달리고 또 달리는 이런 강인한 인간앞에 사람들은 머리를 숙이군 하였다.

이렇게 더 많은 일을 할 열정에 불타는 그를 공장에서는 혁신자로 내세워주었다.

그는 첫선을 보면서도 《내가 시집을 가서도 지금 하는 일을 계속할수 있게 해준다면 더 바랄것이 없다.》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해 남편될 사람을 아연케 하기도 하였다.

군관복을 입은 미남자, 처녀앞에 나타나서 말도 얼마 하지 않은 그였지만 처녀의 조용하나 다기찬 말에서 그의 소중한 꿈을 읽었고 한없이 소박하고 일밖에 모르는 그를 돕고싶은 마음에 리명순과 한 가정을 이루게 되였다.

남편의 세심하고 따뜻한 사랑이 어린 도움으로 그는 집걱정을 모르고 혁신자의 영예를 고수하고 빛내여나갈수 있게 되였던것이다.

《하루에 순회길을 180리이상을 달렸다고 하던데. 무슨 힘으로 그렇게 달릴수 있었는가요?》

《위대한 장군님 가까이로 남먼저 달려가고싶은 마음, 집단의 사심없는 방조와 믿음이 저에게 진할줄 모르는 힘을 주었습니다.》

나의 물음에 이렇게 대답한 리명순은 말을 이었다.

청년돌격대활동을 벌리던 나날에 그들은 공장구내에 모셔진 절세위인들의 현지지도사적비앞에서 돌격대의 첫 일과를 시작했고 분분초초를 불태웠으며 퇴근길에 오르면 평양일용품공장 정문앞에 서서 하루일을 총화짓군 하였다.

말그대로 어버이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으로 가득찬 화선일과표였다.

그 일과표와 함께 그가 맡아보는 직기도 계속 늘어만 갔다.

제자리걸음을 하던 사회주의경쟁도표판의 붉은 줄이 쭉쭉 뻗어올랐지만 그는 만족을 몰랐다. 하루빨리 혁신자가 되여 위대한 장군님께서 공장에 찾아오시면 제일먼저 꽃다발을 드리고싶었다.

그런데 그렇게도 바라고바라던 그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영광의 날이 찾아올줄이야.

그가 자기 정량의 5배도 넘는 직기를 맡아보던 주체98(2009)년 7월 30일 꿈결에도 뵙고싶던 위대한 장군님께서 공장에 찾아오신것이였다.

영광의 그날 위대한 장군님께서 새세대 로력혁신자라고 불러주시며 다정히 손을 잡아주시고 사랑의 한품에 안아 기념사진까지 찍어주실 때 그는 쏟아지는 눈물을 걷잡을수 없었다. 행복의 순간뒤에 오는 가슴저림에서였다.

삼복철의 무더위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불편하신 몸으로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는 그이의 로고가 헤아려졌던것이다.

너무도 수척해지신 위대한 장군님의 모습을 우러를수록 기쁨에 앞서 죄책감으로 가슴이 미여지는것만 같았다.

위대한 장군님앞에 혁신자라고 나선 자신이 민망스러웠고 지금까지 자그마한 일을 해놓고 장군님 오실 날만을 손꼽아 기다려온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철이 없었는가를 통절히 느끼게 되였다.

일을 더 많이 하여 이제 더는 우리 장군님께서 삼복의 무더위에 이런 길을 걷지 않으시게 하자.

그때부터 그에게서 혁신자라는 개념이 완전히 달라졌다.

년간계획을 완수하면 또다시 2년분계획수행에로, 그 고지도 점령하면 3년분, 4년분계획수행을 향하여 쉬임없이 달려오면서도 자신을 언제 한번 혁신자로 자부하지 않았다.

방직공업부문에서 다기대운동의 선구자로 된 그는 2009년 150일전투때 8대의 기대로부터 12대, 16대, 21대까지 직기를 맡아 천을 짜면서 5년분계획을 완수하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그해 그는 매일 순회길을 180리이상 달렸다.

그리운 어버이장군님께 더 많은 천을 짰다는 기쁨의 보고를 올릴 날만을 위하여 달리고 또 달리였다.

날이 갈수록 직기순회길은 점점 멀어졌지만 그 길은 바로 우리 장군님께로 더 가까이, 더 빨리 달려나가는 지름길, 나라의 맏딸로

사는 값높은 인생의 직선주로였다.

이렇듯 그의 영웅적인 위훈의 바탕에는 위대한 장군님의 가까이로 달려가는 직선주로를 남보다 더 빨리 달려야 한다는 자각이 있었다.

그의 이야기를 듣노라니 언제인가 김정숙평양방직공장을 찾았을 때 《나에게 더 많은 직기를 달라!》고 했다던 그의 불같은 호소가 담긴 구호가 작업장속보제목으로 나붙었던것을 본 기억이 났다.

지구를 열바퀴 돈 신기록의 창조자!

일욕심은 하늘, 일솜씨는 번개!

이것은 리명순의 투쟁기풍을 통속적으로 이루는 말이였다.

몇해전 12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김정숙평양방직공장에 찾아오시여 공장에서는 종업원들이 자기 일터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주요전구로, 사회주의수호전의 제1선참호로 생각하고 인민군군인들이 조국보위초소를 지키듯이 자기 일터를 지켜나가도록 할데 대하여 가르쳐주시면서 공장종업원들이 노래 《내가 지켜선 조국》을 많이 부르도록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그 말씀은 그의 가슴에 세찬 격정을 일으켰다.

《내가 지켜선 조국》!

자기가 서있는 기대앞이 곧 조국을 지키는 초소라는 숭고한 자각을 안고 그는 심장의 노래를 불렀다. 그것은 그가 한생토록 부르고 또 부를 인생의 주제가였던것이다.

일욕심이 많은 사람에게는 더 많은 일을 할수 있는 묘안이 생기기마련이다.

어느날 교대를 마치고 작업장을 나서려던 그는 기대순회를 하는 직포공들의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았다. 그러던 그의 머리속에 새로운 착상이 떠올랐다. 지금처럼 기대의 앞뒤를 오가면서 보는것보다 줄별로 한줄씩 뛰여넘으면서 단번에 두대씩 보면 한번 순회하는데 드는 시간이 절반으로 줄어들것같았다.

그는 즉시 수첩을 펼쳐들었다. 현재 맡은 기대들을 순서대로 배렬해서 그린 다음 종전의 순회길과 금방 떠올랐던 순회길을 그려넣고 길이를 계산해보았다.

새로운 순회길은 길이가 종전의 절반밖에 안되였다. 그러나 작업에 대한 집중성은 이전보다 더 높아야 했고 일솜씨가 비상히 빨라야 했다. 그는 번개같은 일솜씨를 갖추기 위해 남모르는 땀방울을 한껏 쏟았다.

그는 이렇게 기대순회방법을 새롭게 개선하여 기대당 천생산량을 하루정량의 2배로 높일수 있었다.

몇해전 상반년계획수행을 눈앞에 두고 긴장한 작업을 하던 어느날 기세좋게 돌아가던 직기가 멎어버렸다. 아무리 살펴봐도 원인을 알수 없었다. 10분정도 지났을 때 수리공이 달려왔는데 큰 고장인줄 알았던 기대가 씨실감촉기 하나를 제꺽 교체하니 슬슬 돌아가는것이였다.

수리하는데 든 시간은 불과 2～3분정도밖에 안되였다. 그것을 본 리명순은 이런 간단한 수리는 배우면 꽤 자체로 할수 있을것같았다.

직포공들에게 있어서 제일 걱정거리는 직기고장이다. 그런데 아무리 기능이 높은 수리공이라도 예비부속품이 없이는 어쩔수 없는것이다.

그때부터 그의 일과가 또 달라졌다. 교대를 마치면 수리공들을 찾아가 직심스럽게 수리기술을 배웠다.

그에게는 늘 혹처럼 달고 다니는 자그마한 주머니가 있다. 사람들은 그것을 두고 《보물주머니》라고 한다. 그는 매일 작업장을 오가면서 바닥에 굴러다니는 소재나 낡은 부속품들을 보면 주머니에 꼭꼭 넣어두었다가 재생리용하여 직기들의 만가동, 만부하에 기여하군 하였다.

그가 간단한 기대수리를 자체로 하면서부터 그의 《보물주머니》에는 수리공구들까지 자리잡게 되였으며 웬간한 수리는 자체로 하였다.

낮에는 천을 짜고 밤에는 수리공들옆에 붙어 기대수리방법을 하나하나 배우는 그의 불같은 열정을 두고 사람들은 무쇠덩이 한가지라고 혀를 찼다.

그러나 그는 결코 무쇠덩이가 아니였다. 그도 다른 직포공들과 꼭같은 녀성이고 가정부인이였다. 오히려 남들보다 체력이 약한 축이였다.

그에게 남다른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자기가 맡은 기대, 자기가 결의한 생산목표는 조국앞에 자신이 책임진다는 비상한 자각과 무엇이나 자체의 힘으로 해내려는 자력자강의 정신이였다.

무슨 일에서나 만족을 모르고 헌신하는 그를 나라에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평가해주고 영광의 단상에 높이 내세워주었다.

언젠가 리명순은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진행된 전국경공업대회의 높은 연단에서 방직공업부문의 로동계급을 대표하여 토론을 하는 크나큰 영예를 지니게 되였던것이다.

조직과 집단의 뜨거운 사랑과 기대속에 영광의 단상에 오를 때마다 그는 더 높은 목표를 내세웠고 더욱더 분발하였다.

그가 지금껏 짠 천의 길이를 모두 합치면 6 000여리, 그만한 길이의 천을 짜자면 그의 백수십배에 달하는 순회길을 달려야 한다.

그 길을 모두 이어놓으면 지구의 둘레 열바퀴에 해당한 100만여리!

그것은 단순한 수자가 아니였다.

그가 세운 기적적인 신기록은 바로 자기를 믿어주고 아껴주고 내세워준 어머니조국에 바치는 량심의 자욱이였고 보답의 자욱이였다.

우리의 취재가 거의 끝나갈무렵 리명순의 남편이 밥상을 차려놓고 식사를 권하는것이였다.

《이 집에서는 주부가 바뀐 모양이지요.》

《솔직히 남편이 저와 가정을 이루고 우리 공장 수리공으로 일하면서 아이를 돌볼래, 살림살이도 할래 온갖 가정잡사를 맡아안고 정말 수고가 많답니다. 선을 볼 때 한 약속을 지켜 오늘까지 성의껏 저를 도와주고있는 남편을 보면 고마운 생각뿐입니다.

그저 천짜는 재미에 아이가 어떻게 컸는지도 잘 몰랐습니다.》

《혁신자안해를 돌봐주느라 수고가 이만저만 아니겠습니다.》

《안해를 일생의 동반자로 삼으면서 처음부터 결심했던 일인지라 언제 한번 힘들다고 생각해본적은 없었습니다.

우리가 결혼식을 한 다음 저는 제대되여 안해와 한공장에서 수리공으로 일하면서 안해의 작업모습을 지켜보군 하였습니다. 하루종일 콩당콩당 뛰여다니는 안해를 보면서 무쇠덩어리인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너무도 힘들고 피곤하여 퇴근길을 걸으면서도 졸고 밥을 먹으면서도 졸다가는 그 자리에 쓰러지군 하는 안해를 보며 내가 무엇인가 하나라도 더 도와줄것이 없을가 하는 생각에 항상 잠이 그리운 그가 조금이라도 더 눈을 붙이라고 집안일을 혼자 맡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영령이가 태여났을 때에는 안해를 돌봐주어야 하는데다가 진아이까지 맡아안고 정말 땀개나 뺐습니다.

해마다 새해 첫 작업에 들어갈 때면 밤을 새우며 일하는 안해를 대신하여 영령이를 앞으로 업고 손에는 안해에게 줄 밥구럭을 싸들고 첫새벽에 공장탁아소에 아이를 맡기군 하였는데 젊은 남자가 아이를 업고 다니는것이 좀 면구스러울 때도 없지 않았습니다. 퇴근시간이 되면 탁아소에서 아이를 찾아업고 부식물을 사러 돌아다니였는데 아이를 업은 모양이 얼마나 서툴었는지 지나가던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농촌에서 살고있는 어머니를 모셔오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못가서 어머니는 나라가 어려운 때 기대옆을 떠나지 않고 일터에서 혁신을 일으켜나가고있는 며느리에게 시어머니공대로 부담을 줄수 없다며 다시 농촌으로 내려가는것이였습니다. 그리고는 터밭농사를 열심히 지어 우리에게 부식물 한가지라도 보태주기 위해 애쓰며 항상 혁신자며느리를 잘 돌봐주라고 저를 신칙하군 하였습니다.

어머니의 말없는 지지가 저에게 큰 힘을 주어 동자질과 아이를 보는 등 온갖 세간살이를 혼자서 도맡아하면서도 안해를 더 위해주려 애썼습니다.

안해가 사업에서 성과를 거두고 위대한 장군님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따뜻한 축복을 받아안으며 영광의 단상에 설 때마다 그저 나라에 보탬되는 일을 하기 위해 애썼을뿐인 평범한 로동자를 그토록 높이 내세워주시는 그 은정이 너무도 고마와 안해를 더 잘 도와야겠다는 생각이 더 굳어지군 합니다.

그전에는 생활조건이 어려운 속에서도 안해를 도와주기 위해 노력했는데 이처럼 편리하고 황홀한 새집에 오니 아무리 집안일에 부

대껴도 힘든줄을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작업반장이 되였으니 명순동문 더 높은 목표를 내걸었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작업반원들모두가 한마음한뜻이 되여 당 제8차대회에서 제시된 과업을 기한전에 완수하려고 떨쳐나섰습니다.

집단의 영예속에 나의 영예도 있는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직포공으로 있을 때도 늘 마음만은 작업반을 안고 달렸습니다.

언제나 영광의 일터를 지켜섰다는 자각을 안고 뛰고 또 뛰려고 합니다.

우리 작업반을 온 나라에 소문난 고경찬영웅소대와 같은 혁신자작업반으로 만들 결심입니다.

지켜봐주십시오.》

우리는 그의 결의가 실천으로 이어지리라는것을 믿어의심치 않는다.

그의 뒤를 이어 지금 김정숙평양방직공장의 혁신자대렬이 나날이 늘어가고있기때문이다.

김정숙평양방직공장에서는 올해에만도 년간계획완수자가 15명이나 나왔다고 한다. 적지 않은 직포공, 방직공들이 자기 정량의 2배, 2.5배이상의 직기를 맡아나섰고 서로 돕고 이끌면서 기대의 리용률을 최대로 높여나가고있다는것이다.

김정숙평양방직공장의 준마처녀로 소문난 김은경은 지난 4월초에 벌써 년간계획완수자로 되였다. 올해계획을 완수하고 마음속으로는 벌써 다음해인 2024년의 결승선을 향해 달리고 또 달린다는 처녀, 그의 가슴에는 다기대, 다추운동의 봉화를 높이 들었던 천리마시대 방직공영웅들의 미더운 모습이 꽉 채워져있었고 천리마시대 처녀혁신자들처럼 살며 일하려는 애국의 마음이 차넘쳤을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가장 가까이에서 행복의 무아경에 빠져있는 문강순, 리명순을 비롯한 로력혁신자들의 모습이 깊이깊이 새겨졌을것이다.

공장의 혁신자로 자랑높은 직포공들인 리수정, 안미경도 공장의

영웅들은 거의다 청춘시절에 배출되였다고 하면서 귀중한 이 시절에 한필한필의 천마다에 아름다운 청춘의 자서전을 새기여갈 결심에 충만되여있다고 한다.

오늘날 김정숙평양방직공장 종업원들의 하루하루는 창조와 혁신을 삶의 제일가는 멋으로 여기는 불같은 지향으로 뜨겁게 달아오르고있다.

이렇게 나날이 늘어가는 혁신자들의 대오속에 리명순의 작업반원들도 하나하나 들어서느라면 그의 결의가 멀지 않은 앞날에 실천으로 이어지리라는것은 불보듯 명백한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하늘같은 은정, 나라의 고마움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더 많은 일을 할 열의에 불타고있는 리명순의 앞길을 하늘의 별들도 밝은 빛을 뿌리며 축복해주는듯싶다.

공훈자동차운전사부부

(공훈자동차운전사들인 련못무궤도전차사업소
최홍기, 허명금)

오늘 우리 사회를 둘러보면 나라위한 일에 자기의 땀과 노력, 지혜와 열정을 아낌없이 바쳐가는 사람들을 수많이 찾아보게 된다.

가사보다 국사를 앞에 놓고 맡은 일을 책임적으로 수행하며 조국에 보탬이 되는 일이라면 무슨 일이든 스스로 찾아하는 그런 성실한 인간들의 정신세계를 투시해보면 하나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

자기가 지켜선 초소가 뭇사람들이 선망의 눈길을 모으는 요란한 일터는 아니고 스스로 찾아하는 일감이 큰것은 아니여도 자기가 반드시 해야 할 일로 여기고 누가 보건말건, 알아주건말건 순결한 량심을 묻어가는것이다.

애국은 조국에 대한 헌신이고 투신이다.

진실한 애국의 마음은 례사로이 흘러가는 로동과 생활의 순간순간마다에서 표현되고 공고화되며 작고도 소박한것에서 시작되여 보다 크고 위대한것으로 승화된다. 우리는 이것을 숭고한 사상감정이며 불같은 헌신이라고 말한다.

어디서 무슨 일을 하는가 하는것이 중요한것이 아니라 어떻게 일하고있는가 하는것이 중요하다.

자기 일터, 자기 직업을 더없이 사랑하며 그 일터에서 자신의 모든것을 바쳐 조국을 받들어야 한다는것이 이들모두의 인생관인것이다.

애국으로 아름다운 그 모습에서 작고도 소박한것에서 시작되여 보다 크고 위대한것으로 승화되는 조국애의 숭고한 세계를 가슴뜨거이 새겨안을수 있다.

련못무궤도전차사업소 공훈자동차운전사들인 최홍기, 허명금부부

는 수도시민들로부터 《애국자부부》로 불리우고있다.

이 부름에는 조국이 맡겨준 초소에서 나라와 인민을 위해 성실한 땀을 아낌없이 바치는것을 공민의 본분으로, 더없는 영예로 여기는 그들에 대한 사랑과 존경이 담겨져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40여년간 한무궤도전차에서 교대운전사로 일하면서 평범한 날에나, 시련의 날에나 운행길에 깨끗한 량심을 바쳐온 이들부부도 애국자동네인 경루동의 주인으로 내세워주시였다.

우리는 경루동에 대한 취재길에서 이들부부도 만날수 있었다.

그날 가없이 푸른 하늘에서는 흰구름이 두둥실 떠다니고 해볕이 따스하게 내려쪼였다.

보통 아빠트살림집들은 현관에서 우로 올라가던가 현관과 수평으로 된 곳에 1층살림집들이 있지만 이 다락식주택은 현관에서 계단을 따라 내려가야 1층살림집이 있다.

산의 자연기복을 따라 살림집을 건설하면서 현관문을 비탈진 면의 반대쪽으로 내주어 측면으로 보면 현관이 4층짜리 다락식주택의 중간쯤에 있는것으로 된다. 그렇게 보니 현관에서 1층으로 표시된 다락식주택들은 두개 층으로 된 새로운 형식의 살림집인것이다.

로동자부부가 바로 이런 새롭고 독특한 형식의 살림집에서 살고있었다.

현관문에서 아래쪽으로 계단 하나를 내려가니 《허명금》이라고 쓴 문패가 보였다. 완전히 새로운 형식의 집이라는것이 현관에서부터 알렸다.

이런 살림집은 내부가 어떨가 하는 생각에 벌써부터 마음이 달아올랐다.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니 맞은편 벽에는 옷걸이와 거울을 설치하여 집주인이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기 전에 거울을 보면서 옷차림새를 바로잡을수 있게 되여있었고 문옆에 있는 신발장에는 환기구멍까지 내주었다.

문쪽에서 조금 들어가니 넓은 공동살림방과 식사칸, 부엌이 한눈에 안겨왔다.

탁구판을 차려놓아도 될만한 면적의 공동살림방과 부엌이 련결되여 탁 트이고 공동살림방과 식사실사이의 개구 량옆에는 장식장이 설치되여있었다. 공동살림방과 식사실이 시각적으로 구분되니 방안이 참 아늑해보였다.

로대로 된 베란다로 나가는 벽면은 통채로 유리로 된 미닫이문으로 되여있고 넓다란 로대를 막아주는 란간쪽에는 강질유리를 끼워 들여다보이게 함으로써 세련된 느낌을 더해주었다.

살림방들은 모두 전기난방화되고 부엌에서는 더운물과 찬물이 콸콸 쏟아지는데다가 부엌과 로대사이에 남새도 다듬어씻고 세탁도 할수 있게 수도꼭지가 설치된 세탁장이 있었다. 집안 곳곳의 가구놓을 위치에 따라 아래쪽과 중간쪽에 접속구들도 설치되여있었다. 아래쪽에 설치된 접속구들에는 하나같이 덮개가 씌여져있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수 있게 되여있었다. 정말이지 구석구석마다에서 흠잡을데 없이 섬세한 손길이 느껴졌다.

우리는 편리하면서도 미학성이 높은 수준에서 보장된 위생실과 시원하면서도 아담하게 꾸려진 공동살림방의 희한함에 눈길을 어디부터 주어야 할지 몰라 연방 《야! 야!》 하는 감탄사만 련발하였다.

한쪽으로는 자식방과 위생실, 창고들이 있었는데 출입문에서 조금 나가면 또다시 아래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었다.

계단을 따라 아래층으로 내려가니 서재와 부부방에 잇달린 위생실, 창고를 비롯하여 여러개의 살림방이 있었는데 그야말로 살림집이 아니라 휴양소나 호텔같은감이 들었다.

살림집을 돌아보고 우리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살림집내부구조에 연해연방 놀라움을 표시하며 이게 어떻게 일반살림집이란 말인가, 외국의 호화별장보다도 나으면 나았지 못하지 않다고 감탄을 금치 못하였다.

저도 모르게 이런 집에서 살아보았으면 하는 생각이 갈마들었다.

왜 그렇지 않겠는가.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 계시던 저택자리에 일떠선 인민을 위한 주택구라는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차 사람들모두가 눈길을 모으는

데 이렇게 특색있고 호화스러운 살림집내부까지 본다면 누구인들 이런 집에서 살고싶지 않으랴.

이런 집에서 무궤도전차를 몰아가는 평범한 로동자부부운전사가 살고있었다.

이들부부는 군대에서 제대된 아들과 함께 세식구밖에 되지 않는데 이렇게 크고 호화로운 살림집에 보금자리를 잡은것이다.

우리로서도 믿기 어려운 현실이였다.

그들부부는 자기들에게 이렇게 경루동에서도 제일 좋은 집이 차례질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다고, 너무도 아름찬 행복을 어떻게 표현했으면 좋을지 모르겠다며 눈물을 머금고 이렇게 말하였다.

《옛날부터 백성의 집을 헐어서 량반의 집을 짓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위대한 수령님의 저택자리에 우리와 같이 평범한 로동자들을 위한 호화주택을 지어 무상으로 안겨주었으니 이런 나라는 력사의 그 어느 갈피에서도 찾아볼수 없습니다.

우리 부부가 한직장에서 오래동안 일한것이 무슨 내세울만한 소행이라고 2층짜리 집에 저희들의 이름을 새겨주신단 말입니까.

준공식이 끝난 다음 집으로 달려와보니 너무도 희한하여 선뜻 발을 들여놓을수가 없었습니다. 쓸어보고 바라보아도 집이라기보다 궁전, 호텔과 같은 이런 집에서 로동자인 우리 부부가 산다는것이 멋적기도 하고 생시인지 꿈인지 도무지 분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현관문앞에 서면 자동열쇠가 달린 화면대화기가 반겨주고 집안에 들어서면 아무런 불편도 없이 일식으로 갖추어진 비품들과 랭온풍기, 식사도구들이 어서 오라 반기는 이런 희한한 살림집을 저같이 평범한 사람들에게 안겨주시기 위해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여러 차례나 현지를 찾으시며 세심히 보살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 고마움의 인사밖에 드릴수 없는것이 안타깝습니다.

호화주택구를 바라보는것만으로도 격정을 금치 못하던 저희들이 그 집의 주인으로 되였다고 생각하니 눈물만 앞서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이 사랑, 이 은덕에 어떻게 보답하랴 하는 걱정부터 앞섭니다.》

격정에 넘쳐 흐느끼는 그들부부를 바라보느라니 우리도 뜨거워지

는 마음을 진정할길 없었다.

《허명금동무는 평양시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선거될 때도 경애하는 원수님의 축복을 받아안았다지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때의 일을 잊을수 없습니다.

주체104(2015)년 7월 19일 도, 시, 군인민회의 대의원선거에 참가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평양시인민회의 대의원후보자인 저에게 몸소 투표해주시는 크나큰 영광을 안겨주시였습니다.

그날 선거장에서 저를 만나주신 원수님께서는 거칠어진 저의 손을 꼭 잡아주시고 조국과 인민에 대한 참된 복무정신을 안고 불타는 충성과 애국의 열정을 다 바쳐 헌신해온데 대하여 높이 평가해주시며 앞으로도 인민의 대표답게 자기앞에 맡겨진 숭고한 자각과 본분을 다해나가라고 뜨겁게 고무격려해주시는것이였습니다.

그때 저는 꿈을 꾸는것같아 막 팔을 꼬집어보았습니다.

태양같이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기름자욱이 어려있는 저의 이 두손을 따뜻이 잡아주시는 그이께 고마움의 인사도 제대로 올리지 못하고 눈물만 하염없이 흘렸답니다.

온 우주를 한가슴에 받아안는것만 같은 격정의 순간이였습니다.

1999년부터 서성구역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인민을 위한 정치활동에 참가하기 시작한 제가 2015년 7월에는 이런 영광속에 평양시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선거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직 경애하는 원수님을 따라 충성의 한길만을 가고갈 심장의 맹세를 다지고 또 다지였습니다.

자본주의사회 같으면 저같은 평범한 운전사가 대의원이 다 뭐고 어떻게 이처럼 영광과 행복의 절정에 오를수 있겠습니까.》

정말 그랬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평범한 무궤도전차운전사에게 찬성의 한표를 바쳐주신 그날로부터 허명금은 온 나라가 다 아는 유명한 사람이 되였다.

길거리에 나서면 뭇사람들이 허명금을 둘러싸고 부러움과 찬탄을 금치 못하며 그가 사는 집에도 때없이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축하의

인사를 해주군 하였다.

우리도 그때 어느한 무궤도전차에 우연히 올랐다가 차장의 말을 듣고서야 우리가 탄 차를 모는 운전사가 바로 경애하는 원수님의 축복을 받아안은 허명금이라는것을 알게 되여 축하해줄수 있었다.

그때 차안의 손님들은 녀성운전사에게 《그런 영광을 받아안은 운전사동무가 모는 전차를 타고 출퇴근길을 오갔다니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동무들에게 자랑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며 진심으로 축하해주었다.

전차에서 내리는 손님들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잡아주셨던 그 손을 한번 잡아봅시다.》라며 저저마다 그에게 손을 내밀었다.

그날 사람들의 축하의 인사를 받으며 차를 몰아가는 허명금의 눈굽은 젖어있었다.

련못무궤도전차사업소에서도 허명금이 받아안은 사랑과 믿음은 그만이 아닌 사업소의 전체 일군들과 종업원들모두가 받아안은 대해같은 믿음이고 사랑이라고 격정을 터뜨렸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땅속에 묻혀 보이지 않는 나무의 뿌리처럼 말없이, 소문없이 인민들을 위한 려객봉사초소를 꿋꿋이 지켜온 이들의 애국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시고 이토록 온 세상이 다 알게 내세워주신것이다.

후더워지는 마음을 안고 우리는 그들이 어떻게 되여 무궤도전차운전사가 되였는지, 어떻게 되여 수십년동안 한차에서 교대운전사로 일할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았다.

그러지 않아도 희한한 새집에 보금자리를 펴고보니 자기들이 운전대를 잡던 때가 새삼스럽게 돌이켜지더라며 그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허명금은 중학시절 자주 무궤도전차에 올라 우리 인민들에게 베풀어지고있는 사회적혜택에 대해서, 사회공중도덕과 질서를 잘 지킬데 대한 문제들에 대한 해설선전을 진행하였다. 그때마다 그는 무궤도전차를 모는 녀성운전사들을 호기심어린 눈길로 바라보군 하였다. 그러던 어느날 학급동무들과 함께 차청소를 도와주던 그는 한 처녀운전

사에게 어떻게 되여 무궤도전차를 몰게 되였는가고 물었다.

한동안 깊은 생각에 잠겨있던 그 처녀는 《너희들은 이 무궤도전차에 어떤 사랑이 깃들어있는지 다 모르지?》 하며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주체51(1962)년 4월 30일 평양에서는 무궤도전차의 개통식이 성대히 진행되였다.

온 거리가 크나큰 감격과 기쁨으로 들끓었다.

개통식이 있은 다음날인 5월 1일 명절을 맞은 수도시민들을 태우고 무궤도전차가 경쾌하게 달리는데 문득 어버이수령님께서 타신 차가 어느한 네거리에 와서 멈추어서는것이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 무궤도전차가 달리는것을 보시려고 몸소 거리에 나오시였던것이였다. 그이께서는 전차를 타고 즐거워하는 인민들의 모습을 보시며 만면에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손을 높이 들어 흔들어주시였다. …

그날 처녀운전사는 수도시민들의 교통문제해결을 두고 항상 마음쓰시는 어버이수령님의 뜨거운 사랑에 의하여 무궤도전차정류소들이 나온데 대하여, 수령님께서 탄생 예순돐을 며칠 앞둔 날에도 새로 만든 무궤도전차에 오르시여 난방문제와 기술상태 등을 세심히 알아보신데 대하여 격정속에 이야기해주었다.

《지금도 어느해 섣달 수도시민들의 교통상불편을 두고 마음쓰시며 애기어머니들이 추운데 애기를 업고 서있다고,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것이 미안하다고 하신 어버이수령님의 교시를 잊을수가 없구나. 난 그저 수도시민들을 위하시는 우리 수령님의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싶었을뿐이야.》

그날 허명금은 자기도 중학교를 졸업하면 꼭 무궤도전차운전사가 되여 위대한 수령님의 걱정을 덜어드리리라 굳게 마음다지였다.

수도려객운수부문에 깃든 절세위인들의 뜨거운 사랑은 그의 남편인 최홍기의 가슴속에도 깊이 새겨져있었다.

최홍기는 군사복무를 마치고 수많은 끌끌한 제대군인들과 함께 수도려객운수부문에 배치받았다.

무궤도전차운전사생활을 시작한지 여섯달째 되던 어느날 최홍기는 충격적인 소식에 접하게 되였다. 바로 며칠전 위대한 장군님께서 수도의 밤거리를 돌아보시며 수도시민들의 출퇴근보장정형을 료해하시였다는것이였다.

그때 최홍기는 제대군인들을 수도려객운수부문으로 불러주신 그 웅심깊은 뜻을 다시한번 깊이 새겨안으며 한생을 무궤도전차운전사로 살것을 맹세다지였다.

한구간한구간의 운행길, 진정 거기에는 인민들에게 보다 좋은 교통조건을 마련해주시기 위하여 크나큰 로고와 심혈을 바쳐가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뜻이 어려있었다.

하기에 한몸이 그대로 두줄기 선로가 되여서라도 무궤도전차의 정상운행을 보장하자고 첫사랑의 약속을 굳게 다진 최홍기, 허명금 부부였다.

한무궤도전차에서 몇해동안 교대운전사로 성실히 일해온 그들이 결혼을 하게 되였을 때 사업소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진심으로 기뻐하면서도 부부가 한무궤도전차에서 교대로 일한다는것이 헐치 않은지라 부득불 허명금은 차에서 내리든가 직업을 옮겨야 할것이라고 생각했다.

허명금의 심정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남편의 생각은 달랐다.

《내가 힘껏 도울테니 우리 함께 초소를 지켜갑시다.》

그 말이 고마와 허명금은 최홍기의 넓은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그들부부는 오직 그 한마음으로 수도의 거리를 달렸다. 사업소의 속보판에는 처녀총각시절처럼 언제나 그들의 이름이 나란히 오르군 하였다.

혁신자부부, 그 부름을 더없는 영예로, 보람으로 여기며 그들은 운행길을 줄기차게 이어나갔다.

한창 깨가 쏟아진다는 신혼생활기간에도 그들부부는 교대가 다른것으로 하여 떨어져있을 때가 많았고 단란한 가정적분위기에서 식사를 함께 해본적도 별로 없었다.

이것이 마음에 걸려 한번은 사업소의 일군들이 다른 차에서 같은 교대로 일하지 않겠는가 하는 의향을 내비치였을 때 최홍기는 이렇게 말하였다.

《제 한몸 편하자고 지금껏 정든 무궤도전차를 어떻게 떠날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운전을 해도 한무궤도전차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한가정의 행복보다 조국이 맡겨준 초소를 더 귀중히 여기는 그들이기에 참기 어려운 고통을 겪어야 하는 그런 순간에도 운행길을 멈추지 않았다.

일찌기 아버지를 잃은 허명금은 아들 현철이가 3살 잡히던 해에 어머니마저 잃게 되였다. 이로 하여 허명금의 어깨에 실린 짐은 갑절 커졌다. 딸과 사위를 도와 어린 손자를 돌보고 집안의 크고작은 일을 도맡아하던 어머니였던것이다.

며칠새 퍽 축간것만 같은 남편과 어린 자식, 썰렁하게 느껴지는 집안을 걱정스럽게 바라보며 온밤 뒤척이는 허명금에게 문득 산전산후휴가를 마치고 첫 출근을 하던 날이 돌이켜졌다.

그날따라 새벽교대여서 일찌기 집을 나서는데 태여난지 몇달밖에 안된 애어린 현철이의 울음소리가 발목을 붙잡았다. 어머니도 앓는 몸이다보니 허명금의 마음은 납덩이를 안은듯 무거웠다. 바질바질 속을 태우며 출입문손잡이를 잡았다 놓기를 그 몇번…

바로 이때 방문틈새로 어머니의 준절한 목소리가 울려나왔다.

《너투사들은 자식 귀한줄 몰라서 젖먹이를 떼놓고 빨찌산을 찾아갔다더냐.》

절세위인들의 뜻을 받들어 무궤도전차운전사가 된 딸과 사위를 더없는 자랑으로 여기던 어머니, 눈을 감는 마지막순간까지도 자기들을 운행길로 떠밀던 전쟁로병인 어머니가 가정일로 마음이 흔들린다는것을 알면 얼마나 서운해하랴 하는 생각에 허명금은 가슴이 저려났다.

이들부부는 다문 하루이틀이라도 쉬면서 마음을 진정하라는 사업소일군들의 권고도 마다하고 출근길에 올랐다. 그때부터 그들은 어린 자식을 엇바꾸어 돌보며 운행길을 이어갔다.

무궤도전차운전사들에게는 한해치고 휴식일이 별로 없다. 남들이

다 쉬는 명절날, 국가적인 기념일에도 이른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운행길을 달리는 인민의 참된 복무자들이 바로 려객운수부문의 운전사들이다.

집집의 창가마다에서 불빛이 하나둘 꺼지는 깊은 밤, 그무렵이 이들부부의 가정에 있어서는 저녁일과의 시작이면서 제일 드바쁜 시간이다. 그 시간에 그들은 하루운행과정에 있은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빨래와 부엌일을 하고 자식의 학습지도도 하였다.

그들부부에게는 세대주가 할 일, 안해가 해야 할 일이 따로 없었다.

안해가 빨래를 할 때면 세대주가 《종일 힘들었겠는데 함께 하기요.》 하면서 세면장에 들어서군 하였고 세대주가 집수리를 할 때면 안해가 《종이장도 맞들면 가볍다는데 같이하자요.》 하면서 팔소매를 걷어올리군 하였다.

가정이 화목해야 맡은 초소도 잘 지킬수 있고 한가정의 세대주이고 안해이기 전에 조국이 맡겨준 초소를 함께 지키는 전우라는것이 그들의 생각이였다.

밤깊도록 서로 도우며 집일을 할 때면 그들의 입에서는 무궤도전차를 정비하고 수리하면서 부르던 노래가 은은히 울려나오군 하였다.

…
아 정들었네 당신과 나는 혁신자
가슴엔 훈장 빛난다

최홍기, 허명금부부는 이 노래를 부르며 수십년세월 가정의 행복을 꽃피우고 초소도 지켜왔다.

그들의 이야기가 깊은 여운을 안겨주었다.

근로하는 인민을 이 세상 제일로 높이 내세워주는 고마운 사회주의조국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해갈 애국의 열의가 이들부부의 가슴속에 꽉 차있는것만 같았다.

절세위인의 그날의 당부를 심장에 새겨안고 그들은 오늘도 인민을

위한 운행길을 줄기차게 이어가고있다.

무궤도전차운전사부부!

이들처럼 자기 직업을 사랑하고 맡은 일을 책임적으로 잘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조국을 사랑하고 조국의 부강발전에 이바지하는 참된 애국자인것이다.

커다란 감동속에 우리의 취재는 계속되였다.

《주행길을 달리며 무슨 생각을 하군 합니까?》

《저희들이 달리는 주행길에는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이 정중히 모셔진 만수대언덕을 비롯하여 개선문, 창전거리, 평양대극장, 인민극장, 나라의 중요행사들이 진행되군 하는 **김일성**광장, 나라길시작점을 비롯하여 뜻깊은 곳들이 많습니다.

우리에게는 나라의 중심도로를 달린다는 남다른 긍지가 있습니다.

더우기 우리 전차를 타고 다니는 손님들가운데는 영웅도 있고 로력혁신자, 박사, 배우, 조국의 영예를 떨친 체육인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는 일이 왜 보람차지 않겠습니까.

사회주의강국건설에 우리도 한몫한다는 생각에 아무리 달려도 힘든줄 모르겠습니다.》

《40년세월 한 초소를 지켜온다는것이 말처럼 쉽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일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때는…》

《모든것이 부족하고 어려웠던 고난의 행군시기 여러가지 사정으로 전차가 제대로 뛰지 못해 손님들이 바쁜 출근시간에 걸어가는것을 볼 때가 제일 괴로웠습니다.

너무도 안타까와 전차운전을 그만둘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동요가 일 때마다 별로 한 일도 없는 우리 부부를 공로가 많은 운전사부부라고 내세워주고 보살펴준 어버이의 뜨거운 사랑과 나라의 믿음과 기대, 사업소종업원들을 생각했습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수도시민들을 위한 복무의 한길을 걸어가는 자기들에게 은정어린 감사를 보내주시고 일터와 멀리 떨어진 곳에서 다니는 이들부부의 수고를 헤아려 사업소와 가까운 곳에 새집을 마련해주도록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뜨거운 사랑과 배려, TV와 생활

용품들도 안겨주며 도와주는 사업소일군들의 기대에 보답하지 못한다면 무슨 피와 열을 가진 인간이랴 하는 생각으로 자신들을 채찍질해왔다는 이들부부였다.

하기에 그들은 이른새벽 남먼저 출근하여 차를 깨끗이 정비하고 손님들의 출근길을 보장하기 위해 남모르는 노력을 바쳐갔다. 저녁 교대시간이면 밤늦게 퇴근길에 오른 손님 한사람이라도 더 태워다주기 위해 자정이 넘도록 운전한적은 또 그 얼마였던가.

그들은 항상 예비부속품을 충분히 마련하여가지고 려객수송을 보장하였다. 하여 그들이 운전하는 무궤도전차는 사업소적으로 손꼽히는 모범무궤도전차로 되였던것이다.

우리의 취재는 그들이 일하는 련못무궤도전차사업소로 이어졌다.

차정비를 위해 예비부속품을 찾아가지고 또다시 일터로 향하는 그들과 함께 우리는 련못무궤도전차사업소로 갔던것이다.

그곳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로부터 이들부부가 자기 직업에 대한 애착이 얼마나 깊은가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의 취재는 계속되였다.

직업에 대한 애착은 구체적으로는 기대에 대한 사랑, 집단에 대한 사랑으로 표현된다고 말할수 있다.

최홍기, 허명금부부는 40년동안 무궤도전차운전사로 일하는 기간에 3대의 전차를 갈아탔다고 한다.

운전사로서 새차를 받았을 때의 기쁨은 큰것이지만 그들은 매번 이전에 몰던 무궤도전차를 내놓기 아쉬워하였다. 손때묻은 공구들과 예비부속품들도 신입운전사들에게 그대로 넘겨주며 마치 자식을 맡기듯 당부하군 하였다.

《차도 사람이나 같아요. 정성을 기울이는것만큼 힘을 쓰고 잘 달리거든요.》

사업소의 일군들과 무궤도전차운전사들은 그들부부의 공구함과 예비부속품함을 보고 늘 감탄을 금치 못해한다.

온 하루 운행길을 이어가고도 차정비를 말끔히 해놓고야 그들은 퇴근길에 오르군 하였다. 이런 노력이 있었기에 이들이 운전하는 무

궤도전차들은 언제 한번 수리중대의 신세를 져본적이 없다고 한다.

부속품들을 자체로 해결하기 위해 그들은 남모르는 고생도 많이 하였다.

때로는 부속품가공에 필요한 소재를 얻기 위해 파철무지를 헤치기도 하였고 때로는 부족되는 부속품들을 구하기 위해 가정에 저축하였던 자금을 선뜻 내놓기도 하였다.

언제인가 사업소의 한 젊은 운전사가 그렇게 하면 가정살림은 어떻게 유지하겠는가고 물었을 때 최홍기는 웃으며 대답하였다.

《운전사인 우리들에게야 무궤도전차가 무기나 같지 않소. 그리고 나라살림이자 제 살림이고 국가재산이자 우리 재산이지.》

무궤도전차를 자기의 살붙이로, 무기로 여기였기에 그들부부는 전차의 차체에 조금이라도 긁힌 자리가 생기면 밤을 새워서라도 도색감을 구해 깨끗이 칠하군 하였다.

그리하여 그들부부가 운전하는 무궤도전차는 겉과 안 그 어디를 보나 늘 새 전차처럼 윤기흐르고 정갈하였으며 수도려객운수국적으로 진행하는 애차판정에서 언제나 첫자리를 양보하지 않았다.

처녀총각시절에도 맡은 임무에 대한 책임성이 남달리 높았던 그들은 전차관리를 깐지게 하고 실동률을 높여 사업소적으로 제일먼저 5만㎞ 무사고주행을 표시하는 별을 새기게 되였다. 그날 차체에 새겨진 붉은 별을 쓰다듬고 또 쓰다듬는 허명금에게 최홍기는 말하였다.

《이 별은 무궤도전차운전사인 우리가 받은 첫 훈장과 같소.》

이들부부가 지난 기간 무궤도전차들에 새긴 5만㎞ 무사고주행의 붉은 별은 수십여개나 되며 그들이 달린 주행거리는 수백만㎞에 달한다.

흔히 운전사들의 위훈은 무사고와 주행거리로 평가된다고 한다.

무사고의 붉은 별은 셀수 있고 총 주행거리는 계산할수 있어도 그들이 무궤도전차의 정상운행을 위하여 기울인 노력과 바친 땀방울은 셀수도 계산할수도 없는것이다.

일요일, 명절날에도 즐겁게 휴식하는 사람들을 태우고 무궤도전차를 몰아가느라 그들부부는 언제 한번 단란한 가정적분위기에 젖어

볼새가 없었다고 한다.

한번은 이런 일도 있었다.

그날은 허명금의 남편 최홍기의 생일이였다.

저녁교대인 허명금은 낮교대에 나간 남편을 위해 성의껏 생일상을 차려놓았다. 그리고는 《현철이 아버지, 미안해요. 현철이와 함께 식사하세요.》라는 글을 남겨놓고 일터로 향했다.

그날 밤, 자정을 가까이하여 전차를 몰고 사업소구내에 들어서는데 뜻밖에도 남편과 아들이 맞아주었다. 그들의 손에 허명금이 남편을 위해 준비한 생일음식이 그대로 들려있었다.

(아직까지 식사를 하지 않고?!…)

《영문을 몰라하는 나에게 남편이 웃으며 <당신없이 우리끼리 어떻게 먹겠소. 자, 늦었지만 전차에서 모두 함께 식사하기요.>라고 할 때 눈물이 불쑥 솟구치더군요.》

전차안에 차린 생일상, 비록 소박하였지만 이들은 누구보다 행복했다.

진수성찬을 차린들 이보다 더 기쁘랴. 이런 멋은 인민을 위한 복무의 길에서 생의 희열을 찾는 사람들만이 맛볼수 있는 기쁨이고 보람인것이다.

몇해전 조국보위초소에 선 아들이 표창휴가를 왔을 때 허명금은 그를 운행중에 있는 무궤도전차로 불렀다. 그리고는 어릴 때처럼 가까이에 앉히고 끝없이 물었다.

《현철아, 아버지의 등에 업혀 정류소에서 집으로 오가던 일이 생각나니?》

《여기서 숙제공부를 하던 일도 잊지 않았겠지?》

《우리 소대 형님, 누나들이 조국보위초소로 떠나던 너를 바래주던 일은?》…

그러는 어머니를 바라보는 현철이의 눈가에 뜨거운것이 고여올랐다.

어머니가 왜 표창휴가를 온 자식을 굳이 무궤도전차로 불렀는지, 어째서 귀밑머리 희여진 오늘까지도 가정보다 사업소와 전차를 더 사

랑하며 운행길을 변함없이 이어가는지 그 진정을 비로소 깨닫는듯싶었다.

그날 어머니와 함께 운행길을 이어가는 아들의 가슴속에서는 부모들처럼 집단과 동지들을 위해 헌신해갈, 하여 조국과 인민이 기억하는 아름다운 삶을 이어갈 맹세가 더욱 굳어졌다.

그들부부가 속한 소대의 무궤도전차치고 그들의 손길이 닿지 않은 전차가 거의나 없다.

어찌 잊을수 있으랴.

온 나라를 돌보시는 그토록 바쁘신 속에서도 누가 보건말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려객봉사를 위해 바치는 운전사들의 수고도 몸소 헤아려주시며 빵과 콩물을 정상적으로 공급하도록 하시고 물고기와 식료품도 보내주시였으며 려객운수부문 운전사, 차장들의 봄, 여름, 겨울철옷도안들도 친히 보아주신 위대한 장군님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그 사랑을.

이런 고마운 품을 위해 무엇을 아끼고 무엇을 서슴으랴.

하늘과도 같고 바다와도 같은 그 사랑, 그 믿음에 려객봉사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나가는것으로 보답할 일념안고 이들부부는 맡은 일에 그토록 뜨거운 진정을 바쳤던것이다.

언제인가 허명금이 급병으로 병원에 실려간적이 있었다. 그날 뒤늦게 병원으로 달려온 남편이 운행중이여서 련락을 받고서도 인차 오지 못했다고 미안한 심정을 감추지 못하였을 때 허명금은 땀흐르는 그의 얼굴을 정겹게 바라보며 이렇게 말하였다.

《여보, 난 운행길을 달릴 때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우리 무궤도전차를 바라보시는것만 같아 가슴이 설레이군 해요. 그런 초소를 당신까지 비워서야 안되지요. 내 몫까지 합쳐 수도시민들의 출퇴근을 보장했다니 난 기뻐요.》

들어도 들어도 끝이 없을상싶은 티없이 깨끗한 량심과 헌신에 대한 이야기들이였다.

조국은 이런 애국자부부를 온 세상이 부럽도록 영광의 단상에 내세워주었다.

2019년에 그들부부는 한날한시에 공훈자동차운전사칭호를 수여받았고 허명금은 조선로동당창건 70돐 경축행사와 조선로동당 제7차 대회에 참가하여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기념사진을 찍는 영광을 지니였으며 오늘은 이렇게 누구나 부러워하는 경루동의 희한한 멋쟁이살림집의 주인이 되였다.

조국이 무궤도전차운전사부부의 삶을 그토록 값높이 내세워주는것은 인민의 봉사자로서, 공민으로서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모든것을 깡그리 바치려는 그 정신세계가 아름답기때문이 아니랴.

축복받은 최홍기, 허명금부부의 삶은 말해주고있다.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 자기 일터, 자기 초소에 청춘도 사랑도 다 바쳐나갈 때 인생의 값높은 영광을 받아안을수 있다는것을.

우리 시대의 참된 의료일군

(사회주의애국공로자, 2.16과학기술상수상자, 공훈의사,
박사, 부교수인 조선적십자종합병원 과장 림현단)

의술은 인술이라는 말이 있다.

이것은 높은 의술과 지극한 정성을 겸비할 때만이 환자치료에서 성과를 거둘수 있다는 말일것이다.

지금으로부터 거의 10년전인 2014년 12월 22일부 《로동신문》에는 《이런 아름다운 제도에서 우리가 산다》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

뜻밖의 사고로 화상을 당하고 보기에도 끔찍하게 변해버린 자기의 얼굴을 두고 괴로와하던 대관군의 평범한 로동자처녀의 본래의 모습을 찾아주기 위해 8년세월 사랑과 정성을 쏟아부은 림현단 조선적십자종합병원 미용외과 과장을 소개한 기사였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의 소행을 두고 탄복하였으며 아름다움을 찾아준 그의 손을 두고 보배손이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근 40년세월 미용외과의사로 성실하게 환자치료에 전심전력을 하고있는 림현단과장.

그 보배손에서 2만 6천여명에 달하는 환자들이 각이한 요인으로 외형상 사람들앞에 떳떳이 나설수 없었던 고민을 깨끗이 털어버리고 본래의 모습과 더없이 밝은 웃음을 되찾았다.

인간사랑의 정성을 뜨겁게 쏟아부어준 림현단의 그 보배손에 의해 대관군처녀가 밝은 웃음을 되찾을수 있었던 사연많은 이야기들은 오늘도 사람들의 가슴을 뜨겁게 해주고있다.

2006년 12월 뜻밖의 사고로 얼굴에 심한 화상을 당하여 의식을 잃었던 림송미는 정신을 차린 다음 형체도 없이 심하게 이지러진 자기의 얼굴모습을 보고는 너무도 끔찍하여 거울을 깨버렸다. 그리고

자기의 사진을 모조리 찢어버렸다.

이제는 없었던것이다. 사진속의 모습이…

산골군의 대관땅에서 사는 평범한 가정의 로동자처녀 림송미가 19살꽃나이에 자기 얼굴을 형체도 없이 잃은것이야말로 불행중의 불행이 아닐수 없었다.

2007년 1월 공장일군이 림송미와 함께 한가닥의 희망을 안고 중앙병원의 림현단선생을 찾아왔다.

당시 스무해나마 미용수술을 해오며 별의별 환자들을 다 대상해 본 림현단선생도 그를 보는 순간 자기가 알고있는 이 분야의 현재의 술로써는 도무지 그의 본래 모습을 찾아주기가 힘들고 치료하는것도 매우 어려울것같았다.

코구멍이 거의나 막혀버려 숨도 제대로 못쉬고 국수 한오리나 들어갈수 있는 입으로 마음대로 먹을수도 없으며 말도 할수 없는데다가 눈도 감을수 없는 환자에게 치료불가능, 원상회복불가능이라는 진단을 내리지 않으면 안되는 림현단선생의 마음은 무거웠다.

중앙병원의 유능한 의사선생님이라고 믿고 찾아온 처녀의 눈빛이 눈앞에 밟혀오고 지나가는 처녀들의 밝은 얼굴이 대관처녀와 엇갈려 떠올랐던것이다. 의사의 량심은 한 불행한 처녀의 삶을 구원 못한 책임을 일생토록 따져물을것만 같았고 설사 치료를 시작한다고 해도 한생을 바쳐야 할수도 있기때문이였다.

그러나 전쟁시기 간호원이였으며 영예군인인 어머니가 딸의 맥풀린 모습을 보고 전쟁때 화선군의들은 다 죽은 사람도 살려냈다고, 너야 의사가 아니냐며 책망할 때 정신이 번쩍 들었다. 간호원출신로병의 엄숙한 목소리가 그의 심장을 무겁게 파고들었던것이다.

(어머니세대가 자기 생명까지 바쳐가며 전우들을 살려냈다면 나는 일생을 바쳐서라도 림송미의 얼굴을 되찾아주어야 한다.)

이런 결심을 안고 림현단선생은 스스로 림송미의 운명을 책임졌다.

2007년 1월 20일 첫 수술을 시작한 때로부터 치료기일을 앞당길 수 있는 수술방법과 약물을 개발하였으며 수술방법을 프로그람화하여 치료사업을 진행하였다. 치료가 본격화되자 그는 림송미를 고향으

로 보내지 않고 입원기간이 끝나면 자기 집에 데려가 함께 살면서 수술경과도 지켜보고 보양도 해주었다.

한해 또 한해, 시간을 다투는 긴장한 치료일정이 흘러 드디여 미용외과학의 첨단의 령역을 돌파해야 할 시각이 왔다.

림송미와 같이 코와 웃입술을 비롯한 얼굴의 많은 부위가 손상된 경우 조직확장술에 의한 수술방법으로 손상된 부위를 복구할수 있겠는가 하는것은 아직까지 이 분야에서 미해결문제로 남아있었다.

전문연구사들도 해내지 못한 일을 내가 꽤 할수 있을가 하는 우려와 동요와의 싸움에서 자신을 이겨내기 위한 고심 또한 컸다.

바로 그러한 때 조선적십자종합병원에서는 림현단과장을 미용외과기술이 발전한 나라들과의 의학교류사업에 망라시켜 그가 폭넓은 시야를 가지고 연구사업을 계속할수 있도록 떠밀어주었다.

힘들어 지칠세라, 주저앉을세라 언제나 걸음걸음 비쳐드는 집단의 사랑은 그대로 그를 성공에로 떠밀어주는 자애깊은 손길이였다.

그 손길에 이끌려 림현단과장은 마침내 림송미의 이마에 조금 남아있는 피부를 리용하여 코와 웃입술을 동시에 만들어주는 대수술을 8시간동안 진행하여 끝내 성공의 빛을 보게 되였다.

코와 웃입술의 피부조직이 되살아나고있었던것이다.

림송미는 8년이라는 오랜 세월 이처럼 한차례, 한차례의 간고한 수술과정을 거쳐 본래보다 더 아름다운 자기의 얼굴을 되찾았다.

그는 8년만에 사진을 다시 찍었다. 티없이 밝은 웃음을 짓고…

그가 8년간 무상으로 받은 의료상혜택을 돈으로 계산하면 천문학적수자에 달하지만 림송미는 그에 대해 알지도 못한다.

첨단과학의 봉우리를 점령하면서 새로운 방법을 창안도입하는 170여차의 크고작은 수술과 거기에 바쳐진 림현단과장의 뜨거운 정성, 그것을 어찌 자기 의무를 다하기 위한 한 인간의 성실성이였다고만 말할수 있으랴.

그것은 사랑이였다. 정이였다. 아름다움의 극치였다.

하기에 그는 어쩌면 한생을 깡그리 바칠수도 있는 그 어려운 치료에 용약 뛰여들수 있었으며 끝끝내 림송미의 얼굴에 밝은 미소를

되찾아줄수 있었던것이다.

자기의 모든것을 바쳐 환자의 생명을 구해낸다면 그것을 더없는 영예로, 신성한 의무로 여기는 티없이 맑고 깨끗한 인간의 진정, 인간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이런 기적을 낳았던것이다.

그가 누구이든 아픔을 호소하는 사람들을 환자로서만이 아니라 피와 살을 나눈 친혈육으로 생각한다면 불가능이란 있을수 없고 그 어떤 기적도 창조할수 있다.

그때의 신문기사내용을 다시금 더듬어보며 우리는 다시 찾은 얼굴에 밝은 미소를 지은 처녀, 다시 사진을 찍게 된 림송미에 대하여 생각하였다.

미용수술이 제일 값비싼 수술의 하나로 되여있는 자본주의사회라면 수백만금을 들여 아름다운 얼굴을 만들어낼수 있을지언정 인간의 심장속에서 우러나오는 그렇듯 티없이 맑고 밝은 미소를 살수 있을것인가.

처녀의 얼굴에 비낀 구김살없는 미소.

그가 흘리는 고마움의 눈물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진면모를 들여다볼수 있는 거울이 아니랴.

그때로부터 거의 10년세월이 흘렀다.

오늘날에 와서 우리가 림현단과장선생에 대한 이야기를 되새겨보는것은 그가 바로 얼마전에 희한하게 일떠선 경루동 호화주택의 주인공이 되였기때문이다.

그를 한시바삐 만나보고싶은 생각에 우리의 마음도 흥그러워졌다.

그동안 그가 사업에서 어떤 성과를 거두게 되였는지, 그후 자기의 모습을 되찾은 림송미는 지금 무엇을 하고있는지 등 알고싶은것이 많아 조선적십자종합병원부터 찾았다.

미용외과병동에서 우리는 마침 수술을 끝내고 사무실에 들어서는 림현단과장선생을 만날수 있었다.

TV와 신문을 통하여 낯을 익혔던 림현단과장선생을 만나고보니 온 나라에 소문이 난 성형외과부문의 권위자라는 엄엄한 자태보다도 너무도 평범하고 소박한, 그러면서도 강의한 의지가 엿보이는 인정깊

은 녀인의 모습이였다.

60을 넘겼다고는 하나 젊었을적의 아름다운 흔적이 력력해서인지, 미용외과학을 전문으로 해서인지 퍼그나 젊어보였다.

《이렇게 만나게 되여 정말 반갑습니다. 요새도 몹시 바쁘시겠지요?

과장선생님도 애국자동네인 경루동살림집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선생을 꼭 만나고싶었습니다.

림송미의 얼굴을 되찾아준지도 이젠 거의 10년이 되지 않았습니까.

송미의 그후 생활에 대해서도 알고싶고 선생님이 어떤 환자들을 치료하고있는지도 알고싶었습니다.》

《별로 한 일도 없는 제가 경애하는 원수님의 배려로 누구나 부러워하는 호화주택의 주인이 되였습니다. 너무도 꿈만 같아서 어떻게 그 크나큰 사랑과 배려에 보답해야겠는가 하는 생각뿐입니다.

제가 우리 원수님의 은덕에 보답하는 길이 더 많은 환자들을 치료하여 사회에 떳떳하게 내세우는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치료사업에 혼신을 다 바치느라고 하지만 생각뿐이지 이제는 몸이 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며 림현단과장은 림송미의 그후 생활에 대해서 알고싶어하는 우리의 궁금증을 풀어주었다.

대관땅의 로동자처녀 림송미, 한창 피여나는 꽃송이와도 같은 19살의 애어린 처녀였던 그가 만약 사람의 생명과 건강이 모두 돈에 의해 롱락되는 사람 못살 자본주의땅에서 태여났더라면 어떻게 되였겠는가.

그것은 명백하다.

사회의 약자, 무권리한 로동자인탓에 속절없이 시들어야 할 자기의 청춘을 한탄하며, 불행한 자기 운명과 약육강식, 황금만능의 자본주의제도를 끝없이 저주하며 아마도 생을 포기했을것이다.

인간사랑, 인간존중의 아름다운 화원인 사회주의 우리 제도가 아니라면 돈 한푼 들이지 않고 잃었던 얼굴을 다시 찾은 평범한 로동

자처녀의 오늘을 어찌 상상이나 할수 있겠는가.

림송미에게는 수첩이 하나 있다.

이름과 사는 곳, 전화번호들로 빼곡한 수첩이다. 같이 입원생활을 한 동갑또래 처녀로부터 당중앙위원회 일군에 이르기까지 나이도 직업도 다른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과 주소가 가득히 적힌 그 수첩을 펼쳐보느라면 산골군의 한 공장의 화상환자처녀가 자못 유명한 인물이라는 생각이 든다.

공화국의 수많은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지닌 참된 인간사랑과 헌신의 륜리가 이 나라에 공기처럼, 강물처럼 넘쳐흐르고있는것이다.

작은 가슴에 고마운 사람들의 이름과 주소가 가득 적힌 수첩을 품고 아름다운 새삶의 길에 씩씩하게 들어선 림송미.

남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여기는 사회, 한사람의 아픔이 전체 인민의 관심사로 되는 나라, 누구든지 불행에 처하면 천만의 사람들이 그의 어머니가 되고 아버지가 되고 친형제가 되는 훌륭한 사회주의제도를 마련하고 빛내여주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 만세, 이런 인간사랑의 대화원을 더욱 아름답게 가꿔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만세의 웨침이 산골막바지의 대관땅에서도 하늘땅을 울리였다.

대관처녀의 얼굴에 핀 밝은 웃음이야말로 사회주의가 피워올린 꽃이였다.

(고마운 조국을 위해 아직은 바친것이 없는 내가 아닌가. 한생을 바쳐서라도 그 은혜에 꼭 보답해야 한다.)

그의 가슴속에는 힘이 진할 때까지 뛰고 또 뛰여 새삶의 희망을 안겨준 고마운 제도를 위해 보답의 길을 걸을 결심이 차넘쳤다.

공장에서 일 잘하는 혁신자로 된 그는 공장의 합숙생들을 친누이의 심정으로 돌보아주는 인정많고 마음씨고운 처녀로 공장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다.

림현단과장은 본래의 얼굴모습을 되찾고 나날이 성장해가는 림송미를 더 아름답게 내세우고싶어 처녀의 아름다움을 심어주기 위한 치료계획을 다시 세우고 한해에 두번씩 평양에 올라와 수술을 받도

록 하였다.

3년만에 몰라보게 달라져 고와진 그는 대학을 졸업한 의젓하게 잘 생긴 군관총각을 만나 결혼식을 하게 되였다.

리충렬은 우리 사회주의제도의 혜택속에 두번다시 태여난 림송미의 행복을 총잡은 군인의 심장으로 끝까지 지켜갈 맹세 안고 그와 일생을 약속했던것이다. 우리 시대 청춘들의 고상한 정신세계가 엿보이는 사랑의 약속이였다.

사람들앞에 림송미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신부가 되여 나섰다.

지금은 귀여운 두 아이의 엄마가 되여 날마다 행복의 웃음꽃을 피워올린다.

그 무엇이 불행을 당한 그의 운명을 행복의 단상에로 떠밀어올렸는가.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그의 얼굴을 되찾아주었을뿐 아니라 절망속에 빠진 그에게 희망찬 삶도 되찾아주었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인간을 하늘처럼 여기고 인간의 운명을 첫자리에 놓는 사회주의제도가 아니였다면 림송미의 오늘에 대해서 생각할수 없을것입니다.》

그가 우리와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에도 전화가 끊길새없이 울리고 환자들과 의사들이 계속 찾아들어왔다.

과장선생이 사업을 보는 동안 우리는 책상우에 수북이 쌓였던 편지들을 보기 시작하였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돌아간 환자들이 보내온 편지들이였다.

그 편지들을 보면서 우리는 많은 내용들을 새롭게 알게 되였다.

림현단과장이 치료해준 환자들가운데는 남포시 천리마구역 문천동 74인민반에 사는 김송란이라는 어린이도 있었다. 태여난지 여덟달가량 되였을 때 뜻밖의 일로 그애는 오른쪽볼부위를 심하게 데여 눈귀는 내려오고 입귀는 올라간채로 10여년을 살아왔다고 한다. 림현단과장선생을 만나 7년세월 한해에 한번씩 입원치료를 받아서야 번들번들하고 꽛꽛하게 우그러들었던 볼이 원상대로 회복되였으며 눈귀와 입귀도 제자리로 돌아갔다고 한다.

하기에 김송란의 아버지는 《림송미의 이야기이자 내 딸 송란이의 이야기이고 림현단과장선생이 송미에게 쏟아부은 정성이자 우리 송란이에게 바친 정성입니다.》라고 편지에 썼다.

자강도의 한 녀성은 림현단과장에게 보낸 편지에 이렇게 썼다.

《선생님에게서 치료받은것을 자랑으로 여깁니다.

나는 정말 고와졌습니다. 고운 얼굴을 준 선생님을 잊지 않고 한없이 고마운 우리 제도를 위해 참되게 살겠습니다.》

평양의학대학의 한 학생은 축하장에 이런 글을 써보내왔다.

《…선생님과 같은 훌륭한 시대의 전형이 앞으로 제가 일하게 될 보건부문에서 나온것이 정말 기쁘고 자랑스럽습니다.

지식인으로서의 선생님의 고결한 량심, 무한한 헌신성과 희생성, 높은 책임감과 불같은 열정이 지극한 정성을 낳고 첨단돌파의 기적을 일으켰다는것을 언제나 명심하겠습니다. 앞으로 선생님처럼 조국과 인민에게 꼭 필요한 보건부문의 인재로 자신을 준비하겠다는것을 굳게 결의다집니다.》

편지에 적혀진 하많은 사연들은 정말 격정없이는 들을수 없는 이야기들이였다.

이 편지들을 하나하나 읽어보느라니 눈앞에 보이는것만 같았다.

이 땅의 한 보건일군이 가꾸어준 고운 모습을 매일같이 거울에 비춰보며 그와 같은 참된 마음, 바른 삶을 아름답게 꽃피워가는 숱한 사람들의 모습이.

그들모두는 자기들을 위해 높은 의술과 뜨거운 정성을 다 바친 이 땅의 보건일군과 그런 훌륭한 인간을 키워낸 위대한 당과 조국을 한생토록 잊지 않을것이며 한없이 고마운 사회주의제도를 위하여 필요하다면 목숨까지도 서슴없이 바칠것이다.

문득 전화를 받던 림현단선생이 자기가 치료해준 환자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취재중이여서 후에 전화하자고 하자 다짜고짜로 우리에게 전화를 바꿔달라고 한다는것이다.

흥남비료공장 부흥원에서 리발사로 일하고있는 리금순이라는 처녀인데 자기에게서 치료를 받고 퇴원한지도 여러해가 잘된다는것, 퇴원

후의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자주 전화련계를 하군 하는데 오늘 기자선생님들이 왔다는것을 알고는 꼭 하고싶은 이야기가 있다는것이다.

우리는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하였다.

《기자선생님, 초면에 무례하게 굴어서 정말 안됐습니다.

전 16살때 왼쪽볼이 시퍼렇게 얼룩이 져 천성적흡반이라는 진단을 받고 7년동안을 눈물속에 살다가 림현단과장선생님에게서 치료를 받고 아름다운 얼굴뿐 아니라 웃음까지 되찾은 처녀입니다.》라고 하며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는것이였다.

그는 한창 웃음이 넘쳐야 할 중학교졸업무렵의 애어린 처녀시절에 점점 더 심해지는 흠집때문에 그토록 가고싶었던 대학에도 못가고 밖에 나다닐수도 없게 되여 매일매일을 눈물속에 살면서 너무도 안타까와 몸부림쳤었다.

이러한 때 림송미라는 처녀에게 본래의 얼굴모습을 되찾아준 림현단선생에 대하여 알게 되였다.

림송미를 소개한 신문 한장을 달랑 들고 2015년 3월 평양에 올라온 그의 상태를 세밀히 관찰한 림현단선생은 그에게 맞는 치료대책을 세우기 위한 고심어린 연구끝에 여러해동안 11번의 수술을 진행하여 얼굴의 흠집을 말끔히 없애주었다.

림현단선생을 비롯한 병원의 의사선생님들은 그가 치료를 받는 전기간 새살이 빨리 돋아야 한다며 찰떡과 토끼곰, 닭곰을 비롯한 영양식품들을 안겨주며 정성을 기울였고 치료를 다 받고 퇴원하게 되였을 때에는 봄철옷차림으로 신문 한장 달랑 들고왔던 그에게 내의와 솜옷을 비롯한 겨울옷가지들까지 일식으로 마련해주었다.

그는 새옷을 입은 모습이 정말 곱다고 제일처럼 기뻐해주던 과장선생을 비롯한 선생님들의 후더운 마음씨가 눈물겹도록 고마왔다.

그가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을 당시인 2015년 6월경에 병원을 돌아보던 싱가포르기자가 그를 취재한적이 있었다.

금방 수술을 받고 호실에 들어오니 옆의 환자들과 의사선생님들, 면회를 왔던 사람들은 애어린 처녀가 퉁퉁 부은 얼굴을 붕대로 감싸고있는 모습이 너무도 가슴아파 그를 위해주느라고 왼심을 썼다.

그때 싱가포르기자가 취재를 한다면서 들어와 리금순에게 당신은 수술을 받는데 얼마만한 돈을 썼는가, 수술비를 누가 담당하는가, 아버지는 무슨 일을 하는가, 어떻게 되여 유능한 의사에게 치료를 받게 되였는가 등을 물어보았다.

너무도 뜻밖의 물음에 얼떠름해있는 그를 보고 싱가포르기자를 안내하던 의사선생이 《저애는 당신의 물음을 리해하지 못하였다. 우리 나라는 무상치료제이다나니 환자들이 치료비라는 말을 잘 모른다. 나도 무료로 대학까지 나왔고 무상으로 환자들을 치료하다나니 그 말의 의미를 잘 리해할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 말을 듣고서야 싱가포르기자가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는가를 알게 된 리금순이 자기는 치료를 받는데 얼마만한 돈이 들어갔는지도 모르며 아버지는 흥남비료공장에서 로동자로 일하고있다는것 등을 이야기해주자 그 기자는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다고 하면서 머리를 기웃거리더라는것이다.

리금순은 자기가 얼마나 위대한 품속에서 살고있는지, 얼마나 고마운 사람들이 제곁에 있는지, 우리 제도가 얼마나 좋은지를 실감하며 그 자리에서 엉엉 소리내여 울기 시작했다.

원래 수술한 다음 울면 수술자리가 오염된다는것을 모르지 않았지만 울지 않을수 없었다.

그날 싱가포르기자는 평범한 가정출신의 처녀가 최신의료설비를 갖춘 곳에서 돈 한푼 내지 않고 유능한 의사선생의 수술을 받았다는것은 다른 나라 같으면 상상조차 할수 없는 일이라고 하면서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다고 한다.

금순이는 싱가포르기자를 만나보고서야 비로소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와의 차이가 바로 이런것이였구나 하는것을 뼈저리게 절감하였다.

우리 사람들은 자기를 보면 처녀가 수술을 받으려니 얼마나 힘들겠는가, 얼마나 아프겠는가 하며 걱정하고 위해주느라고 하는데 자본주의나라 기자는 첫마디가 돈소리였으니 왜 그렇지 않겠는가.

고마운 사회주의제도의 혜택속에 치료를 성과적으로 마친 금순이는 거울로 자기의 아름다워진 모습을 보고는 눈물만 서렸던 얼굴에

웃음꽃을 활짝 피워올렸다.

자기의 아름다움을 되찾아주어 정말 고맙다고 인사를 하며 그는 생기에 넘쳐 얼굴에 웃음을 함뿍 담고 끝없이 조잘거렸다.

그러는 리금순을 바라보던 림현단과장은 《난 처음에 네가 벙어리인줄 알았어. 그런데 이제 보니 우리 금순이가 꿈도 많고 이야기도 정말 잘하는구나.》 하더라는것이다.

어제날 눈물속에 몸부림치던 처녀가 얼굴의 흠집을 말끔히 없애고 미인이 되여 고마운 제도를 위해 청춘의 힘과 열정을 다 바쳐갈 일념 안고 흥남비료공장에서 일하면서 노상 얼굴에 웃음꽃을 피우는, 웃음이 끊길줄 모르는 웃음많은 처녀로, 혁신자로 공장에 소문났다.

그는 자기의 동생이 누나의 고운 얼굴을 되찾아준 고마운 조국을 총대로 보위할 결의 안고 조국보위초소에 섰는데 군대에 나간지 3년만에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기념촬영을 하는 영광을 지니였다고 눈물에 젖은 목소리로 이야기하는것이다.

그러면서 정말이지 날마다 기쁜 일, 좋은 일만 생겨나니 웃음이 끊길래야 끊길수가 없다며 우리 제도의 고마움을 뼈저리게 절감하게 해준 훌륭한 보건일군들을 널리 소개해달라는것이였다. …

리금순의 전화까지 받고보니 환자를 치료하는데만 그치지 않고 그들과 자주 련계를 가지며 사회생활을 옳바르게 해나가도록 이끌어주는 그의 모습에 감동을 금할수가 없었다.

《환자들을 치료해주어 본래의 모습을 찾아주고 그들이 퇴원한 다음에도 계속 돌봐주고있다는데 정말 헐치 않은 일이라고 봅니다.》

《림송미의 행복한 삶, 그것은 저의 축복받은 삶이기도 합니다.

보건일군으로서, 이 나라의 공민으로서 응당 해야 할 일을 한 저에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존함을 모신 사랑의 금반지를 표창으로 안겨주시였으며 온 나라가 따라배우도록 시대의 전형으로, 사회주의애국공로자로 높이 내세워주시였습니다.

정녕 사랑으로 품어안아주고 믿음으로 이끌어주는 자애로운 어버이의 손길에 떠받들려 제가 이렇게 값높은 삶을 지니게 되였습니다.

사회주의애국공로자!

그 부름은 자기 초소에서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해 누가 보건말건, 알아주건말건 한생을 묵묵히 바쳐가는 사람들에게 안겨지는 고귀한 부름입니다. 다른 사람의 걱정과 아픔을 자기의 걱정과 아픔으로 간주하며 그것을 가셔주기 위해 모든것을 바치는 고결한 품성을 지닌 사람들에게 안겨지는 고귀한 부름입니다.

이 부름앞에 충실하기 위해 분발했을뿐입니다.

자기보다 먼저 남을 생각하고 그들을 위한 헌신에서 삶의 보람과 영예를 찾는 사회주의애국공로자들의 이런 고결한 사상정신적풍모를 갖추기 위해 노력했을뿐입니다.

제가 치료한 환자들을 모두 혈육으로 생각하고 그들이 퇴원한 다음에도 직장에서 일은 제대로 하고있는지, 생활에서 애로되는것은 없는지, 가정은 이루었는지 하는것을 자주 알아보고 도와줄수 있는껏 도와주고싶었습니다.

그들이 병원에 입원해있는 기간 자기들이 받아안은 사랑이 얼마나 큰것인가를 잘 알고 그 사랑에 보답의 마음을 따라세우도록 하는것이 바로 제가 해야 할 일이며 이렇게 하는것만이 고마운 우리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온 세상에 시위하는것이라고 생각했기때문입니다.

저의 이 생각을 온 집안이 지지해주고 도와주었습니다.

만수대창작사 공예사인 남편은 저의 치료연구사업의 가장 열성적인 지지자이고 방조자이며 또한 평가자이기도 합니다.

제가 의사생활을 시작할 때에도, 힘들고 지쳐 쓰러질 때에도 저의 가슴속에 고동친것은 전화의 나날 화선군의들과 간호원들은 자기의 피와 살을 바쳐 죽어가던 환자들도 끝내 살려내군 하였다는 어머니의 이야기였습니다.

집안사람들의 뜨거운 마음까지 합쳐 의사로서의 본분을 다하기 위해 노력했을뿐이건만 조국에서는 저를 2.16과학기술상수상자로, 박사, 부교수로, 공훈의사로, 성형외과학의 권위자로 내세워주었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영광의 자리에 남먼저 내세워주었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2012년 4월에는 어버이수령님 탄생 100돐 경축행사 대표로, 2013년 11월에는 전국과학자기술자대회 대표로, 2015년 10월에는 조선로동당창건 70돐 경축행사 대표로, 2017년 12월에는 조선로동당 제5차 세포위원장대회 대표로 저를 불러주시여 사랑의 기념사진도 찍어주시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세상 제일 훌륭하고 멋있는, 누구나 부러워하는 호화주택의 주인으로 되게 하여주시였습니다.

영예군인의 딸이고 평범한 의사에 불과한 제가 은혜로운 조국의 품속에서 위대한 어버이의 손길아래 이렇듯 값높은 행복의 최절정에 올라섰습니다.》

우리는 취재장소를 그의 집으로 옮기기로 하고 그와 함께 경루동 집으로 향했다.

경사면에 나있는 걸음길을 따라 올라서자마자 보이는 다락식주택의 첫번째 호동에 있는 그의 집에 들어서니 전쟁로병이며 영예군인인 림현단선생의 어머니 김명시로인과 남편이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었다.

이제는 90살이 되여온다는 김명시로인은 아직도 얼마나 정정한지 몰랐다.

김명시로인은 평범한 영예군인의 딸이 이런 희한한 집에서 살게 된것이 꿈만 같다고 하면서 자기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늙은이라고 이야기하는것이였다.

자기에게는 아들과 딸이 있는데 두 자식이 다 박사이고 온 나라에 소문이 난 경루동살림집과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들에서 살고있다고, 자기는 여러 차례에 걸쳐 로병대회에 참가하여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배려를 받아안았다는것이다.

이웃들도 림현단선생의 온 가족이 조국을 위한 애국의 길에서 삶을 빛내이는 모습이 TV에 나온다며 몹시 부러워한다고 한다.

그러고보니 온 집안식구들이 다 경애하는 원수님 제일 가까이에 서있는 정말로 부러운 가정이였다.

우리는 그의 집에서 림현단선생이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여러 차례에 걸쳐 찍은 기념사진들과 그가 받아안은 명예칭호와 상장들, 환자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을 한장한장 보며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었다.

취재를 마치고 림현단선생의 집을 나서는 우리의 생각은 깊어졌다.

어느 사회에나 선망과 동경의 대상으로 되는 사람들이 있고 누구나 본따고싶은 인생도 있기마련이다.

하지만 사회제도에 따라서 그 기준과 특징은 서로 다르다.

황금만능의 자본주의사회에서는 거액의 재부를 한손에 거머쥔 재벌들이 뭇사람의 시선을 받는다. 남이야 어떻게 되든말든 자기 하나만의 리익을 절대시하는 인생관을 추구하며 그 길에서 《성공》한 사람이 사회의 선망의 대상이 된다.

하다면 공화국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온 나라 인민의 지지와 선망의 대상으로 되는가. 어떤 삶이 가장 참되고 가치있는것으로 찬양받는가.

공화국의 사회주의제도에서는 돈과 재부가 아니라 인간을 가장 귀중히 여기고 그를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는 사람을 제일 값높이 보며 자기 하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살며 일하는 인간의 삶이 가장 참되고 옳바르며 가치있는것으로 평가된다.

림현단선생의 삶이 그것을 증명해주고있음을 우리는 심장으로 절감하였다.

지금 온 나라에 타번지고있는 정성운동의 불길을 보아도 그것을 잘 알수 있다.

주체112(2023)년 5월 31일부 《로동신문》에는 《우리 시대의 참된 보건전사》라는 기사가 실려 사람들을 격동시켰다.

39년간 수많은 환자들에게 자기의 피와 살을 아낌없이 바쳤으며 새세대 간호원들을 훌륭히 키워내면서 사회와 집단, 나라를 위한 애국적소행을 무수히 발휘한 은천군병원 산부인과 간호장 안경실의 삶이 사람들에게 안겨주는 충격과 여운은 대단히 컸다.

고마운 조국에서는 그를 정성운동의 전형으로 내세워주었다.

환자들에 대한 정성을 뼈속까지 체질화한 의료일군, 자기 몸에 먼저 주사를 놓아보라, 자기 몸으로 아픔을 느껴보아야 정성도 실력도 높아진다고 늘 외우군 했다는 안경실. 우리 인민들 한사람한사람을 자신의 피와 살점처럼 여기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심장에 새기고 살며 일해온 그였다.

은혜로운 조국의 품에 운명을 맡기고 생의 순간순간, 자욱자욱을 조국의 부강번영에 이바지할 일념으로 불타는 이런 보건전사들이 있어 정성운동의 불길이 더욱 세차게 타번질것이며 그속에서 제2, 3의 림현단, 안경실들이 계속 태여날것이다.

인민의 사랑을 받는 만담명수

(중앙예술경제선전대 공훈배우 리순홍)

웃음이 없는 생활에 대해 생각할수 있을가.

누구나 자기의 생활에 기쁨과 즐거움만이 있기를 바랄것이다.

오늘날 우리 인민에게 언제나 즐거운 웃음만이 차넘치게 하시려 마음쓰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뜨거운 사랑속에 공화국의 곳곳마다에는 현대적이며 아름다운 문화정서생활기지들이 훌륭히 일떠서고있다.

문수물놀이장, 마식령스키장, 릉라인민유원지, 양덕온천문화휴양지, 미림승마구락부…

문화정서생활기지들만이 아니라 행복의 보금자리들이 온 나라의 방방곡곡에 나날이 늘어나 행복의 바다, 웃음의 바다가 펼쳐진다.

그곳에서 행복에 겨워 웃고 떠드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상쾌해지고 활력이 넘쳐나군 한다.

나날이 늘어나는 행복한 생활속에는 기쁨과 랑만, 해학적인 생활세부들 또한 다종다양하다.

기쁨과 즐거움의 표현인 웃음은 건강과 장수의 명약으로, 의학자들이 권고하는 만능처방중의 하나로도 되고있다.

《한번 크게 웃으면 5분동안 뜀줄운동을 한것과 같으며 10초동안 소리내여 웃으면 3분간 노젓기한 운동량과 같다.》, 《허리가 끊어질 정도로 웃으면 650개의 근육들가운데서 231개의 근육이 움직이는것과 같다.》 등 웃음과 관련한 연구자료들도 많다.

그래서인지 익살과 기지, 해학으로 생활에 웃음을 더해주는 희극작품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당긴다.

희극배우들을 보기만 해도 웃음이 절로 나고 그들의 공연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랑만, 희열을 안겨주어 누구나 그들을 사랑하며 존

경하는것이다.

경루동취재길에 올라 경루동사무소옆을 지나던 우리의 귀전에 떠들썩한 웃음소리가 들려온다.

바로 옆에 3층짜리 아담한 봉사건물로 특색있게 일떠선 경루종합편의에서 흘러나오는 웃음소리였다. 무슨 일인가 하여 그곳에 들어서니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서 연방 폭소를 터뜨리고있었다.

유명한 만담배우인 리순홍의 《공연》이 진행되고있었던것이다.

어느 누구라 할것없이 만담이라고 하면 리순홍을 떠올리고 리순홍하면 웃음이 절로 나올 정도로 그는 인민들의 사랑을 받는 유명한 만담배우이다.

그리 크지 않은 키에 안경너머로 보이는 익살기 넘친 눈빛, 얘기할 때마다 다양하게 변하는 표정이며 손짓, 몸짓…

중앙예술경제선전대가 경루종합편의에 공연을 나왔는가 했는데 사람들의 말이 이곳에서는 자주 이런 《공연》을 볼수 있다는것이였다. 물론 리순홍이 출장중일 때에는 례외였지만…

우리가 의문을 표시하자 청량음료봉사매대에 있는 봉사원은 경루동에서 살고있는 리순홍배우가 가족들과 자주 편의봉사를 받으러 오군 하는데 그를 알아본 사람들이 이야기 한마디 하라고 청하는 바람에 시작한 《공연》이 이제는 어느덧 하나의 풍경으로 되였다는것이다.

그의 온 가족은 일요일마다 훌륭하게 꾸려진 이 경루종합편의에 와서 편의봉사를 받고 휴식의 한때를 보내며 수많은 사람들의 축복속에 행복의 무아경에 빠져있다고 한다.

우리는 유명한 만담명수 리순홍도 취재계획에 넣으며 우선 황홀하게 꾸려진 경루종합편의부터 돌아보기로 하였다.

이곳에는 경루동주민들을 위한 여러가지 편의봉사시설들이 그쯘하게 갖추어져있었다.

시원하게 넓은 중앙홀을 중심으로 목욕탕과 리발실, 미용실, 청량음료점과 구두수리, 시계수리, 세탁소를 비롯한 각종 편의봉사시설들이 원형으로 설치되여있다. 중앙홀의 한가운데 TV가 걸려있고 휴식

의자들이 조화롭게 배치되여있어 편의봉사를 받고 나온 사람들이 청량음료를 들며 휴식할수 있게 된 경루종합편의는 얼핏 보기에도 몹시 세련된 느낌을 주었다.

이곳이 얼마나 소문이 났는지 경루동에서 살고있는 사람들뿐 아니라 다른 곳에서 살고있는 사람들도 수많이 찾아온다고 한다.

봉사시설들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돌아보고 목욕탕과 리발실, 미용실들에서 봉사도 받아보았다.

봉사를 받아보니 고급한 봉사시설을 항상 리용할수 있게 된 경루동사람들의 행복상이 더더욱 실감되였다. 살림집도 멋있고 곁에 있는 봉사시설들도 훌륭하니 이곳 사람들은 정말로 복받은 사람들이라 생각하며 우리는 리순홍의 집으로 걸음을 옮겼다.

우리가 금방 여기서 《공연》을 하던 리순홍의 집이 어디인가고 물으니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저저마다 자기들이 안내하겠다며 우리를 이끌었다.

리순홍의 집을 어떻게 아는가고 물었더니 이 경루동사람들치고 유명한 인기배우인 리순홍의 집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는것이다.

보통강강안다락식주택구의 준공식이 있은 후 리순홍이 경루동에 입사했다는것을 알고는 옆의 아빠트들은 물론 온 경루동사람들이 달려왔고 지어는 집구경을 온 사람들까지도 너나없이 찾아왔기때문이였다.

경루동 18반 3현관 3층 1호!

그들의 안내를 받으며 다락식주택앞도로에 즐비하게 늘어선 어느한 다층아빠트에 자리잡고있는 리순홍의 집을 찾아가니 온 집안식구들이 우리를 반갑게 맞이해주었다.

《우리도 좀전에 경루종합편의에서 하던 <공연>을 재미있게 잘 보았습니다.

웃음소리가 너무 요란하여 그곳에 들어갔다가 예상치 않게 <공연관람>을 하고 편의봉사시설까지 리용하고보니 경루동사람들이 얼마나 부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유명한 만담배우가 여기 경루동에서 산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렇

게 집구경을 왔습니다. 이 희한한 멋쟁이 경루동살림집의 주인이 되였으니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저에게도 경루동집이 차례졌을 때 너무도 놀라와 이게 과연 내 집이 맞는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이 경루동집을 배려받기 보름전에 처가 꿈속에서 경애하는 원수님을 만나뵈왔는데 그때 원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집을 주려고 한다고 말씀하시였다는것입니다. 그래서 집을 돌아보았는데 창문밖에 새빨간 장미들이 가득 피여있더라는것이였습니다.

꿈속에서도 경루동집에 오고싶은 마음이였다고는 하지만 솔직히 이 경루동의 애국자동네에 저같은 사람이 올수 있으리라고 어떻게 상상이나 할수 있었겠습니까.

인민의 웃음을 제일 귀중히 여기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사랑에 의해 저도 이렇게 경루동의 주인이 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집에 입사하면서 경애하는 원수님께 감사의 편지, 고마움의 편지를 삼가 올렸습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그 고마움의 감정은 점점 더 커만 가면서 그때의 그 감정을 초월하고있습니다. 이것은 저 하나만이 아닌 우리 경루동에서 사는 사람들모두의 심정입니다.

이 집을 돌아본 사람들중에는 외국에 나갔다 온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들은 이 집이 대통령궁전 못지 않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공기가 너무 맑아 아침에 일어나면 얼마나 상쾌한지 모릅니다.

베란다에 나가면 보통강반이 한눈에 바라보이고 따스한 해빛이 하루종일 흘러드는 우리 집이 이 경루동적으로도 제일 좋은것같습니다.

이런 희한한 살림집을 배려하여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그 사랑에 무엇으로 보답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루동마을을 더 아름답고 환하게 꾸리는데 저의 작은 성의나마 바치고싶어 여러모로 애쓰고있지만 마음뿐입니다.

제가 이따금 경루종합편의에서 <공연>을 하는것도 사회주의번화가, 경루동에 웃음만이 넘치기를 바라는 소박한 마음에서입니다.》

《다들 리순흥선생을 두고 타고난 만담배우라고 하는데 부모형제

중에 그런 소질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까?》

《웬걸요, 단 한명도 없습니다.》

리순홍의 고향은 황해남도 해주이다. 그의 아버지는 량정사업소에서, 어머니는 편직물공장에서 로동자로 일하였다. 부모는 물론이고 7남매나 되는 그의 형제들가운데서 예술부문에 종사하는 사람은 리순홍뿐이다.

《사실 내 희망은 의사가 되는것이였습니다. 굳이 예술과의 인연을 꼽자면 중학교를 다닐 때 성대가 좋아 성악소조에 한 1년정도 다닌것뿐이라 할가…》

그가 18살 나던 해인 1976년, 세계를 떠들썩하게 한 판문점사건이 일어났다.

당시 황해남도의학전문학교에서 공부하던 리순홍은 펜대를 총대로 바꾸어쥐고 용약 조국보위의 성스러운 길에 탄원해나섰다.

《사실 나의 재능은 보람찬 군사복무의 나날에 꽃피여났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병사생활을 그대로 담은 그의 소박한 재담은 중대병사들의 인기를 끌어 군무자예술축전에까지 당선되였으며 조선인민군의 어느한 예술선전대에 소환되여 전문적인 화술배우로 성장하게 되였다.

당시 부대에서 그의 인기가 대단하였다. 언제인가는 밤새도록 제손으로 쓴 대본으로 배우들을 웃기기도 하고 때로는 원고없는 방송원이 되여 화선선동도 능란하게 진행하는 그를 가리켜 사람들은 창작과 연출, 형상능력을 모두 겸비한 《만능가》, 《타고난 화술배우》라고 불렀다.

공화국이 어려움을 겪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에 그는 평양웃음극단(당시)으로 소환되게 되였다.

온 나라 인민이 허리띠를 조이며 혹심한 고난을 겪지 않으면 안되였던 그때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인민들에게 승리의 신심과 락관을 불러일으키는데서 큰 역할을 할 평양웃음극단을 조직해주시고 각 예술단체들에서 희극에 기질을 가지고있는 예술인들을 한사람한사람 골라 그곳에 보내주도록 조치를 취해주시였던것이다.

《그때 최광호, 함영신, 박찬수, 최경희동무들을 비롯하여 재능있는 화술배우들이 평양웃음극단으로 오게 되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여러 차례나 우리들이 창조한 화술소품들을 보아주시면서 인민들이 좋아하는가고 물어보시며 잘한다고 치하해주시였으며 우리식 웃음창조에서 나서는 많은 문제들도 가르쳐주시였습니다.》

리순홍은 온 나라 방방곡곡에 웃음을 싣고 다니던 평양웃음극단 시절 자신들도 미처 몰랐던 웃음의 힘, 웃음의 참의미를 느낄수 있었다고 한다.

또 그 나날 《가는 길 험난해도 웃으며 가자!》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미래를 락관하며 만난을 웃음으로 헤쳐나가고있는 인민들의 랑만과 불굴의 의지도 체험하게 되였다고 한다.

《그때 나의 가슴속에는 겨울이 아무리 사나와도 봄을 이기지 못하는것처럼 시련의 광풍이 몰아쳐도 아름답고 고상한 우리 인민의 세계에서 웃음을 거둘수 없다는 확신이 세차게 자리잡았습니다.

추위와 굶주림, 언제 왜놈들이 달려들지 모르는 정황속에서도 흥겨운 씨름판을 벌리며 웃고 떠들었던 항일혁명투사들, 불타는 전호가에서 화선악기를 만들어 승리의 노래를 불렀던 전승세대들, 약동하는 희열의 노래를 부르며 벽돌 한장 성한것 없던 빈터우에 락원을 일떠세운 천리마시대의 주인공들, <가는 길 험난해도 웃으며 가자!>는 신념의 구호를 높이 든 인민들… 바로 이것이 우리 인민의 모습이다, 이런 인민들에게 더 좋은 화술소품들을 창작하여 웃음을 더해주자, 이런 생각으로 밤낮이 따로없이 창작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리순홍은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 《가는 길 험난해도 웃으며 가자!》라는 구호가 안겨주었던 감동을 잊을수가 없다고, 지금도 그때의 정신세계로 살기 위해 노력하고있다고 말하면서 감회에 잠기는것이였다.

《<가는 길 험난해도 웃으며 가자!>, 이 구호를 되새길 때마다 저는 가슴이 뭉클 젖어들어 뜨거운 추억에 잠기군 합니다.

아마 수십년세월 만담배우생활을 해온 제가 그 웃음이 얼마나 값비싼것이며 어떻게 되여 사납게 휘몰아치는 모진 광풍도 우리 인

민에게서 그 웃음만은 빼앗아가지 못했는가를 너무도 잘 알고있기때문일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저를 보기만 해도 웃음이 절로 나온다고, 퍼내고퍼내도 바닥이 나지 않는 그 웃음많은 이야기들이 과연 어디서 샘솟는가고 사람들이 물을 때면 오히려 저는 눈물부터 앞세웁니다.

웃음과 눈물, 분명 상반되는 감정이지만 눈물속에 돌이켜보는 웃음일수록 정말로 값진것이여서 그런지도 모릅니다.

온 나라 인민이 상실의 아픔을 당하고 조국앞에 각일각 준엄한 시련이 닥쳐들던 그 시절 자신께서는 불철주야로 눈물겨운 강행군길을 이어가시면서도 우리 인민에게 기쁨과 랑만을 안겨주기 위해 세상에 없는 평양웃음극단을 조직해주신 위대한 장군님 아니시였다면 그 웃음이 어떻게 맑고 푸른 내 나라의 하늘가에 울려퍼질수 있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며 리순홍은 위대한 장군님의 직접적인 지도와 보살피심속에 작품을 하나하나 완성하고 형상해나가며 성장하던 나날을 가슴뜨겁게 돌이켜보았다.

주체88(1999)년 11월 어느날 리순홍을 비롯한 국립희극단 배우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부르심을 받는 영광을 지니게 되였다.(여러해전에 평양웃음극단이 국립희극단으로 개칭되였던것이다.)

그때 리순홍이 그이께 보여드린 첫 작품이 만담 《웃물이 맑아야 아래물이 맑다》였다.

이 작품은 어느한 가정에서 있은 이야기를 가지고 부모들부터가 언어생활에서 문화성을 높이지 않으면 자라나는 새세대들에게 좋지 못한 영향을 줄수 있다는 교훈을 웃음속에 보여주는 내용이였다.

웃음을 자아내는 장면들이 나올 때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제일먼저 박수를 쳐주시였다.

성수가 난 그는 시간가는줄 모르고 공연을 하다가 마감에는 영화의 대사로 인민배우 유원준, 전두영, 유경애, 오향문, 리경환을 비롯한 여러 배우들의 목소리흉내를 냈다.

그날 그가 출연하는 종목들을 주의깊게 보아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무턱대고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흉내낸다고 하여 다 좋은것은 아니라시며 사람들이 잘 아는 사람의 목소리를 흉내내야 한다는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는 늘 어떻게 하면 진실한 웃음을 창조하겠는가 하는것보다 될수록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흉내내는것과 같은 잔재간으로 관중의 인기를 끌어보자는 속생각을 먼저 하군 하였던것이다.

실례를 들어가시며 다른 동무들의 공연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지도를 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사람들을 웃긴다고 하여 아무런 교양적인 내용도 없는것을 가지고 억지로 웃기려고 하여서는 안된다고, 당정책적인 문제들을 통속화하여 웃음속에 선전할수도 있고 사회생활의 이모저모에서 나타나고있는 부정적인 현상들을 웃음속에 비판하여 사람들을 교양할수도 있다고 그루를 박아 교시하시였다.

그날 밤깊도록 오랜 시간 가르치심을 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쉬지도 못하시고 그길로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는것을 보며 그들은 자책감에 눈물을 흘렸다.

그때부터 그들은 지난날의 창작태도에 종지부를 찍고 순수 웃음을 위한 작품이 아니라 웃음속에 교훈이 있는 작품을 창작하기 위해 늘 현실에 나가 살다싶이 하였으며 유모아도 알고 상식도 알기 위해 많은 책을 읽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강행군길을 따라서는 심정으로 창작활동을 벌려 《감자자랑》, 《민중의 여론》, 《도깨비장물》, 《때늦은 후회》, 《사랑의 일요일》 등 웃음속에 그릇된 현상을 비판하고 교훈을 주는 여러 작품들을 창작형상할수 있었다.

가증스런 적들의 고립압살책동과 련이은 자연재해로 누구나 허리띠를 조이며 엄혹한 시련을 이겨내야만 하는 참으로 어려운 시기였지만 국립희극단의 공연으로 온 세상이 떠나갈듯 웃음을 터뜨리는 인민들의 모습은 공화국의 약동하는 현실을 생동하게 보여주었다.

이 나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과도한 공연부담으로 인후염을 앓고있는 배우들의 치료대책도 세워주시고 산삼과 산꿀을 비롯한

귀중한 약재들도 가슴가득 안겨주시는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주체99(2010)년 7월 리순홍은 또다시 위대한 장군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였다.

시종 웃음을 머금으신채 그의 작품을 흥미진진하게 보아주시며 누구보다 먼저 박수를 크게 쳐주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문득 어느한 만담의 제목을 짚으시며 그것을 한번 해보라고 청하시고는 풍자적인 장면들이 펼쳐질 때마다 호탕한 웃음으로 그를 격려해주시였다.

그러시고는 만담을 잘 만들었다고, 성공한 작품이라고, 만담내용도 교양적의의가 있다고 분에 넘치는 치하를 주시며 앞으로 만담배우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일을 더 잘해야 한다고 하시였다.

만담배우로서의 긍지와 자부심.

순간 마음 한구석에 무엇인가 묵직한것이 매달리는듯한 느낌이 들었다.

지금껏 리순홍은 자기 직업을 기껏해야 타고난 재간을 써먹는 직업, 젊어서부터 해오는 일이라는데 만족하고있었던것이다.

물론 직업에 대한 애착심이 없지는 않았지만 세계적인 발명가나 건축가들처럼 자기의 창조물을 뚜렷이 남기는 사람들, 병을 치료해주고 약품을 만들어 인류의 복리에 공헌하는 의학연구사들과 대비할수는 없다고 생각해왔던것이다. 웃음은 한순간이고 날려가버리면 그만이라고.

하지만 위대한 장군님의 귀중한 교시를 받아안고보니 가슴이 뿌듯해지고 이 세상 그 어디를 둘러보아도 만담배우인 자기만큼 긍지스럽고 영예로운 직업을 가진 사람이 없는것같았다.

그후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그이의 가르치심을 받아안은 그는 우리 장군님의 웃음과 기쁨은 그 어느때나 인민에게 안겨줄 더 큰 웃음과 기쁨, 랑만을 떠나서 생각할수 없었던 가장 숭고한 인민사랑의 결정체였음을 뼈저리게 절감할수 있었다.

우리는 리순홍이 어떻게 되여 인민의 사랑을 받는 만담명수로 될수 있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감동깊이 들으며 가슴이 후더워올랐다.

정녕 위대한 장군님은 그가 인민들의 기억속에 남는 재능있는

만담배우가 되도록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신 자애로운 어버이, 위대한 스승이시였다.

들을수록 가슴뜨거워지는 은혜로운 사랑의 세계였다.

그 사랑의 세계를 한가슴에 안고있는 그였기에 항상 어떻게 하면 인민들에게 더 큰 웃음을 안겨줄수 있을가 하고 늘 사색하군 한다.

그리하여 리순홍이 가는 곳, 리순홍이 있는 곳은 언제나 웃음바다이다.

익살과 기지와 해학이 배합된 리순홍의 독특한 만담술은 그 누구도 따를수 없다.

《생활 그자체를 과장이나 허구가 없이 그대로 담아야 인민들이 받아들이고 좋아하는 작품으로 됩니다. 무작정 웃기겠다고 하다가는 오히려 망신거리가 되기 쉽습니다.》

그가 다른 화술배우들과 차이나는 점은 모든 작품을 자신이 직접 창작하고 연기한다는것이다.

그는 대단한 정열가였다.

새 작품창작에 들어가면 하루에 보통 3시간정도밖에 자지 않는다고 한다. 동료들은 그를 가리켜 《독학가》, 《정열가》라고 부른다. 문학작품은 물론 정치, 경제, 군사, 세계유모아에 이르기까지 그가 읽는 책의 주제는 실로 다양하고 그 분량도 방대하다.

그에게는 늘쌍 가지고 다니는 수첩이 있는데 현실속에 들어가 사람들이 나누는 대화나 행동에서 창작소재를 잡으면 그 자리에서 꺼내들고 써넣는 수첩이다. 그런 수첩이 수십여권이나 된다고 한다.

《지금까지 창작한 작품이 얼마나 됩니까?》

《거의 40편정도 창작하여 출연하였습니다.

작품을 일단 쓴 다음에는 원고를 고치고 또 고치며 진지하게 연구하고 완전무결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낟알도 완전히 영글었을 때 탈곡을 해야 높은 수확을 거둘수 있는것처럼 작품도 최대로 연구하고 또 연구하여야 명작이 될수 있는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작품을 형상한 다음에도 사람들의 반응을 하나하나 관찰

하면서 작품을 더욱 세련시키군 하는데 그러다보면 1년이 지나서 처음에 썼던 작품과 완전히 다른 작품이 되기도 합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인민사랑에 의하여 지금 온 나라에 얼마나 많은 문화정서생활기지들이 꾸려져있습니까.

가는 곳마다 인민의 웃음이 넘쳐나니 웃음소재가 차고넘칩니다. 그 소재들로 <일요일>, <명당자리>, <제일이야>를 창작했습니다.

웃음넘치는 인민의 생활을 그대로 담았더니 모두가 좋아합니다.》

우리 인민들은 누구나 수도 평양의 풍치수려한 모란봉기슭에서 펼쳐진 당창건 75돐경축 웃음무대 《웃음많은 우리 집》을 기억하고 있을것이다.

2020년 수도 평양에서는 모란봉이 들썩하게 사품치는 환희의 바다, 웃음의 파도가 일렁이였다.

풍치수려한 모란봉기슭에 펼쳐진 당창건 75돐경축 웃음무대 《웃음많은 우리 집》공연이 성황리에 진행되였던것이다.

이 공연은 모든것을 설명해주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눈물겨운 강행군길 자욱자욱에 뿌려진 씨앗이 움터나 마련된 인민의 행복한 웃음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위민헌신의 세계에 진하게 슴배여있는 인민사랑에 의해 더욱 만발하게 피여 우리식 사회주의대화원을 온 세상에 자랑스럽게 보여주었다는것을. …

《경루동을 가지고 작품을 준비하는것은 없습니까?》

《경루동을 저의 작품에 담는다는것이 어딘가 모르게 격을 떨어뜨릴것만 같아 감히 손을 댈수가 없습니다.》

리순홍은 관중들이 아낌없는 찬사를 보낼 때마다 그것을 더없는 힘과 고무로 받아안으며 높은 창작적열정을 쏟아부어 끊임없이 새 작품들을 창작하여왔다.

리순홍은 가정에서도 익살군으로 만담배우로서의 기질을 남김없이 발휘하고있다.

《동네에서는 우리 집을 가리켜 화목한 가정, 우리 부부를 가리

켜 <사슴부부>라고 한답니다. 그건 내가 <잘못했수다.>선수이기때문이지요. 집사람이 뭐라고 잔소리하면 난 무조건 <잘못했수다.>, <잘못했수다.>입니다. 이러면 내게 차례지던 호박이 수박으로 변하고 온 집안이 화목해집니다.》

그의 집에서는 항상 웃음꽃이 활짝 피여난다고 한다.

남편의 말에 홍안의 시절 이름난 무용수였고 안무가였던 그의 안해는 웃으며 이렇게 말하는것이였다.

《격세유전이라고 외손주녀석이 할아버지를 닮은것같습니다. 집에서나 밖에서나 곧잘 할아버지흉내를 내서 사람들을 웃기군 한답니다.》

한마디한마디가 다 웃음을 자아내는 리순홍의 이야기는 아무리 들어도 싫지 않았고 시간이 가도 지루하지 않았다.

아쉬움을 남기며 일어서는 우리에게 리순홍은 말하였다.

《내가 만담배우로 이름을 떨칠수 있은것은 천성적인 기질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저의 자그마한 재능의 싹을 귀중히 여기시여 화려한 웃음무대에 세워주시고 걸음걸음 이끌어주시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오늘의 제가 있을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민들에게 영원히 지지 않는 웃음을 안겨주시기 위해 불면불휴의 로고를 바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과 믿음에 더 좋은 만담작품을 창작하여, 더 많은 후비들을 키워내여 꼭 보답하겠습니다.》

그는 오늘도 화성거리건설장으로, 서포지구살림집건설장으로 화선선동을 나간다. 그들의 화술소품무대는 인민들이 있는 곳이라면 그 어디에나 펼쳐지고있는것이다.

이들이 있어 언제나 신심과 락관에 넘쳐 사회주의문화의 창조자, 향유자로 삶을 꽃피워가는 인민들의 생활은 더욱 흥그러워질것이다.

취재를 마치고 그의 집을 나서는 우리의 눈앞에 불빛을 머금은 구슬다락의 전경이 펼쳐졌다.

집집마다 기쁨이 차넘쳐 더더욱 아름다운가, 금구슬, 은구슬을 뿌려놓은듯한 경루동의 모습은 볼수록 장관이였다.

위인의 슬하에서 자라난 유능한 건축가

(공훈과학자인 평양건축대학 건축학부 학부장 량봉진)

건축은 시대를 대표하는 최고의 예술이라는 말이 있다.

수천년전에 세워진 하나의 건축물을 통하여 당대 사회의 정치, 경제, 문화의 전모를 파악할수 있을만큼 시대와 력사를 대표함에 있어서 건축만큼 위력한 언어가 없고 건축만큼 생동한 화폭이 없기때문일것이다.

하기에 감각적인 생동성과 회화적인 직관성, 정서적인 감동성과 비반복적인 개성에 의하여 사람의 사상감정과 리상을 조형예술적으로, 직관적으로 표현하는 건축을 가리켜 나라의 국력과 문명을 대표하는 한폭의 그림이고 거대한 조각이며 굳어진 음악과도 같다고도 말하는것이다.

건축에는 해당 시대의 발전수준과 사람들의 지향이 비끼게 된다.

건축의 대번영기가 펼쳐진 우리 공화국의 눈부신 현실만 놓고보아도 이것을 잘 알수 있다.

은하과학자거리로부터 시작하여 위성과학자주택지구, 미래과학자거리, 려명거리에 이어 산간문화도시의 본보기로 일떠선 삼지연시와 검덕의 천지개벽 그리고 송화거리, 화성거리를 비롯하여 우후죽순처럼 일떠서는 인민의 희한한 보금자리들과 과학기술전당, 연풍과학자휴양소, 문수물놀이장, 마식령스키장, 미림승마구락부, 양덕온천문화휴양지와 같은 문명의 재부들…

참으로 지난 10여년간 조국땅 이르는 곳마다에 솟아오른 자랑스러운 건축물들은 그 하나하나가 다 위대한 **김정은**시대를 대표하는 본보기적창조물들이다.

이런 희한한 시대에 특별히 남다른 긍지와 자부를 안고 사는 사

람들이 바로 건축가들이 아닌가싶다.

우리가 경루동에서 만나본 사람들중의 한사람인 평양건축대학 건축학부 학부장 량봉진도 건축의 영재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명예총장으로 높이 모시고 그이의 특출한 천품을 가장 가까이에서 체감하고 그이의 직접적인 손길아래 건설의 대번영기를 빛내여가는 유능한 건축가로, 사회주의문명국의 래일을 설계하는 뛰여난 건축인재들을 키우는 교육자로 복받은 삶을 누려가는 행운아이다.

우리가 그를 만난것은 2023년 1월말경의 어느날 저녁이였다.

경루동 한가운데 있는 다층아빠트의 현관에 들어서기 바쁘게 그리 크지 않은 체구에 순후하고 지성미넘치는 둥그스럼한 얼굴모양의 량봉진과 그의 안해가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었다.

전화로 한번 련계해보면서 로학자다운 학자풍의 늙은이일것이라고 상상해보던것과는 달리 우리가 만난 량봉진은 예순을 갓 넘겼다고는 하나 교육자다운 기품이 넘치는데다가 기백있는 걸음새로 하여 나이보다 퍽 젊어보였다.

항상 20대의 학생들속에 있어서 저렇듯 패기에 넘치는것인가 하고 생각하며 우리는 집안식구들과 인사를 나누고 안주인의 안내로 집안의 구석구석을 돌아보았다.

우리가 공동방의 벽면을 꽉 채운 기념사진앞에서 감탄을 금치 못해하는데 우리를 안내하던 안주인의 눈가에 맑은것이 맺히는것이 아닌가.

놀라와하는 우리에게 안해인 김상숙녀성은 이렇게 말하는것이였다.

《주책머리없다고 욕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이 집에 입사한지도 해를 넘기였지만 아직도 우리 집에 찾아오는 손님들을 맞이할 때면 정말이지 눈물이 나 견딜수가 없습니다. 이 집을 받아안고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부터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렸는데 어디서 샘솟는지 눈물이 마르질 않습니다. 날이 갈수록 격정은 더 커만 가는데 앞으로도 영원히 눈물이 마를것같지 않습니다.》

《아마 무슨 특별한 사연이라도 있는 모양이지요?》

《그렇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경루동살림집준공식을

하는 날 모여선 사람들을 보니 그중에 건축가는 세대주 혼자뿐이였습니다. 우리 나라에 조국을 위해 큰일을 한 건축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수많은 건축가들중에서 세대주가 이런 크나큰 영광을 받아안았으니 감격이 남다를수밖에 없지요.

솔직히 여기에 오기 전에 살던 미래과학자거리의 살림집도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배려속에 받아안았던 집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이런 희한한 호화주택에 남먼저 불러주시였으니 어찌 눈물이 샘솟지 않을수 있겠습니까.》

《건축가로서의 학부장선생의 심정은 더 남다르겠지요?》

《정말 그렇습니다. 난 건축가이기때문에 이 800세대 살림집의 가치를 너무도 잘 알고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곳은 어버이수령님께서 계시던 저택자리가 아닙니까. 이 유서깊은 자리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설계방향과 건설시공, 건재와 예산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시고 헌신의 로고를 바치시여 이런 세계적인 호화주택을 건설해주시였습니다. 그것도 나라가 그 어느때보다도 어려움을 겪던 시기에 말입니다.

이 집은 살림집이라기보다 별장입니다. 침대에 누우면 창문으로는 걸음길에 켜진 가로등이 보이고 갖가지 수종이 좋은 나무들이 운치있게 서있는 모습은 마치도 수림속에 들어와있는듯한감을 느끼게 합니다.

저는 사업상관계로 여러 나라들의 고급호텔들을 많이 다녀보았습니다. 이 집은 그런 고급호텔의 특등실이나 같습니다.

그런 집이 저에게 차례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너무도 꿈만 같아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또 흘렸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태양의 품이 아니였더라면 자본주의사회에서 돈많은자들에게나 차례지는 이런 호화주택이 어떻게 저에게 차례질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무슨 좋은 일이 있는 모양이지요. 초저녁인데도 온 집안이 이렇게 다 모여있는걸 보니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 저의 남편이 며칠만에 집에 들어왔

답니다. 종종 중요한 과제를 맡았을 때면 끝장을 보느라고 여러날동안 사무실에서 들어오지 못하군 하지요. 남편이 집에 들어온다는건 맡은 일에서 성과가 있는것이랍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서는 남편이 집에 들어오는 날이 명절이나 같답니다.》

안해의 말에 량봉진은 며칠전에 화성거리 2단계설계를 완성하여 경애하는 원수님께 보고올리는 영광을 지녔다고 이야기하는것이였다.

《축하합니다. 학부장선생님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명예총장으로 모신 대학에서 그이의 관심속에 사업하고있으니 정말 긍지가 이만저만 아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슬하에서 건축설계를 많이 했습니다.

그때마다 너무도 특출하신 그이의 천품에 찬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높은 안목을 지니시고 우리 건축가들을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시며 지난 10여년간 우리 조국땅을 희한한 멋쟁이건물들로 아름답게 수놓아오신 경애하는 원수님은 그야말로 건축의 영재이십니다.

그런 위대한분의 슬하에서 건축가로서의, 교육자로서의 삶을 누려가는 저야말로 행운아중의 행운아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지금도 대학에 오신 원수님을 처음으로 뵈옵던 그날의 감격을 정녕 잊을수가 없습니다.》

량봉진은 그때를 감회깊이 돌이켜보며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처음 뵈오며 량봉진은 그분은 정말로 하늘이 낸 위대한분이시라는것을 시시각각 느낄수 있었다.

주체102(2013)년 11월 대학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전쟁의 포화가 멎은 직후인 1953년 10월 1일에 창립되여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따사로운 손길아래 주체적건축인재육성사업과 기념비적건축물창작에서 핵심적역할을 하여온 대학이 걸어온 영광스러운 로정을 감회깊이 돌이켜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뜻깊은 그 자리에서 대를 이어 길이 전해갈 태양의 축복을 안겨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혁명과 건설의 매 시기마다 이 대학사업을 중시하여오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뜻을 받들어 오늘은 내가 평양건축종합대학의 명예총장이 되여 대학사업을 적극 밀어주려고 합니다.》

순간 량봉진을 비롯한 대학일군들은 그이를 대학에 모신것만도 꿈만 같은데 몸소 명예총장이 되여주시겠다고 하시니 너무도 분에 넘치는 영광에 기쁨을 금치 못하며 열광의 박수를 터쳐올렸다.

이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평양건축대학에서 앞으로 유능한 건축인재들을 많이 키워내야 한다고 하시면서 대학에 건축과 관련한 최신자료들을 받아볼수 있는 콤퓨터망을 구성하여 세계건축자료들과 국내설계자료들로 자료기지를 구축하도록 하시고 국가적으로 좋은 자료들을 수집하여 대학에 보내주는 체계도 세워주시였다. 그리고 교육사업과 과학연구사업, 건축설계에 절실히 필요한 자료들을 수많이 내려보내주시였다.

영광의 그날로부터 건축대학의 교직원, 학생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각별한 관심속에 사회주의문명의 선도자들로 튼튼히 준비되여갔다.

량봉진도 경애하는 원수님의 직접적인 지도를 받으며 설계기술을 련마하였고 그이의 사랑과 배려에 의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건축설계대표단 성원으로 여러 나라들을 참관하면서 다른 나라의 건축물을 연구하고 기술교류를 진행하며 안목을 틔웠다.

그 나날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조선의 건축술에 감탄을 금치 못하는 다른 나라의 건축가들도 많이 만나볼수 있었다.

언젠가 량봉진이 속한 건축설계대표단이 유럽에서도 실력이 높다고 인정받는 어느한 건축기술회사 성원들과 면담을 진행하였는데 휴식시간에 그들이 문득 우리 나라에 건설된 과학기술전당을 설계한 건축가가 누구인가고 물어보는것이였다.

과학기술상징탑을 배경으로 과학의 세계를 형상한 거대한 원자구조모양의 독특하고 희한한 과학기술전당은 우에서 보면 원자핵주위를 도는 3개의 전자자리길들이 조형예술적으로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어 우리 인민의 배움의 열망을 독특한 건축미로 운동감이 나게 예술적으로 형상하였다. 과학기술전당내부의 매 층, 매 방의 요소들도 과학의 환상세계와도 같이 꾸려졌다.

하기에 사람들은 그 설계와 형성안의 기발하고 독특한 착상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과학기술전당은 현대건축물의 극치라고 할수 있다.》, 《과학기술전당의 설계는 건축의 대가만이 작성할수 있는 최고의 최고이다.》라고 찬탄을 아끼지 않았다.

세계적으로도 인기있는 이런 과학기술전당의 설계자가 누구인가를 알고싶어하는것은 건축가라면 너무도 응당한것이였다.

그 물음을 받은 량봉진은 그 창안자, 설계자는 건축의 영재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라고 하면서 그이의 헌신적인 령도에 의하여 과학기술전당이 록색건축기술을 도입한 우리의 첫 에네르기절약형건물, 록색건축물로 솟아올랐다는것, 건축설계와 시공에서 대담하고 독특할뿐 아니라 록색건축이라는 큰걸음을 내짚은 **김정은**시대의 주체건축은 그 어떤 건축물이든 마음먹은대로 설계하고 시공하는 자랑찬 시대, 세계첨단의 건축시대를 펼치게 되였다는데 대하여 긍지높이 이야기해주었다.

량봉진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 나라의 건축가들은 그런 위대한분의 슬하에서 건축을 하는 당신들이 정말 부럽다며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해가고있는 조선의 훌륭한 건축술에 대하여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들은 건축기술대표단이 다른 나라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례사롭게 듣게 되는 이야기들이였다.

그때마다 량봉진은 세상이 부러워하는 조선의 건축가로 자라난 자기의 인생행로를 가슴뜨겁게 돌이켜보군 하였다.

사실 량봉진의 가족들중에는 건축과 인연을 맺은 사람도 없었고 그도 자기가 건축가가 될수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해본적이 없었다.

단지 어려서부터 그림그리기를 무척 즐겨하였을뿐이다.

몹시 소심하고 혼자 사색하기를 즐겨하던 그에게 자기의 환상을 그림으로 펼쳐보이는것이상 즐거운 일은 없었던것이다.

평양외국어학원에 입학하여 공부하면서도 짬시간마다 그림을 그리는것을 보고 학원에서는 그를 미술소조에서 재능을 꽃피우도록 하였으며 학교직관사업도 맡아하도록 하여주었다.

학원시절에 량봉진을 건축의 신묘한 세계에로 안내해준것은 학원의 미술교원이였는데 그는 후에 평양건축대학에서 미술교원으로 사업하였다고 한다.

군사복무시절에 량봉진은 부대직관을 맡아하면서 자기의 미술재능을 더욱 련마하였고 날로 발전하는 조국의 현실을 목격하면서 건축가가 될 희망을 품게 되였다.

더우기 그가 제대될무렵에는 개선문, 주체사상탑을 비롯한 기념비적건축물들이 련이어 솟아나면서 건축에 대한 사회적관심이 높아지고 건축대학을 지망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있었던것이다.

군사복무를 마친 량봉진은 평양건축대학에 입학하여 마침내 자기의 꿈을 꽃피울수 있게 되였다.

대학시절 그는 배움의 나래를 활짝 펼쳐 나라의 믿음직한 건축인재로 자라날수 있었으며 1996년에는 박사원까지 졸업하게 되였다.

정녕 고마운 사회주의교육제도의 혜택으로 량봉진은 건축과 인연을 맺었고 건축가로서의 소중한 꿈을 활짝 꽃피워 오늘에 이를수 있었던것이다.

하기에 그는 박사원을 졸업하면서 건축으로 조국을 빛내이는 인재들을 훌륭히 키워내는 교육자가 되여 자기를 키워주고 내세워준 당과 조국의 고마움에 보답할 결심을 품게 되였다.

량봉진이 교단에 서던 때는 온 나라가 어려움을 겪던 시기였다.

그에게는 다른 직업을 선택하여 생활상곤난에서 벗어날수 있은 운명적인 유혹의 기회도 있었다.

그러나 량봉진은 조국이 시련을 겪을 때 자기의 전도와 행복만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싶지 않았기에 결코 헐한 일이라고는 말할수 없는 교육사업에 청춘의 열정과 자신의 행복을 고스란히 바쳤다.

그 나날에 그는 조국의 미래를 떠메고나갈 후비들을 키우는 교육사업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시며 교원들을 위해 그토록 마음을 쓰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과 믿음에서 큰 힘을 얻으며 건축인재후비육성에 전심전력을 다하였으며 나라의 건축발전에 이바지할수 있는 많은 창조물들을 내놓을수 있었다.

교육자로서, 건축가로서의 그의 삶은 건축의 영재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직접적인 지도와 가르치심을 받으면서 건설의 대번영기를 펼쳐가는 나날에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하였다.

2012년 1월경에 그는 대학의 교직원들과 함께 새로 건설된 조선인민군무장장비관을 참관하게 되였다.

무장장비관에 들어서는 순간 그는 놀라움을 금할수 없었다.

그도그럴것이 몇년전 어느한 나라의 이름난 전승기념관을 참관하면서 재치있는 건축학적처리에 감탄을 금치 못하였었는데 그 건축술을 훨씬 뛰여넘는 조선인민군무장장비관의 건축학적수준에 환성을 올리지 않을수 없었던것이다.

무장장비관건설의 발기로부터 설계와 시공에 이르는 전 과정을 몸소 지도해주신분이 다름아닌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이시라는것을 알게 되면서 그렇듯 위대한분의 높으신 안목에 탄복을 금치 못했다. 그리고 언제면 자기에게도 그이의 직접적인 지도를 받으며 무장장비관과 같은 훌륭한 기념비적건축물을 설계하는 행운이 차례질가 하는 소원을 품게 되였다고 한다.

그 소원이 마침내 현실로 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대학의 명예총장으로 높이 모신 영광의 그날과 더불어 그는 원수님의 직접적인 지도를 받으면서 문명의 상상봉으로 줄달음쳐 비약하는 **김정은**시대를 당당히 대표하는 수많은 기념비적건축물들을 일떠세우게 되였다.

그 나날에 그가 절세위인의 천품과 탁월한 령도에 탄복을 금치 못했던 일들이 한두가지가 아니였다고 한다.

어느날 량봉진은 평양국제비행장 항공역사건설장에서 건축부문의 관록있는 건축가들, 일군들과 함께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진행하는 설계협의회에 참가하는 영광을 지니게 되였다.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여러개의 설계도면가운데서 량봉진을 비롯하여 설계가들이 설계한 비행장항공역사설계도면을 더욱 세련시켜주시고 그 도면으로 항공역사를 건설하도록 해주시는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원래 비행장항공역사설계는 건축설계도면치고 매우 까다롭고 복잡한 설계였다.

그런데 그이께서는 설계도면을 척 보시자마자 순간에 문제점을 포착하시고 결함과 함께 긍정적인 면도 이야기해주시였으며 대책안도 즉시에 세워주시였다.

정말이지 경애하는 그이의 비범한 높으신 안목에 탄복을 금할수 없었다.

삼지연시 광명성동을 현대적으로 개건할데 대한 설계를 맡아안았을 때에도 마찬가지였다.

그때 량봉진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가르치심을 받고서야 추운 지방에서 덮어놓고 뾰족지붕으로 마감하던 도식을 깨고 보기 좋은 비례의 경사각도지붕처리와 평지붕을 결합하게 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삼지연시건설이 마감단계에 이르렀을 때에는 상징건물 몇동을 끼워넣는 방법으로 거리에 활기를 주고 건축적 효과를 최고의 수준에 올려세우도록 하여주시여 삼지연시가 세계적인 산간도시의 본보기로 빛을 뿌릴수 있게 하여주시였다.

참으로 건축도면을 하나 보시고도 단번에 정확히 평가해주시며 그 해결방향도 명철하게 결론해주시는 그이의 분석력은 그 누구도 따를수 없는 비범특출한것이였다.

어찌 그뿐이겠는가.

과학기술전당의 힘받이구조인 기둥요소들을 수직으로만 처리하던 수법에서 벗어나 V자형의 조형적인 형태로 전환시켜주시고 지붕요소들도 건축형성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여 립체감이 나도록 하신것이라든가 양덕온천문화휴양지를 지형조건을 잘 리용하면서도 기능적으로나 조형적으로 흠잡을데 없는 친환경건축의 본보기로 만드신것, 현대건축에도 민족성을 바탕에 깔아야 한다는 우리 건축의 대도 확고히 세워주신것 등…

정말이지 건축의 대번영기가 일어번지고있는 곳곳마다에서 경애하는 그이의 높으신 안목을 보여주는 실례들을 다 꼽자면 아마 여러권의 책을 써도 모자랄것이다.

그런 위인의 슬하에서 량봉진은 오늘날 건축학분야의 유능한 건축가로, 조국의 미래를 설계할 건축가들을 키우는 교육자로 자라났다.

그가 키운 20대의 애젊은 학생들이 백두산건축연구원, 평양도시설계연구소 등 나라의 관록있는 설계기관의 설계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중요대상설계에서 실적을 올리고있다.

지난 10여년간 학생들과 함께 삼지연시의 살림집들과 공공건물, 양덕군읍지구형성설계를 비롯한 국가중요대상의 건축설계를 진행하였는데 이중에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몸소 보아주시고 평가해주시여 대상건설에 실현한 설계안만 하여도 수천여건에 달한다고 한다.

이 모든 성과는 몸소 대학의 명예총장이 되시여 천금같은 시간을 바쳐가시며 귀중한 강의도 하여주시고 건축인재양성의 밑거름이 되겠다시며 교원, 학생들의 건축시야도 넓혀주시고 위대한 스승이 되시여 세계를 향하여 큰걸음을 내짚도록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사랑과 배려를 떠나서는 결코 생각조차 할 수 없는것이였다.

세상을 둘러보면 나라마다 국가수반이 있고 수많은 건축가들이 자라나고있지만 미래의 건축가들의 성장을 위해 국가중요대상설계까지 맡겨주시며 품들여 키워준 령도자는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다.

학생들이 국가중요대상설계에 참가한다는 사실, 이것은 건축대학 학생들이 훌륭한 건축가들로 자라나도록 언제나 마음쓰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만이 취하실수 있는 조치이다.

지금 건축대학을 졸업한 수많은 학생들이 관록있는 국가기관들에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회주의문명국건설구상을 제일 앞장에서 받들어나가는 재능있는 설계가들로 활약해나가고있다.

후대교육사업에 기울인 량봉진의 헌신적노력과 그가 이룩한 성과들을 헤아리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주체106(2017)년 12월 그를 전국지식인대회 대표로, 주체108(2019)년 9월에는 제14차 전국교원대회 대표로 불러주시였으며 주체110(2021)년 1월에는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 대표로 불러주시여 사랑의 선물도 가득 안겨주시고 기념촬영도 하여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그를 여러 차례 건설부문일군대강습회들에 불러주시여 세계적수준에서 건축물을 보고 대할수 있도록 안목을 틔워주고 대담하게 착상하고 일을 내밀수 있는 배짱과 담력도 안겨주시였으며 공훈과학자로 내세워주시였다.

2022년 4월에는 세계적인 호화주택으로 훌륭히 일떠선 경루동의 주인으로 되게 하여주시였다.

위인의 슬하에서 유능한 건축가로, 훌륭한 교육자로 자라난 량봉진의 이야기를 듣노라니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건축분야에 쌓으신 업적에 대하여 가슴뜨겁게 돌이켜졌다.

이 땅우에 우후죽순처럼 일떠서는 건축물들 하나하나에는 절세위인의 리상과 포부, 미학관, 숨결과 체취가 속속들이 슴배여 있다.

무엇을 하나 건설하여도 인민들의 편리를 최우선시하는 원칙을 구현한 세계최고의 건축물이 되도록 높은 요구성을 제기하시고 주체건축에서 중요한것이 현대성과 민족성의 유기적인 결합이라고, 건축에서 주체성, 민족성을 살리는것이 생명이고 핵이라고 강조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세상에 둘도 없는 조선의것을 끊임없이 창조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의 근본초석은 다름아닌 위대한 인민관이다.

인민대중제일주의건축, 바로 이것이 위대한 **김정은**시대를 대표하는 창조물들에 관통되여있는 절대적인 기준이고 척도이다.

건축의 창조자도 인민대중이고 그 향유자도 인민대중인것만큼 건설에서는 마땅히 인민들의 지향과 요구, 편의가 최우선시되여야 하며 인민들의 정서와 미감에 맞게 사상예술성과 실용성이 완벽하게 보장되여야 한다는 그이의 가르치심이야말로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주체건축의 불변의 원칙이다.

대줄기같이 퍼붓는 비살에 옷자락을 흠뻑 적시시며 기꺼이 걸으신 진창길들이 있어 인민의 병원들이 눈부시게 솟아났고 찬눈을 맞으시며 오래도록 걸으시던 건설장의 험한 길들이 있어 삼지연시의 천지개벽이 일어났으며 설계가들과 시공자들의 안목을 넓혀주시려 거듭

찾아오신 밤길, 새벽길들이 있어 로동당시대의 선경거리들이 하늘높이 일떠섰다.

과학자들의 웃음꽃이 피는 보금자리를 안아오시려 경애하는 원수님 오르시였던 하늘길들, 엄혹한 자연재해로 하여 불행에 잠겼던 인민에게 한초라도 더 빨리 행복을 주시려는 열망으로 가슴 불태우시며 조국땅 한끝에로 이어가셨던 바다길, 하늘길은 위대한 헌신의 깊이와 폭을 눈물겹게 새겨준다.

지금도 뜨거운 격정속에 더듬어보느라면 몇해전 레루마저 휘여들것만 같던 삼복의 폭염속에서 경애하는 원수님 옷깃이 땀에 푹 젖어드는것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오랜 시간 돌아보신 흙먼지자욱한 어랑천발전소건설장이 어려온다.

인민의 리상향을 건설하는 길에서 언제나 만족을 모르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이시기에 삼지연시에서 양덕지구에 이르기까지 머나먼 길을 끊임없이 걷고걸으신것이다.

량봉진은 끝없이 베풀어지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과 배려에 보답하기 위해 사회주의문명국건설에 앞장설 건축인재들을 더 많이 키워낼 결의에 충만되여있었다.

취재를 끝내고 그의 집을 나서는 우리의 귀전에 그가 하던 말이 메아리되여 울려왔다.

《저는 교원이지만 저의 스승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이십니다.

원수님께서 우리 건축가들을 현실속에서 배우고 안목을 틔우도록 품들여 하나하나 손잡아 이끌어주시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저의 행복한 오늘이 있을수 있었겠습니까.

그이를 스승으로 모시였기에 우리 건축의 미래는 휘황찬란한것입니다. 지금 현대적인 새 거리들이 하루가 다르게 일떠서고있는 오늘의 현실이, 현대문명에로 줄달음치는 조국의 현실이 이를 실증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건축후비육성사업에 더 큰 힘을 넣어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회주의강국건설구상을 앞장에서 받들어나가며 건설의 대번영기를 빛내이는데 한몫 단단히 할 건축인재들을 더 많이 키워낼 결심

입니다.》

그렇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높으신 안목과 리상속에 우리 건축의 미래는 휘황찬란하다. 그이의 품속에서 사회주의문명국의 앞날을 떠메고나갈 훌륭한 건축인재들이 수많이 자라나 공화국의 면모를 나날이 아름답게 수놓아갈것이다.

더욱더 아름답게 변모될 조국의 래일을 그려보는 우리의 가슴은 격정으로 부풀어올랐다.

비약의 《나래》로 세계에 도전한 《도자기소년》

(로력영웅인 나래도자기공장 지배인 박성민)

《나래》!

이것은 인기있는 여러가지 위생자기와 장식화분들을 비롯한 자기제품들을 생산하고있는 나래도자기공장의 상표이름이다.

지난 10여년간 건설의 대번영기와 더불어 공화국에 우후죽순처럼 일떠서는 대기념비적건축물들과 새로 건설된 살림집들마다에는 《나래》상표를 단 위생자기들과 장식화분들이 설치되지 않은 곳이 거의 없다.

색과 형태, 실용성과 편리성 등으로 하여 소비자들속에서 인기가 대단한 《나래》도자기제품들이 어느 사이에 사람들의 생활에 깊숙이 자리잡은 명상표로 되였다.

언젠가 림현단선생을 취재할적에 자기 집에 설치된 《나래》제품들이 사용하기가 편안한데다가 때가 잘 끼지 않고 물이 쭉쭉 빠지니 리용하기가 쉽다며 이 《나래》제품들을 만드는 지배인의 집도 경루동에 있다고 하던 생각이 났다.

우리가 찾았던 살림집들마다에도 《나래》위생자기들이 설치되여 있었다.

사람들의 생활속에 깊숙이 자리잡은 《나래》제품들을 보느라니 이번 기회에 경루동에 있다는 나래도자기공장 지배인의 집에 꼭 들려보고싶었다.

그리하여 약간 둔덕에 위치한 아빠트에 있는 그의 집을 찾으니 박성민지배인의 안해와 아들이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었다.

《안녕하십니까. 이 경루동에 취재를 나왔던 길에 소문난 <나래>도자기제품들을 만드는 지배인동무도 여기에 살고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렇습니까. 어서 들어오십시오. 정말 반갑습니다. 그런데 어쩌나… 세대주가 출장중이여서 지금 집에 없답니다.》

《그럼 지배인동무는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왔던김에 몇가지 물어보아도 일없겠습니까? 지배인동무에 대해서야 누구보다도 잘 알지 않겠습니까.》

《어서 물어보십시오.》

《듣자니까 지배인동무를 보고 <도자기소년>이라고 부른다던데…》

《예, 옳습니다. 저도 시집을 와서야 알게 되였는데 제가 남편과 함께 산지도 이젠 20년이 되여오지만 어느 하루도 도자기와 떨어져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공장에도 집에도 도자기를 빚기 위한 모형실을 꾸려놓았으니까요. 앉으나서나 도자기생각뿐이고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아도 어릴 때부터 도자기에 대한 애착이 유별났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안락의자를 권하며 지배인의 안해는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남편은 천년강국 고구려의 왕궁터가 지척에 있는 대성산기슭의 청호동에서 태여나 자라며 도자기에 남다른 취미를 가지게 되였다고 한다.

집주변에 있는 대성요업공장의 유치원을 다니며 공장에서 만드는 도자기들을 본 순간부터 도자기에 끌려들어 곧잘 니장덩이를 가지고 도자기를 빚는 로동자들의 흉내를 내고 학교에 다니던 시절에는 방학때면 공장에 와서 도자기에 열정을 쏟군 하는 그를 보고 사람들은 《도자기소년》이라고 불렀다.

공장에 자주 갈수 없을 때에는 도자기에 대한 호기심을 그림으로도 펼쳐놓군 하였는데 파고들면 들수록 요지경과도 같은 미술의 세계에 반하여 그림에 푹 빠져들기도 하였다.

미술박물관에 전시되여있는 정교함과 예술성에 있어서 그 어느 미술작품에도 비길수 없는 고려청자기를 정신없이 바라보느라면 수수천년 이 땅에서 살아오며 훌륭한 문화적재부를 창조하여 남겨놓은 선조들의 뛰여난 슬기와 재능, 고귀한 넋과 우수한 전통에 저도 모르게

매혹되군 하였던 그였다.

남달리 그림그리기를 좋아하는 그를 중학교에서는 미술소조에 망라시켜주었고 선생님들의 지도속에 그림그리는 재간이 몰라보게 늘게 되였다. 눈에 보이는 모든것 지어는 머리속에 떠오르는 상상속의 화폭들까지 실물처럼 생동하게 그려낼수 있게 되였다고 한다.

그림그리기에 열중하다가도 방학때면 대성요업공장의 손꼽히는 기술자들에게서 도자기의 모형만드는 법을 익히군 하였다. 니장덩어리를 손에 쥐고 여러가지 모형을 빚어 구워내군 하는 재미에 시간가는 줄 몰랐고 나날이 미립이 터갔다. 그 과정에 제법 특색있는 도자기를 구워내군 하여 여러 사람들의 칭찬을 받기도 하였다. 그림그리기를 하면서 익혀온 상상력이 도자기공예에 더없이 좋은 밑거름으로 되였던것이다.

그럴 때마다 그는 자기가 까다로운 모형제작을 배워내고 분명 흙과 돌로 빚어졌건만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와도 같이 마음을 끌어당기는 기묘한 곡선미와 은은한 광채를 뿌리는 멋진 도자기를 제손으로 빚어냈다는것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았다고 한다.

날이 갈수록 도자기공예의 세계에 심취된 그의 인생은 도자기와 하나로 이어지게 되여 중학교를 졸업한 후 대성요업공장 모형반에서 공예공으로 일을 시작하게 되였다. 그때 모형반에 있던 뛰여난 기능공아바이로부터 성실하게 배우며 마음껏 재능의 나래를 펼치였다.

그가 만든 도자기들은 국가적인 도자기전시회들에서 여러 차례 당선되여 높은 평가를 받게 되였다.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때에는 대성산유희장에 차려놓은 전시대에서 외국인들이 그가 만든 꽃병을 보고 몹시 탄복하며 다투어 사가지고 가기도 하였다고 한다.

박성민이 오늘과 같이 세계와 당당히 겨루는 《나래》도자기의 발명가, 제작자로 될수 있은것은 바로 이렇듯 그림으로 상상의 나래를 마음껏 펼치게 해준 고마운 선생님들과 꿈많은 중학시절에 그의 작은 손에 니장덩이를 쥐여주며 우리 민족의 자랑인 도자기에 대한 애착을 깊이 심어준 대성요업공장 일군들의 웅심과 성실하고 순박한 로동자들의 사심없는 도움이 있었기때문이였다.

갑자기 울리는 전화종소리에 우리의 이야기는 중단되였다.

평양미술대학 전문부에서 공부하는 아들 태원이의 수업시간이 시작되였던것이다.

수업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우리는 취재장소를 나래도자기공장으로 옮기기로 하였다. 지배인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보니 나래도자기공장에 가보고싶은 생각이 더 강렬해졌던것이다.

며칠후 지배인이 출장길에서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공장에 대한 취재길에 나섰다.

우리가 나래도자기공장구내에 들어서니 푸른 하늘의 흰구름과도 같이 파란색과 흰색타일로 단장한 산뜻하고 아담한 4층짜리 건물이 눈앞에 나졌다.

도자기공장이라고 해서 부지면적이 굉장히 큰 단층건물일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예상외로 부지면적도 얼마 크지 않은데다가 여러층으로 된 건물이여서 참 놀라웠다.

보통 도자기를 생산하는 요업공장이라면 넓은 부지를 차지한 단층건물이 생각된다. 그것은 위생자기생산이 원료공정으로부터 완성단계에 이르기까지 부피가 큰 중량물과의 씨름인것으로 하여 생산공정들사이의 련결이 운수수단에 의해 이루어지기때문이다.

하지만 이 공장에서는 4층으로 된 단 하나의 건물에서 모든 생산이 다 진행되고있었던것이다.

우리는 마중나온 공장일군의 안내를 받으며 공장안의 여러 작업장들과 제품견본실에도 들려보았다.

공장안에 들어서니 훈훈한데다가 얼마나 깨끗하고 정갈한지 정말 여기가 도자기를 빚고 구워내는 공장이 옳긴 옳은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초겨울에 들어서 여느때없이 쌀쌀한 날씨인데도 건물안의 작업장들에서 로동자들은 가벼운 여름옷차림으로 일하고있었다.

생산공정들이 집약화되고 자동화된 설비도입으로 깨끗한 작업환경에서 적은 인원으로 일을 헐하게 하는 작업장들도 그러했지만 건물안에 소성로를 쌓은것이, 그것도 2층에까지 소성로를 쌓은것이 어디서도 볼수 없는 특이한것이였다.

이 공장의 소성로운영기술은 정말 내놓고 자랑할만한 기술이라고도 말할수 있었다. 현재 공장에서는 적은 전력으로 여러기의 소성로들을 콤퓨터에 의한 자동조종으로 가동시키고있다.

공장의 내부를 돌아보고 공장건물옆에 자리잡고있는 나래도자기전시장에 들어서니 각종 위생자기와 화분을 비롯한 도자기제품들이 꽉 들어찬것이 우리의 눈길을 끌었다.

우리를 안내하던 일군이 한곳에 나란히 놓여있는 위생자기들을 가리키며 말하였다.

《이것은 우리 공장 제품이고 옆의것은 다른 나라 제품입니다. 도자기분야에선 제노라고 하는 나라의 독점물이였지요.》

보니 종류는 서로 같았다. 하지만 확실히 모양도 색도도 우리의것이 더 좋아보였다. 편심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하지만 제품겉면의 매끈도차이로 하여 나타난 현상은 정말 대조적이였다.

《겉을 보아서는 진짜 좋은 점을 다 알수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안내하던 일군은 실지 사용과정을 가상한 대비시험까지 해보이더니 이렇게 덧붙였다.

《<나래>위생자기는 우리의것이니 가격도 1/8정도밖에 안된답니다.》

편리성과 미학성이 보장되고 경제와 사회발전이 록색화로 나아가는 세계적추세에 맞게 물절약형, 자원절약형, 건강보호형으로 설계제작된 위생자기들은 미학적측면에서도 손색이 없었고 형태와 구조적측면에서 최적화되여 일반위생자기에 비해 가벼운 그야말로 명제품들이였다.

화분전시장에서 우리의 놀라움은 더 커졌다.

타원형부각무늬화분과 국화무늬백자화분…

선명하고 우아하며 부드러운 색조화며 친근감이 느껴지는 경쾌하고 아름다운 형태, 섬세하고 세련된 무늬장식으로 하여 하나하나가 화분이라는 단순한 제품이라기보다는 예술작품처럼 안겨왔다.

《재간들이 이만저만 아니구만요.》 하는 말이 절로 나왔다.

생산건물도 특색있었고 그리 크지도 않은 공장에서 거의 100%

우리의 기술, 우리의 원료에 기초하여 세계적수준의 위생자기와 장식화분들을 해마다 수많이 생산해낸다는것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였다.

얼마후 우리는 기술준비실에서 새 제품개발을 위한 모형창작에 여념이 없는 지배인과 마주앉았다.

많은것을 보고 배웠다고, 정말 작고도 큰 보배공장이라는 우리의 말에 그는 아직 할 일이 더 많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것이였다.

《세계에 이름떨친 훌륭한 도자기력사와 문화가 있고 풍부한 도자기자원을 가지고있는 우리 조선사람들이 남보다 무엇이 모자라서 도자기를 세상에서 제일 잘 만들지 못하겠습니까.

사실 어릴적에 꿈많은 <도자기소년>이였던 저를 보고 도자기를 위해 태여났다고, 성공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래>도자기는 결코 어느 한두사람의 손재간이 낳은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되여 위생자기개발에 달라붙게 되였습니까?》

《제가 새로 조직된 요업생산조 조장이 되여 위생자기개발에 결심품고 달라붙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한 지배인은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사실 위생자기는 사람들이 살아가는데서 없어서는 안될 필수적인 수단이며 실용성과 예술성이 결합될 때에야 진짜 도자기제품이라고 할수 있다.

위생자기는 사람이 살아가는데서 누구에게나 반드시 필요한것이다.

때문에 지금 세계적으로 한해에 위생자기판매액이 1 000여억US$나 된다고 한다.

질좋은 위생자기를 많이 생산하는것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간곡한 유훈이였다.

하지만 당시까지만 하여도 우리 나라에서 생산되는 위생자기는 질이 낮아 사람들의 수요가 높지 못하였다.

정말 가슴이 아팠다.

우리 나라는 벌써 수천년전에 도자기로 세계에 이름을 떨친 나라이다. 풍부한 원료가 있고 훌륭한 력사와 전통이 있고 슬기로운 선

조의 후손들이 사는 이 땅에 남의 도자기가 들어온다는것은 도대체 말도 되지 않는 일이였다.

더우기 그는 대성요업공장에서 일하면서 만든 빨간색의 꽃병을 비롯하여 우리 나라 도자기에 대한 수요가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때 외국인들속에서 대단히 높은것을 직접 목격하였었다.

그때 일본대표단이 그 꽃병을 특별히 많이 사갔다는것, 일본에서는 도자기에 대한 수요가 높아 우리 나라를 강점하고있을 때에도 수많은 도자기들을 훔쳐갔으며 임진왜란때 일본에 끌고간 도자기기술자들을 밑천으로 세계의 도자기공업분야에서 큰소리를 치고있다는것을 알고는 경악을 금치 못하였다.

어린 나이에도 자존심이 꿈틀거려 일본을 누르고 기어이 세계를 압도할 야심을 품게 되였다.

도자기공장을 건설할 때에는 도자기생산의 공업화에 대한 표상이 없었던 우리 일군들이 어느한 나라의 도자기공장에 참관을 의뢰하였다 문전거절을 당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다.

피가 끓어오르고 민족적자존심이 꿈틀거렸다.

다시는 남에게 구걸하지 않으리라는 강심을 먹고 일군들은 종업원들과 함께 우리 식으로 도자기공장현대화를 결단코 실현하기 위한 사업에 달라붙었다.

위생자기생산은 그 가능성여부를 뛰여넘어 조선사람의 존엄을 걸고 반드시 해내야 할 운명적인 과제로 되였다.

우리가 남보다 무엇이 모자라서 위생자기를 잘 만들지 못하겠는가. 질적측면에서 세계를 압도하여 우리 땅에서 우리 손으로 기어이 수입산 위생자기들을 몽땅 밀어내자.

우리의 위생자기가 세계에서 판을 치게 하자.

도자기생산자들의 몸은 비록 좁은 수십㎡의 작업장에 있었으나 그들은 세계와 경쟁할 목표를 높이 내세웠다.

그 과정은 자체의 힘으로 모든것을 해결해내겠다는 자력갱생의 정신력을 키우고 자력갱생만이 살길이라는 철리를 뼈에 새기는 과정이였다.

그때 생산조는 불과 7명에 불과했지만 이렇게 첫시작부터 야심찬 목표를 내걸고 그야말로 세계에 도전해나섰다.

모든것이 생소했던 생산조에서는 전국적으로 이름있는 도자기기술자, 기능공들을 찾아내고 그들의 기술과 경험을 생산에 받아들이는것으로부터 첫걸음을 내디디였다.

당시 모든 작업이 수공업적방법으로 진행되였지만 남의것보다 월등한것을 기어이 만들어내야 한다는 정신 하나만은 확고했다.

위생자기분야에서 발전했다고 하는 나라들의 기술을 조선사람의 체질에 맞게 우리 식으로 받아들이기 위해 애썼고 적중한 원료들을 찾아내기 위해 피타는 노력을 기울였다.

지금은 제품을 소성할 때 그것을 대차에 넣어 로에 넣었다꺼냈다 하지만 그때에는 사람이 뜨거운 로안에 들어가 제품을 쌓아놓고 소성을 했으며 로를 식히는 시간이 아까워 겨울모자와 솜옷으로 온몸을 가리우고 백수십℃를 오르내리는 로속에 뛰여들어가 제품을 들어내오면서 우리 식의 위생자기생산분야를 한치한치 개척해나갔다.

간난신고하여 3년후에는 전국위생자기품평회에 그들이 개발한 위생자기들을 출품하였는데 반향이 참으로 컸다. 우리 나라에 이렇게 수준있는 위생자기를 만드는 단위도 있는가고 모두가 놀라와하였으며 그들이 내놓은 제품이 높이 평가되였다.

이때부터 공장은 국내위생자기생산부문에서 기술적으로 상당히 앞선 순위를 차지하는 단위로 알려지기 시작하였으며 2012년 창전거리 건설때에는 여러 단위들가운데서 국가설계의 요구에 부합되는 위생자기를 만들수 있는 단위라는 인정을 받고 건설에 필요한 수많은 위생자기를 전량 맡아 생산보장하여 수입에 의존하지 않고도 자체의 힘으로 위생자기문제를 해결할수 있는 돌파구를 열어놓았다.

세계를 앞서나가려는 도전정신으로 비약해온 공장의 력사를 감동깊이 들으며 야심찬 목표를 내세우고 돌진하는 지배인의 개척정신에 머리가 숙어졌다.

《우리 나라에 도자기를 생산하는 공장들이 많지만 지금 새로 건설되는 건축물들마다에 이 공장 제품들이 기본적으로 설치되고있는것

같은데 정말 보람과 긍지가 이만저만 아니겠습니다.》

《돌이켜보면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믿음이 아니였더라면 오늘의 우리 공장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었을것입니다.》

지배인은 공장의 발전행로에 깃들어있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에 대해 젖어드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해주었다.

언제인가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와 원산육아원, 애육원에 설치한 《나래》상표를 단 위생자기들을 보시고 다른 나라에서 생산한것 못지 않게 질이 아주 좋다고 치하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그후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공장에서 생산한 위생자기들을 보아주시며 잘 만들었다는 과분한 평가를 주시였다.

주체108(2019)년 11월 어느날 양덕온천문화휴양지건설장을 찾으시였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스키장입구에 있는 기재대여홀에 전시된 나래도자기공장에서 생산한 제품들을 보아주시였다.

그이께서는 《나래》상표를 단 위생자기들이 볼만하다고, 대단하다고 과분한 평가를 안겨주시였으며 《나래》상표를 단 제품과 세계적으로 유명한 다른 나라의 제품을 대비적으로 동작시켜 보게 하시고는 우리의것이 더 좋다는것을 확인하시고 만족한 미소를 지으시였다.

그러시고는 위생자기분야에서 발전되였다고 하는 나라들을 디디고 올라설 야심만만한 투지를 가지고 사업을 전개할데 대하여, 《나래》위생자기분야를 개척한 그 정신, 그 기백을 가지고 달라붙으면 못해낼 일이 없다고, 정신력이 최상이면 그 정신력으로 만든 제품도 첨단으로 세계를 딛고 우뚝 올라설수 있다는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다.

자자구구 되새길수록 제품의 질을 최상으로 보장하기 위한 투쟁은 생산자대중의 정신력에 관한 문제이라는 진리가 심장을 파고들었다.

누구나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은 세계를 내다보며 최상의 질이 담보되는 우리의것을 만들어내려는 강한 정신력을 지닐 때 어려움을 뚫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제품을 만들어낼수 있으며 우리 조

국은 부흥번영하게 되는것 아니랴.

정신력이 최상이면 그 정신력으로 만든 제품도 첨단으로 세계를 딛고 우뚝 올라설수 있다!

이를 어찌 나래도자기공장 일군에게만 주신 가르치심이라고 하랴.

이는 오늘 인민을 제일로 위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뜻을 받들고 질제고를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는 이 땅의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매일 매 시각 되새겨보아야 할 더없이 고귀한 지침이였다.

남의것이 아닌 우리것, 낡은것이 아닌 새것을 더 많이 창조하려는 각오와 열정, 난관과 실패앞에서도 동요하지 않고 창조와 혁신의 한길로 굴함없이 나아가는 그러한 정신력은 어디서 분출되는것이겠는가.

그것은 나서자란 조국에 대한 끝없는 사랑, 자기의 고향과 일터에 대한 열렬한 애착, 길가의 조약돌 하나, 풀 한포기도 무심히 대하지 않고 그것을 나라의 재부로 전환시키려는 소중한 마음에서부터 샘솟는것이다.

가슴속에 이런 애국의 마음이 든든히 자리잡고있을 때라야 하나의 건물을 일떠세워도, 한가지 제품을 생산하여도 그것이 조국의 부강번영에 실지 이바지하는 새롭고 완벽한 창조물로 되게 할수 있다.

주체108(2019)년 11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나래》위생자기의 우점을 헤아려주기도 하시고 공장일군들의 좁은 안목도 헤아려 세계적 추세에 대하여 알려주시며 우리도 그런것을 만들어야 한다고 일깨워주기도 하시였다.

아직도 수입에 의존하고있는 부속품생산공정을 꾸려 위생자기생산을 100% 국산화할수 있는 방향도 가르쳐주시며 그 생산공정을 꾸리는데서 제기되는 문제도 즉석에서 풀어주시였다.

격정에 못이겨 임무만 주시면 무엇이든지 다 만들어내겠다고, 공장에서는 지금 높은 목표를 제기하고 세계적으로 도자기공업이 발전된 나라들과 경쟁하고있다고 말씀올리는 지배인을 정겹게 바라보시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도자기생산을 세계적수준으로 끌어올려 조선

사람의 본때를 보여주리라 믿는다는 크나큰 믿음의 말씀도 주시였다.

못잊을 그날에 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고귀한 가르치심을 심장에 새겨안고 그는 공장종업원들과 함께 우리 인민의 기호에 맞을뿐 아니라 100% 우리의 기술과 원료에 의거한 우리의 위생자기를 더 많이, 더 질높고 보기도 좋게 생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함으로써 제품의 질제고에서 또 한번 크게 비약할수 있었다.

절세위인의 이렇듯 한량없는 사랑과 믿음속에 평범한 삶이 영광과 행복의 최절정에서 한껏 빛을 뿌릴수 있게 된것이다.

《<나래>상표이름이 참 좋습니다. 어떻게 되여 상표이름을 <나래>라고 달게 되였습니까?》

《처음에 우리가 만든 제품에는 상표이름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상표이름을 달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나의 물음에 이런 말로 대답한 지배인은 그때를 돌이켜보았다.

공장이 어느 정도 체모를 갖추게 되고 생산도 활성화되여갈무렵 국제화초전시회에 참가할 기회가 생겼다.

화초는 화분과 뗄수 없는 관계에 있는지라 화초와 함께 화분에 대한 전문가들의 등수평가와 소개선전도 동반하는 그 전시회에 대표단은 공장에서 만든 장식화분을 몇개 가지고 가게 되였다.

그런데 전 세계의 수많은 화초전문가들이 모여든 그 전시회에서 우리 대표단이 가져온 장식화분을 본 많은 사람들이 엄지손가락을 내들며 1등으로 추천하였지만 상표가 없는것이 문제였다.

그래서 상표이름을 《나래》로 달게 되였다.

《나래》!

도자기는 돌과 흙으로 만든다. 하지만 공장사람들은 이것이 단순한 돌과 흙의 화합물이 아니라 자기들의 꿈과 리상의 응결체라고 말하고있다. 그러고보면 《나래》라는 이름은 세계를 딛고 힘차게 날아오르고싶은 공장로동계급의 지향과 일맥상통한데가 있는 참 좋은 이름이라고 생각되였다.

이렇게 되여 오늘 높은 품질을 자랑하는 위생자기와 여러 화분들과 더불어 온 나라에 소문난 《나래》상표가 생겨나게 되였던것이다.

이야기를 듣고보니 《나래》상표에 깃든 이 공장의 리념이 새로운 의미를 가지고 안겨왔다.

원래 《나래》라는 말은 어떤 일을 할수 있는 힘과 용기를 비교해 이르는 말이다. 공장의 리념이 바로 이 두 글자에 그대로 함축되여있었다. 공장의 야심만만한 정신력과 집단의 단합을 의미하였던것이다.

공장에 필요한것은 어떻게 해서나 우리의 머리로 착상하고 우리의 손으로 만들어내자!

우리의 원료로, 우리의 기술로!

우리 인민의 미감에 맞는것이 곧 세계적인것이라는것이 공장이 세계와 경쟁하는 기준으로 되였다.

견본모방형이 아니라 개발창조형으로!

바로 이것이 공장사람들의 창조와 건설의 출발점이였다.

우리의 도자기로 세계적인 패권을 쥐자!

지금도 이것은 공장이 내세운 중요한 경영방법의 하나로 되고있다.

이 공장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도자기를 성공시키기까지 정말 시련과 난관이 많았다.

하지만 이들은 우리 민족의 넋이 깃들어있는 도자기를 세상에서 제일 훌륭하게 만들어내여 민족의 존엄과 슬기를 만방에 떨치겠다는 포부와 리상을 안고 언제 한번 비관하거나 동요하지 않았다.

모두가 아글타글 노력한 결과 원료와 설비를 국산화할수 있었고 10년전에 비해 생산량은 30여배로 장성하였을뿐 아니라 수백여개의 중요건설 및 개건대상에서 요구되는 각종 위생자기와 화분들을 생산보장할수 있게 되였던것이다.

취재를 마치고 공장을 나서느라니 갈래없는 생각이 꼬리를 문다.

사람은 누구나 성공을 희망한다.

누구에게나 포부와 리상, 그 실현을 위한 뚜렷한 목표가 있을것이다.

좋은 책을 쓰고싶으며 유명한 과학자나 체육인이 되여 나라에 크게 이바지하겠다고 생각하며 꿈을 키울것이다.

하지만 그 꿈을 이루자면 이러저러한 난관이 가로막거나 뜻밖의

좋지 못한 환경에 부딪칠수도 있다.

그때 만약 난관을 이겨내지 못하여 주저앉아버린다면 꿈을 이룰 수 없다.

이 세상에 넘지 못할 한계점이란 없는것이다.

전진의 길에 부닥치는 난관앞에 주저앉아 한탄만 하는 나약한 사람이 아니라 반드시 해낼수 있다는 신심을 가지고 실천하는 강자가 되는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신심과 용기는 따뜻한 사랑과 믿음을 기초로 한다.

정말이지 경애하는 원수님의 따뜻한 사랑과 믿음이 없었더라면 제아무리 야심이 크고 목표가 높다한들 어떻게 나래도자기공장의 오늘에 대해 이야기할수 있겠는가.

그런데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2022년 2월 박성민지배인에게 로력영웅칭호를 수여하도록 해주시고 뜻깊은 태양절을 맞으며 보통강강안다락식주택구의 살림집을 배려해주시는 하늘같은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사랑과 은정을 가슴깊이 새기며 박성민지배인은 나라의 부강번영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는 만년대계의 애국공장, 민족의 넋과 정기가 살아숨쉬는 도자기공업을 더 높은 수준에 끌어올리기 위해 오늘도 피타는 사색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자기의 불타는 정열과 이악한 노력으로 위생자기분야에서 확고하게 세계를 앞서나가는 그의 열정적인 모습은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있다.

이 땅에 사는 매 인간들이 그처럼 피타는 실천으로 자기 부문, 자기 분야에서 단 한가지씩이라도 세계를 눌러디딜수 있는 소중한 창조물을 내놓는것이 바로 참다운 애국이라는것을!

첨단으로 비약하는 상승궤도우에 확고히 올라선 나래도자기공장 로동계급은 앞으로도 약동하는 기상과 무한한 자신심에 넘쳐 힘차게 나래쳐갈것이며 대를 이어 영원히 강자의 전통을 빛내여 나갈것이다.

《나래》도자기, 그것은 자기의것에 대한 열렬한 애착과 세계를 디디고 오르려는 야심이 낳은 열매였고 그 밑바탕에 깔려있는 열렬한 애국의 마음과 마음들이 하나가 되여 안아온 고귀한 창조물이였다.

나래도자기공장을 떠나는 우리의 귀전에 박성민지배인의 목소리가 메아리마냥 울려왔다.

《세계에서 우리 나라 도자기가 판을 치게 하자는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도자기를 처음 만들던 때의 정신으로 분발하고 분발하고 또 분발하겠습니다.》

《석개울의 새봄》의 조맹원

(전 TV극창작사 인민배우 방석운)

주체110(2021)년 9월 공화국창건 73돐 경축행사장의 주석단에는 이채로운 광경이 펼쳐졌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어느한 방송원과 방석운을 량옆에 세우시고 환하게 웃으시며 담소도 나누시는것이였다.

사람들은 전 TV극창작사 배우였던 방석운이 백발을 머리에 이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바로 곁에서 행복에 겨워 웃고있는 모습을 놀라움과 부러움속에 바라보았다.

(《조맹원》은 얼마나 좋을가!)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앞에서 로력혁신자, 공로자들과 영광의 기념촬영을 할 때에도 방석운을 자신의 가까이에 세워주시였다.

더욱 놀라운것은 그가 다음해에 준공된 희한한 경루동 다락식주택구의 새 살림집을 받아안은것이였다.

사람들은 이제는 70살도 훨씬 넘어 배우생활을 그만두고 집에 들어온지도 오래되였을 그가 어떻게 되여 만사람의 부러움을 자아내며 영광의 단상에 올라섰는가 하는 의문을 좀처럼 풀수가 없었다.

그도그럴것이 방석운으로 말하면 사람들속에 자기의 본래 이름보다도 간첩 조맹원을 비롯하여 너무도 악랄하여 치를 떨 정도의 부정역형상으로 깊은 인상을 남기였기때문이였다.

우리도 그 의문을 풀고싶어 2023년 4월 어느날 경루동에 대한 취재길에 올라 그가 살고있는 집에도 들려보았다.

경루동입구에 특색있게 일떠선 높은 아빠트의 2현관 3층 2호가 그의 보금자리였다.

방석운과 그의 안해가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었다.

TV에서만 보아오던 그를 이렇게 만나고보니 80고개를 눈앞에 둔 그가 부정역형상으로 사람들의 치를 떨게 하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인자한 할아버지같은 느낌이 들었다.

《축하합니다. 새집에 온 감정이 어떻습니까?

경애하는 원수님의 남다른 신임속에 새집에 왔으니 아마 감정이 더 류다르겠지요?》

우리의 물음에 방석운이 그날의 감격을 돌이켜보며 이렇게 이야기하였다.

《저도 정말 꿈만 같습니다.

사실 영화부문에서 오래동안 있으면서 긍정역형상을 잘해서 인민들의 기억속에 남은 배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에 비해볼 때 특별한 공로도 없이 악독하고 교활하기 그지없는 부정역형상으로 사람들의 기억속에 남은 제가 이런 희한한 곳에 왔다는것이 어쩐지 좀 죄스러운감이 들었습니다.

새집에 들어와서 열흘동안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 집이 정말 내 집이 옳긴 옳은가 해서 말입니다.

로친네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집의 위치도 좋고 경치도 좋으니 정말 복을 받았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생말년에 정말 받을수 있는 복은 다 받아안았습니다.

이 집에 와서 특별히 좋아하는것이 맏며느리입니다.

현대적으로 편리하게 꾸려진 부엌에부터 들어서서 가스곤로도 켜보고 더운물이 나오는 수도꼭지도 틀어보며 너무 좋아 말이 아닙니다.

모두가 부러워하는 이 궁궐같은 희한한 집에서 오래오래 살게 되였으니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경애하는 원수님 덕분에 자기들이 복락을 누리게 되였다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른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방마다 있는 스위치 하나에도 깊은 관심을 돌리시며 아이들이 전기코드를 만지다가 사고가 날수 있으니 꼭 덮개를 만들어주도록 하신데 대해서 전해듣고 어쩌면 그리도 세심하실가

하는 생각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날마다 이어지는 크나큰 사랑과 배려속에 우리가 살고있습니다.

우리가 이 집에 이사온 다음 한달동안은 집구경을 오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집구경오는 손님들을 동사무소에서도 <조맹원>이네 집에 가보라며 보내군 하였다는데 하루에 30～40명까지 왔던적도 있었답니다.

우리 집에 오는 사람들마다 공동살림방의 벽면에 모셔져있는 백발을 머리에 인 제가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찍은 기념사진을 보며 감탄과 부러움을 금치 못해합니다.

그때마다 저도 너무나 꿈만 같이 찾아왔던 행운의 그 시각을 감회깊이 돌이켜보군 합니다.

사실 저는 현직에 있는 영화인도 아니였습니다.

70살이 넘어 집에 들어오면서 영화인으로서의 내 인생도 그냥 이것으로 끝나는구나 하고 생각하니 섭섭한 마음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주체110(2021)년 3월 어느날 저는 뜻밖에도 경애하는 원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였습니다. 일군을 따라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 들어선 저는 너무도 놀라와 발을 옮겨디딜수가 없었습니다. 발이 움직여지지 않았던것입니다.

겨우 마음을 다잡고 경애하는 원수님앞에 다가가 정중히 인사를 올리였는데 그이께서는 긴장된 저의 마음을 풀어주시려는듯 <조맹원>이가 왔다고 하시며 즐겁게 웃으시는것이였습니다.

그날 그이께서는 저의 건강상태를 하나하나 물어주시고 현대적인 중앙병원에서 치료를 받도록 해주시는 은정깊은 배려를 돌려주시였습니다.

현직에 있는 배우들에 대해서도 료해하시며 한명한명 이름까지 찍어가시던 그이께서는 그들에게 자신의 인사를 전해달라고 말씀하기도 하시고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의 로동계급편에서 직맹부위원장이 진응산을 보고 과거로 돌아가서 입당보증을 받아오라고 한 대목을 비롯하여 여러 장면들도 회고해주시였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사랑의 기념사진도 남겨주시였던것입니다.

생각할수록 고목에 꽃을 피웠다는 말의 의미가 새롭게 안겨오고 글에서만 보아오던 이 말이 제 생활의 체험으로 되리라고 어떻게 상상이나 할수 있었겠습니까.

정말이지 저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자애로운 품속에서 환생의 봄을 맞았습니다. 그이께서 고목에 꽃을 피워주시였습니다.》

《우리도 정말 부러웠습니다. 공화국창건 73돐 경축광장 주석단에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곁에 서있는 최상최대의 영광을 받아안은것을 보고 말입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그날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 로력혁신자, 공로자들과 함께 저도 불러주시였습니다.

대를 두고 길이 전할 자애로운 어버이의 사랑속에 인생의 가장 영광스럽고 행복한 자리에 초대된 저희들의 무한한 감격과 환희를 무슨 말로 다 표현할수 있었겠습니까.

응당 해야 할 일을 한 저희들을 조국과 인민앞에 가장 값높이 내세워주시는 그이를 격정의 눈물속에 우러르며 우리는 <만세!>의 환호를 터치고 또 터치였습니다.

그이께서는 가사보다 국사를 먼저 생각하고 궂은일, 마른일 가림없이 한몸을 내대며 조국의 큰 짐을 하나라도 덜기 위해 헌신분투하는 애국자들이라고 높이 치하하시며 저희들을 사랑의 한품에 안으시고 뜻깊은 기념사진도 찍어주시였습니다.

기념촬영에 이어 그이를 모시고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정원에서 성대한 경축연회가 진행되였는데 자애로운 어버이를 모시고 한식솔의 정을 나누며 꿈같은 행복의 시간을 보내는 참가자들의 격정과 환희가 연회장에 차넘쳤습니다.

그때에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저를 몸가까이 부르시여 TV련속소설 <석개울의 새봄>에서 조합소를 죽이는 조맹원의 역을 다시금 형상해보도록 하시고 저의 마음속고충도 헤아려주시였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해보라고, 부정역을 형상하기가 싫지 않았는가고…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솔직히 부정역을 형상하기가 싫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는 부정역을 더 잘 형상해야겠다는 생각이 듭

니다라고 말씀올렸습니다.

그이께서는 바로 그렇다고, 부정역을 잘 형상해야 긍정역이 살아난다고 말씀하시는것이였습니다.

그이의 말씀을 들으며 저는 적대세력들과의 치렬한 계급투쟁이 날로 첨예화되고있는 오늘날 부정역형상이야말로 자라나는 새세대들에게 계급적원쑤들의 악랄성과 교활성을 생동한 화폭으로 심어줄수 있는 산 교과서로 될수 있음을 절감할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정역형상과의 대비속에서 인민대중제일주의로 일관된 우리 사회제도의 우월성이 더욱 부각될수 있다는것을 말입니다.》

그의 말을 들으며 우리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부정역형상을 인상깊게 한 방석운을 영광의 단상에 높이 내세워주신 까닭을 다소나마 알수 있을것같았다.

《지금까지 부정역형상을 얼마나 했습니까?》

《사실 저는 지난 40여년간 배우생활을 하면서 부정역형상을 4편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50여편의 TV련속소설, TV극들에서 긍정역을 더 많이 수행했습니다.

제가 출연한 부정역이 TV련속소설 <석개울의 새봄>에서 인삼장사군으로 가장한 간첩인 조맹원역, 주체문학예술의 빛나는 총화작인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로동계급편)에서 간첩인 직맹부위원장역, <민족과 운명>의 속편인 <어제, 오늘 그리고 래일>에서 <치안대>인 염우태역 그리고 어느한 영화에서 동요분자역뿐이였습니다.》

《아니, 부정역에 4편밖에 출연하지 않았단 말입니까?! 그런데 어떻게 되여 사람들에게는 부정역전문배우처럼 생각되였을가요? 매 편의 부정역들이 너무도 강한 인상을 남겨서 그런가요? 역형상을 어떻게 하면 그렇게 생동하게 할수 있습니까?》

《전 솔직히 영화배우로 있으면서 리당비서나 기사장을 비롯한 긍정역들에 많이 출연하다보니 부정역을 하는 배우들을 항상 마뜩지 않게 보군 하였습니다. 배우라면 긍정역을 해야지 왜 부정역을 해가지고 사람들의 미움을 받겠는가 하는 생각에서였습니다.

그러던 나에게 부정역이 차례질줄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며 방석운은 처음으로 부정역을 맡던 때의 일을 돌이켜보았다.

그가 제일 처음 맡은 부정역이 TV련속소설 《석개울의 새봄》에서 조맹원역이였다.

어느날 연출가가 방석운에게 이번에는 부정역을 해보지 않겠는가고 하더라는것이였다. 그는 너무도 놀라 이때까지 긍정역만 했는데 어떻게 부정역을 하겠는가 하며 못한다고 그 자리에서 딱 잡아뗐다고 한다.

하지만 연출가가 너무도 끈질기게 부정역을 해보자고 하는 바람에 그럼 대본이나 한번 읽어보자고 하였다.

대본을 읽어보니 조맹원이라는자는 정말 인간이 아니였다. 증오스럽다기보다도 추물같고 장면장면이 저절로 격분을 불러일으켰다.

피가 끓어올랐다. 악독한 원쑤놈의 역형상의 세부에 저도 모르게 심취되였던것이다. 이렇게 되여 첫 부정역에 출연하게 되였다.

지금 생각해보면 연출가가 의도가 있었던것같았다.

TV련속소설 《석개울의 새봄》에서 리당비서의 친척인 인삼장사군이 간첩으로 나오는데 사람들이 이 TV련속소설을 볼 때 항상 긍정역만을 하던 사람이 간첩으로 나오리라고는 상상할수 없을것이라고 타산한데로부터 자기에게 부정역을 맡겼던것같다는것이다.

사건을 흥미진진하게 끌어가자면 부정역을 쉽사리 등장시키는 수법을 쓰지 않는것이 좋았기때문이였다. 관객들에게 간첩이 도대체 누구일가 하는 의혹을 많이 불러일으킬수록 거기에 끌려들어가기때문일것이다.

이렇게 만든 TV련속소설 《석개울의 새봄》은 대파문을 일으켰다.

특히 작품에서 개울에 빠진 소를 구원하는척하면서 오히려 죽게 만들고도 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떠밀며 열성분자처럼 행세하는 조맹원의 역형상이 사람들에게 깊은 여운을 남긴것같다.

그의 이야기를 듣고보니 그에게 천성적인 자질이 있는것같았다.

이 역을 방석운이 아닌 다른 사람이 수행했다면 그때에도 결과가 같았을가?!

아닐것같았다. 왜냐하면 인물선정은 객관이 보기에 생김새부터가 량면성이 전혀 눈에 알리지 않는 지극히 평범한 인상이여야 하며 긍정적인 열성분자흉내를 낼 때도, 교활하고 악랄한 나쁜 놈의 역을 할 때도 진실감이 푹 배여야 하기때문이다.

연출가가 그를 선정한 리유는 이제는 판을 좀 바꾸어서 관객들에게 새로운 느낌을 주게 하자는데도 있었겠지만 보다 중요하게는 긍정역을 많이 해본 사람이여서 이런 량면주의적성격을 진실하게 연기할수 있는 자질과 기질을 그가 충분히 갖추었다고 보았기때문일것이였다.

그와의 깊이있는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는 그것을 확신할수 있었다.

《어떻게 첫 부정역부터 성공작으로 만들수 있었습니까?》

《배우들은 일단 역을 맡으면 그 세계에 빠져들어가야 합니다. 자감상태에 푹 빠져들어 촬영 전 기간 자기 맡은 인물세계에서 말하고 행동하기 위한 피타는 노력이 있어야 역형상을 훌륭히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배우들은 긍정역을 맡았다면 긍정역을 더 훌륭히 수행하기 위해 생활세부들을 찾아 고심하는데 대본에 없는 생활세부를 찾았을 때에는 연출가와 토론하여 그 생활세부를 어떻게 써먹을것인가를 연구하여 영화를 더 기름지게 하는데 이바지한다.

부정역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역형상에 깊이 빠져들어 증오스럽고 악착스럽고 추물같은 세부들을 찾아내여 대본에 없어도 어떻게 하면 그 악랄성을 더 부각시킬수 있겠는가를 탐구하고 토론하며 역형상을 완성해나가야 한다.

모든 배우들이 자기 역인물에 대한 부단한 탐구로 기름진 화면, 명장면들을 창작하군 한다.

부단한 탐구심이 없이는 결코 성과작이 나올수 없는것이다.

그는 부정역을 형상한 영화나 TV소설에 4편밖에 출연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의 기억속에 한생 부정역만 하는 배우로 강하게 인이 박혀있다.

왜 그렇게 되였겠는가.

그것은 너무도 진실한 역형상때문이였다. 한편한편이 사람들의 머

리속에 강한 인상을 남기도록 연기하였기때문이다.

솔직히 그도 처음 TV련속소설 《석개울의 새봄》에서 부정역을 한 다음에 좀 놀라웠다고 한다. 한번도 해보지 않은 부정역의 자감상태에 어떻게 그렇게 깊이 빠져들수 있었는지…

소설에서 인삼장사군으로 가장한 조맹원이 자기의 본색을 드러내는 랭상모판 찢어놓는 장면을 촬영할 때였다. 촬영을 끝내고 세면하러 갔는데 어데선가 자꾸 피가 흘러 살펴보니 손에 길게 째진 자리가 나있었는데 거기서 피가 흐르고있었다.

생각해보니 랭상모판 비닐박막을 찢는 장면을 촬영할 때 자감상태에 얼마나 깊이 빠져들었댔는지 진짜 랭상모판을 파괴한다는 생각으로 역형상을 하다나니 그때 손이 째지는줄도 모르고 아픈 감각도 전혀 느끼지 못했던것이다.

소를 내리눌러 죽이는 장면에서도 그렇다.

원래 대본에는 조합원과 둘이서 멍에를 같이 드는것으로 되여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촬영현장에서 자감에 빠져들다나니 자기야 조합소를 죽이자는것이 목적인데 대본처럼 멍에를 들면 소를 살리겠다는것으로 안겨오지 않겠는가, 이것은 과제와 잘 맞지 않는다, 그러니 조합원이 멍에를 들 때 자기는 드는척하면서 내리누르면 간첩놈의 악랄성이 더 잘 나타날것같다고 하자 연출가도 긍정을 하며 한번 해보라고 하더라는것이였다.

그리하여 그런 장면이 생겨나게 되였는데 그 장면이 관중속에 너무도 깊은 인상을 주며 간첩의 악랄성과 교활성을 적라라하게 보여준것으로 하여 증오심을 불러일으켰다.

이렇게 영화의 한 장면, 한 장면이 배우의 자기 역형상에 대한 깊은 탐구심과 피타는 노력에 의하여 창작된것이였다.

그에게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로동계급편)에서 간첩인 직맹부위원장의 역이 맡겨졌을 때 그는 거기에 선뜻 동의할수 없었다.

그가 간첩인 직맹부위원장역을 맡게 되였다고 하니 자식들이 또 간첩으로 나오는가고 하면서 좋아하지 않았던것이다.

그애들은 군사복무를 할 때 TV련속소설 《석개울의 새봄》이 방

영될 때면 아버지가 역형상을 얼마나 악착하고 교활하고 추물같이 하는지 너무도 부끄러워서 혼자 밖으로 나오군 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자식들이 이제 또 간첩으로 나오면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겠는가고 하면서 제발 좀 그만두었으면 좋겠다고 하였다는것이다.

하지만 연출가는 그가 TV련속소설 《석개울의 새봄》에서 조합소를 죽이려는 간첩 조맹원의 역을 훌륭히 수행했기때문에 직맹부위원장으로 위장하고 전후복구건설시기 강선제강소(당시)에 잠입하여 대오의 통일단결을 파괴하기 위해 날뛰는 간첩역도 손색없이 할수 있을것이라며 주체적문학예술의 총화작인 《민족과 운명》을 창작하는데 꼭 필요한 적임자라고 하였다고 한다.

연출가의 말을 듣고보니 그러지 않아도 그 영화에 출연하는것이 소원이였던 그는 《민족과 운명》의 영화화면을 기름지게 할수 있는것이라면 그 어떤 역도 마다할수 없다고 생각하게 되였다.

자기 하나의 부끄러움, 자식들의 지청구때문에 위대한 장군님의 직접적인 지도에 따라 만들어지는 영화, 세계적인 명작으로 력사에 길이 남을 영화에 출연하지 못한다는것이 말도 되지 않았던것이다.

전후의 어려웠던 시기 강선제강소에 잠입하여 못된짓을 다한 나쁜 놈들때문에 나라가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는가. 이것을 력사적화폭으로 보여주는 역형상을 위해 목숨까지도 바쳐야 할판에 부끄러움이 무엇인가.

혁명은 바로 이런 정신적동요를 일으킨 저자신으로부터 해야 한다고 그는 생각하게 되였다.

그의 이러한 정신적앙양이 연기수행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둘수 있게 하였다.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로동계급편)에서 직맹부위원장역을 하면서 진응산에게 《과거로 돌아가서 보증을 받아오라.》고 뇌까리는 장면은 사람들을 대오에서 떼내려는 간첩놈의 교활성을 적라라하게 보여준것으로 하여 지을수 없는 깊은 인상을 남겼다.

물론 이 말은 배우의 창작이 아니라 대본에 있는 말이였지만 같은 말도 툭이 다르고 탁이 다르다고 얼굴표정과 행동 하나하나를 섬

세하게 연구하여 교활한 간첩놈의 진속이 드러나도록 형상하기 위한 그의 피타는 노력이 이런 명장면을 형상할수 있게 한것이다.

《부정역들에서 이런 명장면들을 진실하고 생동하게 형상할수 있었던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부정역을 수행하지 않으면 안되였던 평범한 배우의 남모르는 마음속고충과 수고를 누구보다 깊이 헤아려주시며 힘과 용기를 안겨주시고 인민배우로까지 내세워주신분은 바로 위대한 장군님이시였습니다.

언젠가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의 로동계급편 9, 10부를 촬영한 다음에 위대한 장군님께서 그 영화에 출연했던 우리 영화예술인들을 여러명 불러주신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부정역에 출연했던 저도 함께 가게 될줄 어찌 알았겠습니까. 너무도 놀라와 어안이 다 벙벙해졌댔습니다.

그때 긴장되여있는 저를 보신 장군님께서는 저의 마음을 풀어주시려는듯 간첩이 어떻게 왔는가고 유모아적으로 말씀하시는 바람에 저도 얼결에 <그러게 말입니다.>라고 말씀올렸습니다.

그리고는 너무도 무엄하고 외람된 저의 행동에 몸둘바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 대답이 걸작이라고 호탕하게 웃으시다가 저의 잔등을 두드려주시며 간첩으로 잠입한 직맹부위원장역을 잘했으니 올만하다고 따뜻이 교시하시는것이였습니다.

연기성과에 대한 치하로 굳어졌던 저의 마음을 풀어주신 그이의 교시에 저는 뜨거워지는 마음을 금할수 없었습니다.

직맹부위원장역을 잘하였다고 다시금 치하해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배우가 연기를 특색있게 잘하면 사람들은 배우의 본명이 아니라 배역의 이름대로 부르게 된다고 의미심장하게 교시하시였습니다.

배역이라는 립장이 아니라 실지 자기의 생활속이라는 관점에서 역형상을 하여야 한다는 타이르심이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의 로동계급편을 정말 잘 만들었다고 치하하시면서 영화에 출연하였던 배우들을 하

나하나 짚어가시며 평가해주시였습니다.

그날 연회까지 차려주시며 우리들의 성과를 축하해주시는 위대한 장군님께 축배잔을 올리는 자리에서 저는 <이번에 간첩역을 해서 장군님을 만나뵈웠는데 다음번에는 긍정역을 잘해서 장군님을 뵙겠습니다.>라고 말씀올렸습니다.

그러자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제 영화가 나가면 사람들은 방석운동무를 보고 <직맹부위원장>이라고 할것이라고, 앞으로 긍정역도 잘할것이라는 믿음의 교시를 주시였습니다.

그때 저희들은 영화에서 생활의 세부가 참 중요하다고, 국수를 누르는 장면에서는 국수가 먹고싶었다고, 강태관과 지배인은 동갑이가 아닌데 동갑이처럼 씨름을 아주 잘했다고 과분한 치하도 하여주시는 장군님의 교시를 자자구구 심장에 새기며 연기형상에서 생활의 세부를 더 풍부히 하기 위한 탐구에 열정을 다 바쳐나갈 결의를 굳게 다지였습니다.

어버이장군님께서는 제가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의 속편인 <어제, 오늘 그리고 래일>에서 부정역인 <치안대> 염우태역을 형상하였을 때인 2002년 2월에는 인민배우칭호를 수여하도록 하여주시는 크나큰 은정도 베풀어주시였습니다.

이렇게 걸음걸음 이끌어주시며 힘과 용기를 안겨주시고 믿음을 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사랑이 그대로 작품창작에서 성공할수 있는 요인으로 되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버이장군님의 사랑그대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2021년 공화국창건 73돐 경축행사에 로력혁신자, 공로자들과 함께 저를 불러주시고 오늘은 이렇게 제일 좋은 명당자리에 일떠선 궁궐같은 살림집까지 안겨주시며 인생의 복락을 마음껏 누리도록 하여주시였습니다.》

우리는 그의 이야기를 통하여 부정역형상의 의미를 새롭게 부각시켜주시며 사람들의 뇌리에 깊은 인상을 남긴 부정역형상배우를 그토록 인생의 최절정에 올려세워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깊고깊으신 뜻을 뜨겁게 새겨안을수 있었다.

오늘날 세대교체가 일어나고있는 현시점에서 제국주의자들의 침략

적본성과 교활성, 악랄성을 새세대들에게 심어주기 위한 사업이야말로 우리가 놓쳐서도 안되며 절대로 놓칠수 없는 매우 중요한 사업임을 부정역형상을 한 평범한 영화인의 삶이 다 말해주고있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인생말년에 고목에도 꽃을 피워주시고 인생의 최절정에서 복락을 누리도록 하여주신 그를 누구나 부러워한다.

그가 배우생활을 하는 기간부터 현재까지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찍은 기념사진만도 여러상이나 된다.

영광의 기념사진들은 그의 창작생활에 대한 값높은 평가이고 인생의 최절정에 올라선 끝없는 긍지이다.

취재를 마치고 어둠이 깃들기 시작한 거리에서 하늘의 별무리가 내려앉은듯 불빛찬란한 경루동살림집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은 세찬 격정으로 끓어번졌다.

청류관의 뱀장어구이료리전문가

(공훈료리사인 청류관 주방장 김철웅)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중구역 서문동과 모란봉구역 북새동 사이에 자리잡고있는 보통강강안다락식주택구에 동을 하나 내오고 평양에서 제일 아름다운 다락식주택구라는것이 상징적으로 안겨오게 이곳의 행정구역명칭을 《경루동》으로 지어주시였다.

경루라는것은 아름다운 구슬다락, 궁전을 비겨 이르는 말이다.

인민들이 살게 될 행복의 보금자리에 어울리는 이 세상 가장 훌륭한 명칭을 지어주고싶으시여, 앞으로도 이 땅이 영원히 인민의 행복만이 차넘치는 터전으로 빛나기를 바라시며 그이께서 한자한자 지어주신 《경루동》.

경루—아름다운 구슬다락!

호화살림집들이 늘어선 다락식주택구에 너무도 꼭 맞는 이름이다.

행복의 구슬다락 경루동에는 살림집들뿐 아니라 인민들의 생활에 리용될 편의봉사망들과 식당, 상점들도 구색에 맞게 배치되여있다.

경루종합편의, 경루국수집, 경루양복점, 경루식료품상점, 경루과일남새상점, 경루신문도서열람실…

경루동이 시작되는 첫 입구에 있는 아빠트밑에 경루국수집이 자리잡고있다.

경루동준공식과 함께 문을 연 이 경루국수집에서 만드는 국수가 얼마나 맛이 있던지 경루동주민들뿐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이 국수집을 찾는 손님들이 날마다 늘어난다고 한다.

우리가 이 국수와 인연을 맺게 된것은 경루동에 대한 취재길에서였다.

언젠가 평양건축대학 학부장선생의 집에 취재를 갔었는데 그때

안주인이 이 경루동국수가 소문이 났다며 꼭 한번 맛보라고 하는것이였다.

경루동의 특식이라며 식당에 주문하여 가져왔던것이다.

정말 맛이 있었다. 옥류관국수 못지 않았다. 국수가 어찌나 맛이 있었던지 어린애가 국수 한그릇을 다 없애고도 더 달라고 하는것이였다.

우리가 놀라움을 금치 못하자 음식타발이 심한 손주가 경루동국수라면 오금을 못쓴다고 학부장선생의 안주인이 웃으며 이렇게 이야기하였다.

《옥류관국수가 특별히 소문난것은 료리사덕이라는 말도 있듯이 이곳 국수의 맛도 역시 료리사의 손맛이 좋은가 봅니다.

아 참! 료리사말이 나왔으니 말이지 우리 경루동에 청류관의 유명짜한 뱀장어료리사도 있답니다. 아마 그에게도 이야기거리가 많겠는데 기자선생님들이 한번 꼭 찾아가보십시오.》

그 녀인의 느닷없는 권유가 계기가 되여 우리는 청류관에서 40여년세월 료리사로 일하고있는 김철웅주방장의 집을 찾게 되였다.

좀처럼 짬을 낼수 없는 그가 어쩌다 여유가 생겼다는 련락을 받고 지난 5월초 우리는 서둘러 취재길에 나섰다.

우리가 경루동안쪽의 소층아빠르에 위치하고있는 료리사부부의 집을 찾으니 마침 온 가족이 집에 있었다.

《안녕하십니까. 축하합니다. 경루동에 료리사부부도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왔습니다.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나라에 식당이 얼마나 많고 료리사들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 부부만이 이 희한한 호화주택을 배려받았습니다.

사실 이런 희한한 호화주택이 우리 료리사들에게까지 차례지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댔습니다. 어렵고 힘든 부문에서 혁신자로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부부는 나라를 위해 그 무슨 공적을 세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료리부문에서 뛰여난 료리솜씨를 가진것도 아닙니다. 단지 한

직종에서 40여년간을 일해왔다는것뿐입니다. 하루의 결근도 없이 자기 맡은 직무에 충실하여 인민봉사사업에 하나라도 이바지하기 위해 노력해온것뿐인데…

저와 같이 평범한 료리사가 이런 집에서 살게 되리라고 누군들 꿈에나 생각해보았겠습니까. 준공식에 참가하여 우리 원수님의 자애로운 모습을 뵈옵고 살림집리용허가증을 수여받은 날 친척들은 물론 청류관종업원들모두가 기뻐하며 축하해주는통에 온밤 잠을 이룰수 없었습니다.

궁전같은 우리 집에 들어섰을 때에는 이 집이 정말 내가 살 집이 맞는지 너무도 꿈만 같아 격정을 금할수 없었습니다.

풍족할 때 받아안은 사랑이였다면 이다지도 격정이 크지는 않았을것입니다.

그 어느때보다도 나라의 경제형편이 어려운 속에서 차례진 너무도 크나큰 사랑이여서 더욱더 가슴 울리는것입니다.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 이 은덕에 무엇으로 보답한단 말입니까.》

격정에 넘쳐 그들은 눈굽을 적시며 이야기했다.

공로자들을 위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다락식주택지구를 일떠세워준다는 소식을 접하고 과연 그곳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게 될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차마 료리사에 불과한 자기 부부가 그곳에서 살게 될것이라고는 꿈에서조차 생각 못했던 그들이였다.

그런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료리사들도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호화주택으로 불러주실줄이야…

부부가 다 료리사로 일하다보니 그들의 가정은 언제 한번 명절날, 일요일 같은 때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명절을 쇠여본적이 없다.

봉사부문은 명절날, 일요일봉사에 더 품을 들여야 하기때문이다.

그래서 자식들(아들, 딸)은 늘 저희들끼리 있는 때가 많았고 특히 명절날이나 일요일이면 부모들의 손목을 잡고 놀이터로, 친척집으로 좋아라 뛰여가는 다른 집 아이들을 부럽게 쳐다만 보고있어야 하였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미안한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였다. 그러면서도 미안하다는 말을 할새도 없었다. 아이들이 아침에 자리에서 일어나기도 전에 직장으로 향하군 하였기때문이다.

하지만 지금 그들의 자식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아시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제일이구나 하는 크나큰 긍지를 안고있다.

상업대학에 다닌다는 딸 김진주도 자기의 격정을 토로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린 새집에 이사온 날 잠을 다 못잤습니다.

이렇게 멋있는 호화주택이 정말 우리 집이 맞긴 맞는가 하고 보고 보고 또 보며 정말이지 마음을 진정할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군대에 나간 동생에게 사진을 찍어 보내주었더니 동생네 부대에서는 동생을 축하해주었고 동생은 정말 TV에서 보았던 보통강반의 그 희한한 살림집이 우리 집인가고 몇번이나 되물어보군 합니다.

온 부대사람들이 마치 저희 집이라도 되는것만큼이나 기뻐하며 축하해주는데 그럴수록 군사복무를 더 잘하여 아버지, 어머니처럼 조국앞에 떳떳한 생의 자욱을 남기겠다고 결의하군 한답니다.

저는 지금 상업대학에 다니고있는데 우리 학급동무들도 집구경을 와보고는 너무도 부러워 말이 아닙니다. 모두 이다음에 경루동에 시집, 장가를 왔으면 좋겠다고 야단입니다.

그때마다 이런 가슴벅찬 행복을 안겨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 무엇으로 보답할수 있을가 생각도 많이 하군 합니다.

이런 집에서 사는것만도 영광넘친데 날에날마다 배려가 더해지고 이 집의 구석구석마다에 깃든 원수님의 사랑을 가슴뜨겁게 절감하며 정말 감동이 큽니다. 부식물 한가지라도 더 안겨주고 생활상 불편한 점이 있을세라 세심히 보살펴주니 어찌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경루동주민들은 원수님 없으면 이런 행복을 누릴수 있겠는가고 한결같이 이야기하군 합니다. 별천지에 우리가 왔습니다.》

우리는 김철웅주방장에게 물었다.

《부부간이 다 료리사로 40여년간을 일하였다고 하던데 어떻게 료리사가 되였습니까?》

《1980년 청류관건설이 시작되던 당시 중학교졸업반이던 저와 처

는 졸업생들로 조직된 양성생으로 청류관에 뽑혔습니다.

말하자면 우리 부부의 료리사생활은 청류관의 력사와도 같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청류관건설이 끝난 다음 료리사로 일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청류관에 배치받아 전승각(지금의 평남면옥)에서 1년간 료리실습을 받고 청류관이 개관된 다음에는 이곳에 배치되여온 호텔료리사들에게서 배웠습니다.

그후 일하면서 장철구평양상업대학을 나왔습니다.

제가 료리에 관심을 가지게 된것은 누이덕분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누이가 료리사로 일하였는데 음식을 참 깨끗하면서도 맛있게 했습니다. 누이가 해주는 료리에 맛을 들여서인지 료리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였습니다. 식사때마다 음식들에 대해 평가하게 되고 이 료리는 좀더 맛있게 할수 있는것인데, 같은 값이면 왜 더 맛있게 하지 못했을가, 내가 좀더 맛있게 할수 있지 않을가 하는 생각이 들군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청류관양성생으로 뽑힌것이 은근히 기쁘기까지 하였습니다.

나도 사람들이 좋아하는 료리를 만들어 이름난 료리사가 될수 있지 않을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였습니다.

처는 주로 빵류를 기본으로 만들고 저는 고기료리, 물고기료리를 비롯한 온료리, 구이료리를 기본으로 만들었습니다. 한 직종에서 별로 한 일도 없이 올해까지 43년간 료리사로 일하고있습니다. 처도 40년간 같이 있다가 년로보장을 받고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김철웅료리사는 청류관으로는 빙상관과 체육관에 구경을 왔던 손님들을 비롯하여 체육인들이 여가시간에 많이 오고있다는것, 해외동포들도 조국에 오면 우리 청류관에 꼭꼭 들려 민족음식들을 들군 한다는것, 청류관에서는 뱀장어구이, 평양랭면, 록두지짐, 쉬움떡, 고기국밥, 떡국, 신선로와 전골을 비롯하여 민족음식들을 위주로 봉사하고있는데 신선로의 인기가 대단하다는데 대하여서도 긍지

에 넘쳐 이야기하였다.

《해마다 진행되는 료리경연에 참가해보지 않았습니까?》

《료리경연에 15차례나 참가하였습니다. 처음 료리경연에 참가해서는 경험이 없다나니 좋은 성적이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한번 참가해본 경험에 토대하여 준비를 착실히 갖추고 부단한 실기련습을 통하여 실력을 높인 다음부터는 료리경연에서 항상 1등의 자리를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구이료리를 기본으로 1987년부터 2000년까지 경연에 참가하여 계속 1등을 하였던것입니다.

언젠가는 금메달수상자들의 경기에서도 영예의 1등을 쟁취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광명성절을 맞으며 진행되는 료리경연들이 참 인상깊습니다. 그전에는 이미 만든 료리를 전시만 해놓고 사람들이 참관하는 형식으로 료리경연이 진행되였는데 언제부터인가는 료리사들이 직접 출연하여 참관자들이 보는 앞에서 료리를 직접 만들어서 평가하니 료리사들도 흥이 나했고 보는 사람들도 료리사들의 실기동작으로 많이 배우기도 하면서 점점 더 흥성거리게 되였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료리를 직접 만들면서 출연하면 정말 흥취가 난답니다.

저는 료리경연에 대체로 칠면조련밤구이, 닭고기호두구이, 오리고기버섯찜을 비롯한 온료리를 가지고 참가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1등을 하다나니 <온료리왕>이라고도 불리우게 되였습니다. 그래서 2005년 9월에는 공훈료리사칭호까지 받아안게 되였습니다.

저는 료리사직업을 아주 사랑합니다. 음식은 손맛보다 정성이라고 말하고싶습니다. 어떻게 음식에 정성을 기울이는가에 따라 료리의 맛이 살아나게 됩니다.

항상 새로운 료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데 사람들의 건강에 어떻게 좋은가 하는것을 기본으로 하여 소화흡수률과 치료효과를 따지면서 책을 많이 보고 부단히 연구하면서 새 료리를 창안하군 합니다.》

《청류관에서 소문난 뱀장어구이료리전문가라고도 하던데…》

《제가 무슨 전문가이겠습니까. 뱀장어료리 만드는 방법은 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가르쳐주신것입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뱀장어구이가 사람의 몸에 아주 좋다고, 뱀장어구이는 뱀장어료리에서 기본이라고 하시면서 뱀장어구이 만드는 방법도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였습니다.

그리고 뱀장어료리를 먹으면 여름에 더위를 타지 않기때문에 어느한 나라에서는 평민들도 삼복철에 값이 비싸지만 뱀장어료리를 한두번정도 사먹는다고 하시면서 평양시인민봉사지도국(당시)에서 뱀장어구이를 비롯한 여러가지 뱀장어료리를 잘 만들어 봉사하도록 은정깊은 배려를 돌려주시였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평양시민들은 물론 지방에서 오는 사람들도 뱀장어료리를 먹어볼수 있게 뱀장어를 책임적으로 보장하도록 해주시였습니다.

뱀장어료리는 전적으로 위대한 장군님의 뜨거운 인민사랑에 의하여 태여난것입니다.》

그의 이야기를 듣노라니 우리 인민들에게 뱀장어료리를 맛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바쳐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로고가 새삼스럽게 되새겨졌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에 일군들에게 뱀장어와 메기를 잘 기를데 대한 가르치심을 주시면서 뱀장어 기르기도 달라붙으면 할수 있다고, 실뱀장어를 잡아 다른 나라에 팔것이 아니라 길러서 우리 인민들부터 먹여야 한다고, 실뱀장어를 기르게 되면 뱀장어료리전문식당도 내와야 한다고 뜨겁게 이르시였다.

그리고 그후에는 평양시에 뱀장어료리전문식당을 내오고 주민봉사를 할수 있게 뱀장어양어를 확대할데 대한 가르치심을 주시고 뱀장어서식장능력확장에 필요한 자금보장대책까지 일일이 세워주시였던것이다.

주체99(2010)년 12월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뱀장어를 생산하는 공장을 찾으시여 뱀장어들이 욱실거리는것을 보니 기분이 좋다고,

이제는 인민들에게 뱀장어료리를 얼마든지 봉사해줄수 있을것같다고 그리도 기뻐하시였다.

그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뱀장어가격도 알아보시였는데 원가에 비하여 거저나 다름없는 가격으로 판매하고있다는것을 아시고는 너무나 기쁘시여 우리 나라에서 뱀장어공장을 운영하고 인민들에게 뱀장어료리를 봉사하고있는것은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만한 일이라고, 원가가 얼마나 들고 리윤이 얼마나 나는가 하는것을 따져가지고서는 뱀장어공장을 운영하거나 인민들에게 뱀장어료리를 봉사하기 곤난하다고, 그것은 오직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것을 자기 활동의 근본원칙으로 하고있는 우리 당만이 할수 있다고 뜨겁게 교시하시였다.

뱀장어는 기름이 많고 영양가가 높아 맛이 좋기로 이름높고 강장제로도 널리 쓰이는 영양 및 건강식품으로서 그 수요가 대단히 높았지만 양어하기가 대단히 말째고 원가가 많이 든다.

원가와 리윤을 제대로 따져도 하기 힘든 뱀장어양어인데 원가 대 판매가격이 엄청나게 차이난다면 그것은 분명 경제학적으로 볼 때 완전히 밑지는 기업이였다. 말하자면 세상사람들이 언제 가도 도저히 리해하지 못할 경영방식이라고 볼수 있었다.

이것은 인민을 위해서라면 타산을 앞세우지 않고 억만금도 아끼지 않으시는 위대한 장군님 아니시고는 누구도 해낼수 없는 《하늘의 별을 따오는 일》인것이다.

인민들에게 뱀장어료리를 먹이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깊은 관심과 현명한 령도, 뜨거운 사랑에 의하여 공화국에 뱀장어서식장이 훌륭히 꾸려지고 그렇게 생산된 뱀장어들이 오늘날 옥류관과 청류관, 류경릉라식당을 비롯한 봉사단위들에 공급되여 봉사에 리용되고있다.

그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인민들에게 맛좋고 영양가높은 물고기를 더 많이 생산하여 먹이자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이라고 하시면서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이미 나라의 이르는 곳마다에 메기공장들과 칠색송어양어장을 비롯한 수많은 물고기생산기지들이

꾸려졌으며 옥류관에서는 철갑상어료리와 자라료리 같은 희귀한 료리까지 만들어 봉사하고있다고 만족해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인민사랑을 그대로 이어나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풍치수려한 대동강반에 대동강수산물식당을 특색있게 일떠세우시여 철갑상어와 뱀장어를 비롯한 희귀한 물고기들과 자라로 료리를 만들어 봉사하도록 해주시고 현대적으로 웅장화려하게 꾸려진 식당에서 우리 인민들이 민족료리들과 함께 세계료리들도 맛보며 음식문화를 향유해나가도록 하여주시였다.

날로 늘어나는 새 거리들마다에 자리잡은 식당들에서는 어떻게 하면 인민들의 음식문화수준을 높이는데 기여하겠는가 하는 료리품평회들이 자주 진행되고 같은 감을 가지고도 더 맛있고 영양가있게 만들기 위해 료리사들이 고심어린 노력을 기울이고있다.

지금 TV로 자주 소개되는 료리상식과 료리만드는 방법, 료리경연소식은 우리 인민들의 음식문화수준을 높여주는데 적극 기여하고 있다.

절세위인들의 헌신의 로고를 돌이켜보느라 가슴들먹이는 우리에게 김철웅료리사는 희귀한 물고기인 뱀장어료리는 치료효과나 영양가, 입맛이 아주 좋아 청류관을 찾는 사람들속에서 호평이 대단하다며 한번 꼭 청류관에 와서 뱀장어구이를 맛보라고 하는것이였다.

하여 다음날 우리는 청류관으로 가게 되였다.

보통강반에 유정하게 솟아있는 청류관을 바라보느라니 몸소 식당의 이름도 지어주시던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자애로운 영상이 우렷이 안겨왔다.

주체70(1981)년 12월 새로 건설된 청류관에 나오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는 새로 지은 식당의 이름을 《청류관》이라고 짓는것이 좋겠다고, 식당이름을 《맑을 청》자와 《흐를 류》자에 《집 관》자를 붙여 《청류관》이라고 하면 우리 식이면서도 찾아오는 손님들의 입맛을 한결 더 돋굴수 있을것이라고 교시하시였다.

《청류관》!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교시를 조용히 듣고계시던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옥류, 청류》 이렇게 되뇌이시며 매우 만족해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우리가 청류관을 요란하게 지은것은 집을 자랑하자는것이 아니라 인민들에게 보다 큰 기쁨과 즐거움을 안겨주자는데 있다고 교시하시였다.

청류관이라는 식당이름에도 인민들에게 보다 큰 기쁨과 즐거움을 안겨주시려는 절세위인들의 뜨거운 인민사랑이 깃들어있음을 심장에 새겨안으며 청류관에 들어서니 김철웅료리사가 뱀장어료리 만드는 모습이 우리의 눈길을 끌었다.

펄펄 뛰는 뱀장어를 잽싸게 가공하여 즙을 바르면서 초벌 익혀낸 다음 양념장을 발라 로에서 구워내는 뱀장어구이는 그의 특기이다. 뱀장어구이에서는 양념장의 조성과 배합을 잘하는것과 함께 굽는 시간, 온도조절이 료리의 진맛을 돋구는 묘리라고 한다.

김철웅료리사는 조미료와 즙가공에서 새로운 방법을 창조하여 음식의 맛을 살리기 위한 연구사업을 진행하였는데 소화흡수에도 좋고 영양학적요구를 충분히 만족시키며 눈맛을 살리는것, 이것이 료리에서 그가 항상 내세우고있는 기준이라고 했다.

그는 즙가공에서 탕색에 남새를 넣는 방법대신 꿀과 향신조미료, 오미자즙을 넣어 구이의 맛을 살리고있다. 구이를 할 때 꿀을 넣는것이야말로 그가 창안한 새로운 음식가공방법이였다. 그렇게 하니 음식의 색갈과 윤기가 살아나 눈맛을 살리면서도 구이의 맛 또한 더 좋아졌다는것이다.

얼마쯤 시간이 지나자 뱀장어구이료리가 완성되였다.

노릿노릿하면서도 윤기가 나고 기름기가 배여나온게 눈맛도 좋았지만 그 맛은 정말 별맛이였다. 우리가 정말 맛있다며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자 그는 손님들이 자기가 만든 료리를 맛있게 드는것을 볼때가 제일 기쁘다고 하면서 인민을 위해 봉사하는것보다 더 기쁜 일은 없다고, 인민들에게 절세위인들의 사랑과 배려가 더 잘 가닿게 하는데 이바지할 봉사자의 자각을 안고 하나하나의 료리들을 명료리로 완성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하는것이였다.

취재를 마치면서 우리는 결코 감이 좋아서 명료리가 아니라 품

을 들이고 정성을 기울여야 명료리가 된다는것을 가슴뜨겁게 절감할 수 있었다.

그렇다.

오늘날 뱀장어구이가 명료리로 빛을 뿌릴수 있은것은 우리 인민을 이 세상 제일 행복한 인민으로 내세워주시려는 절세위인들의 뜨거운 인민사랑이 꽃피고 열매맺은것이리라.

대동력기지의 《수리개》

(공훈전력공인 평양화력발전소
열설비보수분사업소 연공작업반 반장 김태봉)

사회주의번화가 보통강강안다락식주택구를 구경이라도 해보자고 끝없이 물결치던 사람들의 발길이 어느 정도 뜸해진 2023년 2월중순 어느날 우리는 또다시 경루동취재길에 올랐다. 여러달동안 취재를 하다나니 구석구석까지 속속들이 밟아보지 않은 곳이 없지만 계절마다, 시간마다 보면 볼수록 너무도 황홀하여 올 때마다 경루동의 아름다움에 넋을 잃군 한다.

경치좋은 수도중심부의 보통강기슭 명당자리에 자연기복을 따라 다락식, 소층, 다층살림집들과 편의봉사시설들이 조화롭게 배치되여 특색있는 주택구를 이룬 경루동입구에 들어서면 산세를 그대로 살리면서 즐비하게 늘어선 아빠트들이 한눈에 안겨오고 걸음길과 차길들이 정교하게 뻗어있는데다 키낮은 나무들과 키큰 나무들이 조화를 이루어 세련되고 우아한 자연환경을 펼쳐놓은것이 마치도 한폭의 그림같다.

건물과 자연이 하나로 융합되고 생활공간과 생태공간이 최대한의 실리와 위생문화적인 환경을 보장해줄수 있도록 과학적으로 독특하게 구성된 보통강강안다락식주택구는 하나의 건축군으로서의 면모가 특색있게 살아있다.

비탈면과 안쪽면에는 보통강강안다락식주택구를 상징하는 두 얼굴이라고 말할수 있는 소층살림집들과 다락식살림집들이 나름대로의 멋을 자랑하며 늘어서있다.

흙막이벽이 화분대로 장식처리되고 흙막이벽웃쪽의 비탈면에는 잔디를 심고 나무들도 심었다. 건물들사이에 아담한 휴식터들이 꾸려

졌으며 도로에서 산비탈을 따라 올라갈수 있는 이채로운 소로길들을 여러개나 내주었다.

소로길 량옆에 아치모양의 덕대를 세우고 포도나무나 등나무 같은 덩굴나무를 심어 소로길입구가 문주처럼 보이면서도 살림집과 잘 어울렸다. 소로길 량옆에 경사면에 어울리는 소나무를 심은 곳도 있다.

건물들사이의 주변에는 전나무, 종비나무, 가문비나무, 이깔나무, 봇나무, 금잎회화나무, 금잎느릅나무, 붉은단풍나무 등 수종이 좋은 나무들과 꽃관목들, 관상적가치가 있는 돌들이 조화롭게 배합되여있다.

살림집들과 조화를 이루게 키큰 나무들을 2～3그루씩 듬성듬성 심고 걸음길주변에는 살구나무, 벚나무, 느티나무 같은것들을 심었다.

현관앞에는 장미를 심어 5월부터 11월까지 오래동안 관상적가치를 가지게 하였다.

그속에서 우리는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 수십년전 저택정원에 몸소 심고 가꾸신 한그루의 사연깊은 수삼나무도 볼수 있었다.

한그루의 나무, 한포기의 풀을 대하시여도 보다 아름다울 조국의 래일부터 먼저 생각하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는 생사를 판가리하는 전화의 나날에는 친히 화분에 심어가꾸시였고 전후에는 저택의 시험포전에 옮겨심으시여 우리 나라 기후풍토에 적응시키기 위해 심혈과 로고를 다 바치시였다.

그 수삼나무와 더불어 우리 나라에는 수삼나무재배의 새로운 력사가 펼쳐졌던것이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저택이 그대로 종합농사시험장이 되고 식물연구소가 되였으며 가금연구소로도 되던 나날들, 조국의 번영을 위한 설계도가 새라새롭게 태여나던 뜻깊은 시각들을 이 수삼나무는 모두 새겨안고있었다.

정말이지 경루동의 수삼나무는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애국애족의 성스러운 한평생을 전하며,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인민에 대한 열화같은 사랑과 헌신의 세계를 이야기하며 오늘도 서있다.

사연깊은 수삼나무와 함께 경루동의 나무와 꽃관목들에 푸른 잎

새들이 펼쳐지고 울긋불긋한 꽃들이 활짝 피여나면 자연경관이 한껏 살아나 주택구의 풍치가 더욱 멋있게 장식될것이라는 생각을 하니 마음이 절로 흥그러워졌다.

눈속에 묻혀 그것대로의 아름다움을 한껏 발산하는 보통강강안 다락식주택구의 황홀한 경관에 감탄을 금치 못하며 걸음을 옮기던 우리는 어느한 다락식주택의 현관앞에 서있는 나이지숙한 부부를 띄여보게 되였다.

아마도 이 경루동살림집의 주인들인것같았다.

우리는 그들에게로 다가갔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만나게 되여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의 인사말에 경쾌하게 울리는 음악소리와 함께 자동적으로 열린 현관문안으로 들어서려던 그들은 《집구경을 하려고 그러십니까. 어서 들어가십시다.》 하며 우리를 자기의 집으로 이끌었다.

아마도 우리가 집구경을 온 사람들이라고 생각한 모양이다.

그래서 우리도 더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들의 집에 들어갔다.

알고보니 그들은 김태봉 평양화력발전소 열설비보수분사업소 연공작업반 반장과 그의 안해인 전경란 평양화력발전소 전기보수직장 고압전동기수리작업반 로동자였다.

《아마 집구경을 오는 사람들이 많은가 봅니다.》

《예, 이젠 좀 뜸해지긴 했지만 처음 이 집을 받았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집구경을 왔는지 모릅니다. 친척, 친우들뿐 아니라 지어는 낯모를 사람들도 정말 많이 왔습니다. 먼곳에서 우정 이 경루동집을 구경하겠다고 오는 사람들도 있었고 이 주택구를 그냥 지나칠 수 없어 지나가던 길에 들렸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명절날이나 일요일 같은 때는 하루종일 집구경을 오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어지지 않아 저리 집문을 활짝 열어놓고있었답니다.

이 집을 구경한 사람들모두가 이 집에 와본것만 해도 정말 긍지스럽다고 하면서 이런 훌륭한 집을 받은 저희들을 축복해주었고 우리 동무들은 저를 보고 행운아라며 자랑으로 여기고있습니다.

정말이지 마음껏 소리높이 자랑하고싶습니다.

저희들과 같은 평범한 로동자부부가 2층으로 된 이런 희한한 집을 받았다는것이 아직도 꿈만 같아서 말입니다.》

김태봉의 말에 그의 안해도 부끄러운듯 수집어하며 한마디 하였다.

《정말 믿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궁궐같은 살림집을 무상으로 안겨주시다니…》

안해의 말에 김태봉은 희한한 경루동살림집에 입사하는 크나큰 사랑과 은정을 받아안은 공로자, 로력혁신자들가운데 자기와 같은 로동자들이 많다고, 정말 우리 세상은 로동계급의 세상이라는것을 다시금 절감하였다고 눈물속에 이야기하였다.

그리고는 자기들이 입사증을 받아안고 처음 이 집에 왔을 때 있었던 이야기도 들려주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110돐을 맞으며 준공식을 진행한 희한한 호화주택의 살림집허가증이 화력발전소의 연공에 불과한 자기에게 차례졌을 때 너무도 가슴이 벅차올라 이게 정말 사실인가 하고 자기 살을 꼬집어보기까지 하였다고 한다.

우리 나라에 어렵고 힘든 부문에서 일하는 로동자들이 얼마나 많으며 더우기 조국을 위해 큰일을 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평양화력발전소에만도 맡은 일에서 남다른 위훈을 세운 로력혁신자들이 많다. 전력생산에 이바지한 수많은 로력혁신자들에 비해볼 때 자기가 한 일은 너무도 적다고 생각한 그였다.

그런데 이런 크나큰 영광이 바로 자기에게 차례졌으니 그 감격을 무슨 말로 표현했으면 좋을지 몰랐다.

이들부부는 입사증을 받아안고 살림집을 건설한 군인건설자들의 안내를 받으며 집안을 돌아보았다.

현관문의 자물쇠는 카드식으로 열수 있게 되여있는데 출입문을 열고 집안에 들어서니 너무도 현란하고 황홀하여 입을 딱 벌리며 놀라움을 금할수 없었다.

2층으로 된 살림집의 여러 방들에는 생활에 편리한 모든것이 일

식으로 갖추어져있었고 모든것이 생활하기에 편리하게 꾸려져있었다.

랭온풍기가 설치된 넓다란 응접실의 한가운데 응접탁과 쏘파가 놓여있고 식사칸과 부엌이 개방되여있어 식사를 하면서도, 음식을 준비하면서도 TV를 볼수 있게 되여있었다. 부엌문을 열고 나가면 남새를 다듬거나 세탁을 할수 있는 세탁장이 달린 건조실이 있고 그 건조실을 나서면 주변경치를 부감하며 휴식의 한때를 즐길수도 있는 넓다란 로대도 있었다.

2층에는 서재가 달린 부부방과 자식방, 위생실이 있었고 아래층에는 여러칸의 방들과 샤와실이 달린 세면장이 있었다. 아래웃층에 창고만 해도 여러개나 되고 창고들마다 용도에 맞게 쓸수 있도록 당반들도 알맞춤하게 매여져있었다. 전기난방으로 방안의 온도를 보장할수 있게 되여있는데다가 샤와실과 세면장, 부엌에서는 항상 더운물을 쓸수 있게 되여있어 생활하기에 정말 편리할것같았다. 방들의 전등 하나, 스위치 하나도 편리한 위치에 자리잡았고 부엌의 찬장과 신발장에 공기구멍을 내주어 잡냄새를 뽑을수 있게 하여준것만 보아도 얼마나 세심하게 마음을 썼는지 감탄을 금할수 없었다.

흠잡을데 없이 깨끗하고 화려하게 꾸려진것이 정말로 궁궐이나 다름없었다.

계단을 오르내리며 살림집의 내부를 한참이나 돌아보던 그들의 입에서는 저도 모르게 《정말 집구경을 잘했습니다.》라는 말이 튀여나왔다.

그들부부를 안내하던 군인건설자들속에서는 웃음이 터져나왔다.

그제서야 제정신으로 돌아온 세대주인 김태봉은 두눈을 비비며 다시금 자기 손에 들려져있는 살림집리용허가증을 들여다보았다. 거기에는 분명 자기 이름이 씌여져있었던것이다.

《정말 믿어지지 않습니다. 궁궐같은 이 집이 바로 내 집이라는 것이 말입니다. …

이런 현실은 오직 인민을 하늘처럼 떠받드는 사회주의 내 조국에서만 있을수 있는 일입니다.》

정말 그랬다. 수도의 불빛을 지켜 자기들이 흘리는 땀방울을

보석처럼 귀중히 여기며 만복의 주인공으로 값높이 내세워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품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런 일을 꿈에선들 생각조차 할수 있으랴.

하기에 이들부부는 새집들이를 한 날 저녁 다시금 일터로 나갔다. 나라를 위해 땀을 동이채로 흘리지 않고서는, 받아안은 사랑에 실천으로 보답하지 않고서는 경루동의 주인이라고 떳떳이 말할수 없기에…

격정에 넘쳐 눈시울을 적시는 그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도 뜨거워졌다.

그러느라니 주체110(2021)년 3월 보통강주변 강안지구를 찾으신 그날 보통강반을 따라 현대적인 다락식주택구를 형성하고 다락식, 다층, 소층살림집을 조화롭게 배치하여 이 지구를 특색있게 변모시킬데 대하여 가르쳐주시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자애로운 영상이 가슴뜨겁게 어려왔다.

사랑하는 인민들에게 훌륭한 보금자리를 안겨주시려 가장 어려운 시기에 거창한 창조대전을 펼치시고도 또다시 평양시 1만세대 살림집건설과는 별도로 보통문주변 강안지구 호안다락식주택구 800세대건설을 발기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그날 일군들의 심장을 뜨겁게 울린것은 보통문주변 강안지구가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 리용하시던 저택이 자리잡고있는 성스러운 곳이라는것이였다.

이미전부터 어버이수령님의 저택이 자리잡고있는 경치좋은 보통강강안지구에 세계적인 다락식주택구를 건설하여 우리 인민들에게 안겨줄 구상을 무르익히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의 저택을 철거하고 그 구역에 현대적인 다락식살림집을 지어 인민들에게 안겨주려 한다는것을 아시면 아마 위대한 수령님께서도 기뻐하실것이라고, 자신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하여 일부러 이런 좋은 자리를 묵여두시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그이의 말씀을 접하고 이 나라 인민들 얼마나 감격에 목메였던가.

그뿐이 아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그처럼 분망하신 속에서도 몸소 설계안들을 하나하나 지도해주시면서 보통강강안다락식주택구건설이 우리의 건축을 또 한단계 도약시키는 계기로 되도록 이끌어주시고 세계를 압도할 만만한 야심을 가지고 대담하게 착상하도록 설계가들의 안목도 틔워주시였다.

그 나날 건물들의 배치와 형태를 보다 다양하게 하는것을 비롯하여 형성의 세부에 이르기까지 설계안들의 완성을 위해 현지를 찾고 또 찾으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그 사랑, 그 헌신을 우리 어찌 잊을수 있으랴.

이렇듯 위대한 어버이의 진정에 떠받들려 그 이름도 아름다운 경루동, 온 세상에 소리높이 자랑할만한 사회주의번화가가 보통강강안에 솟구쳤으며 자본주의사회 같으면 아무리 피땀을 뿌려도 향유와 인연이 없어 《말하는 로동도구》로밖에 달리는 취급될수 없는 그렇듯 평범한 근로자들이 억만장자들도 부러워할 수도의 중심부 명당자리에 일떠선 호화주택에 돈 한푼 들이지 않고 보금자리를 폈던것이다.

그렇다.

세상에 우리 로동계급처럼 영광의 첫자리에 항상 내세워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품속에서 보람차고 긍지높은 삶을 누려가는 사람들이 또 어디에 있겠는가.

연공일이라는것은 언제나 높은 곳에서 위험을 감수하며 해야 하는 일이여서 누구나 선뜻 하려고 하지 않는 매우 힘든 일이다.

자본주의나라 같으면 제일 천한 직업으로서 먹고살기 위해 할수 없이 해야만 하는 일이 바로 이 연공일이며 그래서 사회의 최하층에서 살아야 하는것이 연공들이다.

그러나 직업의 귀천이 따로 없는 공화국에서는 연공들이 제일 존경하고 우대해주어야 할 사람들로 떠받들려 경루동살림집에서도 제일 좋은 살림집을 배정받았다.

로동계급의 세상인 공화국에서는 제일 어렵고 힘든 부문에서 일하는 로동자들을 귀중히 여기고 그들의 생활조건을 개선해주기 위한

인민적시책들이 련이어 실시되고있다.

이 경루동집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더 좋은 생활상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여러가지 조치들이 계속 취해지는 속에 새해를 앞둔 2022년말에는 온 경루동사람들을 울리는 격동적인 소식이 또다시 전해졌다.

경루동사람들이 나라의 긴장한 전력사정을 생각하여 전기를 절약하기 위해 전기난방을 다 켜지 않고 생활한다는것을 아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은정깊은 조치를 취해주시였던것이다.

그 격동적인 소식에 접했을 때 경루동사람들은 놀라움을 금할수 없었다.

그들중에서도 전력생산자인 이들부부의 놀라움이 더욱 컸다.

오늘 그 어느 공장, 기업소들에서나 더 많이 요구되는것이 바로 전기인데 공장, 기업소들에 보내주어야 할 전기를 자기들의 생활에 써야 한다고 생각하니 송구스럽기 그지없었다.

그래서 이들부부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전력생산에서 더 큰 혁신을 일으키자고 약속했다는것이다.

그때부터 공장에서 살다싶이 하는 이들이였다.

어쩌다 집에 들어온 그들을 너무 오랜 시간 붙잡고있었다고 생각하니 정말 미안한 마음을 금할수 없었다.

이야기바람에 어느덧 황혼이 깃들기 시작한것을 보고 이들부부는 급히 서두르기 시작하였다. 또다시 일터로 나가야 한다는것이다.

그들과 함께 밖으로 나오니 하늘의 별무리가 통채로 내려앉은듯한 경루동의 불빛찬란한 야경의 현란함에 감탄을 금할수 없었다.

밤하늘의 은하수마냥 황홀한 빛을 뿌리는 말그대로 별천지였다.

불밝은 창문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귀전에 희한한 살림집에서 하루일을 마친 식솔들이 한데 모여앉아 기쁨에 겨워 터치는 웃음소리, 노래소리가 들려온다.

집집마다에서 피여나는 인민의 웃음 담아싣고, 날마다 흐르는 기쁨의 꽃물결 비껴안고 사회주의조국강산에 펼쳐진 은혜로운 사랑의 별천지, 희한한 문명의 별천지.

바로 여기에 이들부부의 땀방울도 깃들어있겠구나 하고 생각하니 그들에 대한 존경심과 함께 그들에 대해서 더 알고싶은 호기심을 어쩔수 없었다.

그리하여 며칠후 우리는 그들부부가 일하는 평양화력발전소를 찾게 되였다.

수도의 대동력기지인 평양화력발전소에 들어서니 전력생산으로 들끓는 로동자들의 열의가 맥동치는것이 한눈에 알렸다.

집채같은 대형설비를 화물자동차에 싣는 광경이 발전소구내를 돌아보던 우리의 눈가에 비껴들었다. 불과 몇명 안되는 로동자들이 권양기 하나로 육중한 설비를 눈깜박할 사이에 들어옮기는데 일솜씨가 정말 걸싸고 볼만하였다.

우리와 동행하였던 발전소일군이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였다.

《발전소의 어렵고 힘든 모퉁이를 든든히 막아나서주는 열설비보수분사업소 연공작업반원들입니다. 작업을 지휘하는 저 동무가 작업반장인 김태봉동무인데 발전소에 없어서는 안될 보배입니다. 서른해전 발전소에 제대배낭을 푼 그때로부터 오늘까지 변함없이 연공으로 일하고있습니다.》

우리가 취재하려던 낯익은 김태봉작업반장의 작업모습을 직접 보게 되니 여간만 기쁘지 않았다.

연공생활 30여년!

년한도 그러하였지만 어렵고 힘든 초소에서 오래동안 한모습으로 일해온다는 사실이 우리를 놀라게 하였다.

고공작업을 전문으로 하면서 중량물을 해체하거나 조립하는 연공일은 결코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솔직히 높은 곳에 올라가 서있는 사람을 보기만 해도 보는 사람의 다리가 다 후들후들 떨리는데 그런 곳에 서있는 사람들의 심정은 어떠하겠는가. 위험하기도 하거니와 사고요소가 많아 누구나 선뜻 들어서기 저어하는 직업이 바로 연공인것이다. 이런 어려운 곳에서의 작업을 30여년간 해왔다니 놀라지 않을수 없는 우리들인것이다.

얼마나 성실한 사람인가.

수도의 불빛을 지켜가는 대동력기지의 《수리개》로 30여년.

놀라움이라기보다 깊은 감동과 존경심을 금할수 없어 우리는 김태봉과 또다시 마주앉게 되였다.

해볕에 탄 구리빛얼굴에 크지 않으나 강단이 있어보이는 체구, 자름자름한 생김새에 정기도는 눈빛이며 온화한 목소리…

외형만으로는 그가 발전소의 어렵고 힘든 곳마다에 남먼저 어깨를 들이밀군 한다는 용감하고 대담한 제대군인출신의 연공작업반 반장이라는것을 알아보기 힘들었다.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여 정말 반갑습니다. 제일 어렵고 힘든 직종에서 수십여년을 일한다는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았겠습니다.》

《기자동무였군요. 다시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물론 제가 하는 일이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일한 보람이 크고 긍지가 넘칩니다.》

《수많은 직업중에서 어떻게 연공일을 택했습니까?》

《저야 제대군인이 아닙니까. 명령을 받으면 무조건 집행하는데 습관되여있습니다. 더우기 연공으로 배치받고 화력발전소에서도 제일 어렵고 힘든 일에 한생을 고스란히 바친 선배들이 영웅으로, 공로자로, 혁신자로 이름떨치는것을 보고 그들처럼 살고싶었고 그들의 높이에 올라서고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제 의무로 간주했을뿐입니다.》

《위험한 작업이니 혹시 다른 직업으로 돌아앉을 생각은 나지 않던가요?》

《아닙니다. 연공으로 배치받아 첫 작업을 하는 날 고공에 올라가보니 오히려 사나이로서의 기백이 넘치고 한번 해볼만한 일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다 뿌듯해졌습니다.》라고 하며 김태봉은 처음 연공일을 시작하던 때의 일을 감회깊이 돌이켜보았다.

30여년전 그가 연공생활을 시작할 때 그의 첫걸음을 떼여준 사람은 이전 작업반장인 원성석로력영웅이였다.

제대배낭을 수도의 동력기지에 풀어놓은 그를 미덥게 바라보며 영웅작업반장은 우리 세상은 로동계급의 세상이라는데 대하여, 당과 조

국을 받들어 성실한 땀과 지혜를 바쳐가는 근로자들을 영웅으로 내세워주는 나라가 바로 우리 조국이라는데 대하여 자기의 실체험을 통해 이야기해주었다.

그가 영웅작업반장과 함께 일한 나날은 당이 맡겨준 일터에서 묵묵히 한생의 날과 달을 수놓아가는, 평범한 연공을 영웅으로 내세워주는 고마운 우리의 사회주의제도에 대하여, 로동의 참된 보람과 긍지에 대하여 가슴뿌듯이 느낀 나날이였다.

수도의 불빛을 지켜선 대동력기지에서 가장 선차적이고도 중요한 일을 맡아한다는 자각, 발전소의 전초병, 척후병으로 산다는 남다른 긍지, 로동계급의 깨끗한 땀과 노력이 깃들어있는 거대한 발전설비들의 기운찬 동음이 집집의 창가마다에서 행복의 불빛으로 흐른다는 뿌듯한 자부심이 그를 비롯한 연공작업반원들의 가슴마다에 소중히 간직되여있었다.

하기에 그는 고난의 시기에도 언제나 변심없이 당과 조국을 받드는 충성의 한길, 량심의 한길을 꿋꿋이 걸어올수 있었다.

그의 이야기를 듣고 깊은 감동을 받은 우리는 그와 함께 일하는 작업반원들도 만나보고싶었다.

《제가 연공작업반에서 생활한지 2년이 되였을 때 김태봉반장이 제대되여왔습니다. 30년동안 그와 함께 일하면서 보니 매우 성실한 사람이였습니다.

연공작업이라는게 온 기업소사업의 선행공정이다나니 매우 바쁘고 사고위험요소가 많은 작업이랍니다. 전력생산을 성과적으로 진행할수 있도록 작업조건을 보장하는 선행작업과 뒤처리작업을 해야 하니까요.

남들이 길을 편안하게 갈수 있도록 길을 닦는것이나 같다고 말할수 있지요. 대체로 중량물을 다루는 작업을 많이 합니다.

우리 연공들이 어떻게 일처리를 빠르게 진행하는가에 따라 전력생산성과가 좌우된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반장이 사업조직을 깐깐하고 세심하게 할뿐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작업을 빨리, 헐하게 할수 있는가를 늘 연구하고 사색하기 때문에 맡겨진 과제들을 제때에 기한전에 수행하는 성과를 거두군

합니다.

정말이지 반장동무는 우리 기업소에 없어서는 안될 인재입니다.》

《2000년도에 화력발전소에서 먼지를 없애기 위한 사업을 진행할 때 건식제진장치를 해체할데 대한 과업이 제기되였습니다.

그때 반장동무가 삭도를 타고 다니며 위험한 작업을 앞장에서 이끌면서 작업반원들을 잘 조직동원하고 기술혁신을 하여 그 사업을 성과적으로 보장할수 있었습니다.

연공작업은 머리를 많이 써야 하는 작업입니다. 고정된 작업이 아니라 수시로 변동되는 작업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작업환경과 대상별에 따르는 작업량을 정확히 타산한데 기초하여 사업조직을 치밀하게 하여 작업능률을 높일수 있는 방안을 잘 연구하여야 하며 작업을 헐하게 하면서도 빨리 하도록 해야 하는것입니다.

남들이 할수 없는 일을 연공들이 한다는데 연공작업의 특성이 있으며 대상별에 따르는 대응방안을 어떻게 실효성있게 세우는가에 따라 사업의 성과여부가 결정되게 됩니다.

반장동무는 여러t이나 되는 물체를 간단하게 조립할수 있는 창의고안을 한것을 비롯하여 조립식기구도 만들고 쇠바줄을 늘여 힘들게 일하던것을 고리를 만들어 쉽게 할수 있는 방법 같은것들을 많이 연구하였습니다.

로력절약, 시간단축, 설비애호, 이것이 바로 연공작업에서 기본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문제라고 반장동무는 늘 이야기하군 합니다.》

《우리 반장동무는 창의고안명수이기도 하답니다. 공기예열기조립은 원래 로력과 자재가 많이 들어가는데다가 여러달동안 해야 하는 작업량입니다. 하지만 반장동무의 대담한 기술혁신안을 받아들여 온 작업반이 합심하여 호흡을 잘 맞추니 1주일내로 시간을 당길수 있었습니다.

보이라구조물에 따라 제기되는 사업도 많고 그에 따르는 작업방법이 여러건 제기되지만 언제나 우리 반장동무가 내놓는 작업방법이 모두의 호응을 불러일으키군 합니다.

우리 반장동무는 모든 일에 확신을 가지고 접어들군 합니다.

화력발전소 먼지없애는 작업을 할 때에도 설비구조물을 해체하고 조립하는데 이동식팔기중기를 설치하여 일을 헐하게 하도록 하였습니다. 보이라구조물해체때에도 삭도기중기를 도입하였는데 공중에서 기중기팔이 왔다갔다하며 해체작업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사실 우리 작업반에 왔다가 고공작업을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습니다. 반장동무는 그런 사람들을 계발시키고 요령을 대주어 작업에서 신심을 가지도록 도와줍니다.

이 화력발전소의 구내에 우리 반장동무의 발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높은 곳에는 거의다 올라가보았던것입니다.》

《우리 반장동무는 일욕심이 많아 공장에서 제기되는 일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해제끼군 합니다. 맡은 대상과제는 그날중으로 무조건 끝내는 습관이 있습니다.

저도 제대군인인데 제일 어렵고 힘든 일을 하고싶어 이 작업반에 자원하여왔습니다. 이곳에 온지는 1년 남짓합니다. 그런데 실지 와보니 고공작업을 해야 하고 수시로 위험이 동반되는 일이여서 정말 생각보다 힘이 들었습니다.

우리 작업반인원으로 온 기업소를 대상해야 하는 일이니 왜 힘들지 않겠습니까. 고공작업을 할수 있게 버팀목들을 설치해주는 선행작업을 해야 하고 뒤거둠질이나 하면서 눈에도 띄우지 않는 일이였지요.

그래서 다른데로 가볼 생각도 없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렵고 힘든 곳에서 로력영웅이 나오고 공훈전력공이 나오는것을 보면서 저도 청춘의 열정을 한번 마음껏 쏟아부어 조국에 떳떳한 아들이 되고싶었습니다.

서로 위해주고 아껴주며 혁신에로 떠밀어주는 우리 작업반이 너무 좋아 정도 푹 들었습니다. 모두가 한가정과도 같은 우리 작업반이 제일입니다.》

이구동성으로 반장에 대한 자랑, 자기 작업반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에 넘쳐있는 작업반원들을 보느라니 서로 돕고 이끌며 한마음한뜻으로 작업반앞에 맡겨진 과제를 넘쳐 수행하는 한가정과도 같은 집

단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작업반을 서로 돕고 위해주는 화목한 집단으로 만들고 사업에서 혁신적성과를 이룩하는데 기여한 김태봉의 사업성과를 높이 평가하시여 여러 차례 높은 국가수훈의 영예도 안겨주시고 주체110(2021)년 10월에는 공훈전력공의 칭호를 수여해주시였을뿐만 아니라 평천구역인민회의 대의원으로 내세워주시는 크나큰 영광을 거듭거듭 안겨주시였다.

자본주의사회에서는 로동자들이 몇푼의 돈을 위해, 먹고살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일한다. 그러나 공화국에서는 로동이 가장 신성한것으로, 더없는 보람과 영예로 간주되고있다.

평범한 연공의 삶이 그것을 웅변적으로 말해주고있지 않는가.

세상을 아무리 둘러보아도 인민대중이 정권의 참다운 주인이 된 나라, 모든것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나라는 우리 공화국밖에 없음을 우리는 이번 취재를 통해서도 더욱 실감하게 되였다.

400여년을 1년으로 맞선 녀성과학자

(사회주의애국공로자, 공훈과학자, 박사, 부교수인
평양기계대학 수산기계연구소 소장 조수경)

평양의 자랑인 지하철도역들이 하나하나 개건되여 아름다운 수도의 모습을 한층 일신시켜나가고있는 속에 또 혁신역이 새롭게 개건현대화되여 운영을 시작하였다.

계획했던 취재를 마치고 편집부로 돌아가는 길에 우연히 그옆을 지나게 된 우리는 개건된 혁신역의 새 모습도 구경할겸 혁신역 지하철도의 승강기에 몸을 실었다. 지상의 역사는 물론 지하에 펼쳐진 현대적미감의 손색없는 황홀경에 우리는 절로 경탄을 금할수 없었다.

더우기 모든것이 부족할 때였지만 오히려 우리의것으로 현대적으로 단장된 지하철도의 새 모습은 공화국의 잠재력, 날로 부강번영하는 조국의 숨결을 그대로 느낄수 있게 해주었다.

특별히 눈길을 끈것은 지하전동차가 오고가는 량쪽벽면에 주런이 걸려있는 시대의 전형들을 형상한 대형사진들이였다.

대형사진들을 바라보느라니 시대의 숨결이 느껴지고 심장의 박동이 빨라졌다. 수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부러움을 자아내는 시대의 전형들처럼 살고싶은 욕망이 절로 솟구쳐올랐다.

대형사진들을 둘러보는 우리의 귀전에 사람들이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저게 조수경박사가 아니요!》

《정말, 그 유명한 기계박사로구만요.》

대형사진을 보던 사람들이 속삭이는 말소리에 눈길을 돌려보니 정말 위대한 장군님께 기쁨을 드린 기계공학분야의 녀성박사, 사회주의애국공로자이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시대의 전형으로 내세워주신

조수경 평양기계대학 수산기계연구소 소장의 모습도 보였다.

번쩍이는 박사메달을 앞가슴에 빛내이며 제자들속에 둘러싸여있는 중년기의 과학자녀성을 형상한 대형사진을 보느라니 신문에서 그에 대하여 소개했던 내용들이 떠올려졌다.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 나라의 기계공업발전에 이바지할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전선을 지켜 많은 기술자들을 키워내고 여러명의 석사를 배출시켰으며 사회주의강국건설에 떨쳐나선 공장, 기업소들의 현대화를 과학실천으로 받드는 선두에서 대동강식료공장 병입상기, 평양양말공장 봄가을양말포장기, 류경생활용품공장 《봉선화》위생용품포장흐름선, 김책대경수산종합기업소 통졸임포장흐름선, 어느한 공장의 액체효소포장흐름선을 비롯한 설비, 공정들의 국산화, 현대화를 맡아해제낀 실력가형의 과학자.

특히 평양양말공장에 새로 전개되는 녀자여름양말생산공정의 포장설비설계와 제작을 세계적으로 제일 발전된 나라의 설비 못지않게 해내여 공장을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을 현장에서 만나뵙고 영광의 기념사진까지 찍는 남다른 행운을 지닌 훌륭한 녀성과학자.

인간세계에 《녀성》이라는 말에 잘 어울리는 학문의 대상은 많다.

녀성과 미술, 녀성과 음악, 녀성과 문학, 녀성과 의학, 녀성과 식료…

그 허다하고 겨눔직한 대상중에서도 녀성과 어울리지 않는 대상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계가 아닌가싶다.

녀성과 기계!

육중하고 차디차고 《몰인정》한 철덩어리, 그 어떤 감성이나 욕망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정확한 수값과 치밀한 맞물림에 의한 물리적론리만이 통하는 비유기체.

이렇게 잘 어울리지 않는 대상과 가장 조화롭고 유기적으로 결합된 녀성이 바로 조수경박사이다.

그는 자기가 만든 하나하나의 설비들을 다 친자식처럼 생각하고 있으며 그것을 피도 숨결도 있고 자기 마음을 알아주기도 하는 살붙이같이 생각한다. 자주 말썽을 부리기도 하고 그래서 말을 안들을

때에는 붙안고 울기도 하였다.

딱딱한 쇠붙이를 부여안고 왜 그렇게 내 마음을 몰라주는가고 울 때마다 그 쇠덩어리들이 정말로 자기 말을 알아듣는것같고 그래서 착착 손발처럼 움직여줄 땐 너무 고와서 쓸어주고 또 쓸어주며 그런 재미에 기계를 만들어내군 한다는것이다.

신문과 잡지를 통해 알게 된 이러한 사실들에 대하여 상기하고있는데 《저 조수경박사도 경루동의 희한한 호화주택에 이사를 갔다면서요?》 하는 말소리가 또다시 우리의 귀전을 스치였다.

《정말 그래요. 나도 어제 경루동에 이사간 우리 삼촌의 집구경을 갔댔는데 바로 옆집에 조수경이라는 문패가 걸려있더군요. 그래서 삼촌에게 어떻게 저 집에는 녀자이름이 씌여져있는가고 물었더니 그 유명한 조수경박사라는것이 아니겠나요.》

《야, 저 녀성은 이 세상의 만복을 통채로 받아안았으니 얼마나 좋을가.》

그 이야기를 들으니 경루동에 산다는 조수경박사를 만나고싶은 생각이 불쑥 솟구쳐 우리는 가던 걸음을 되돌리기로 하였다.

바로 지상우에 올라서면 경루동으로 가는 뻐스를 탈수 있었기때문이였다.

경루동이 새로 준공되는것과 동시에 생겨난 경루동사람들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한 뻐스로선이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경루동에 입사한 사람들의 출퇴근길까지 념려하시여 도로와 잇닿은 경사지들에 지그자그로 낸 계단길을 따라 길을 에돌지 않고 뻐스정류소로 곧바로 갈수 있게 하여주시고 그에 맞게 뻐스정류소들도 여러개 내오도록 은정깊은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그 뻐스정류소들은 지하철도와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있었다.

조수경박사가 집에 있으리라는 담보도 없이 무작정 로선뻐스에 올라 경루동으로 향하면서 만날수도 있지 않을가 하고 생각하였다.

뻐스에서 내려 알아보니 마침 그의 집은 정류소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었다.

한껏 기대를 안고 집문앞에서 주인을 찾으니 그와 비슷하게 생긴

녀성이 살며시 웃으며 우리를 맞아주는것이였다. 분명 조수경박사는 아닌것같은데 알고보니 그와 함께 살고있다는 녀동생이였다.

언니인 조수경을 취재하기 위해 왔다는 우리의 말에 동생은 언니가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이 더 많다고, 왔던김에 집구경이라도 하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것이였다.

《정말 우리 언니한테까지 이런 희한한 호화주택이 차례지리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미래과학자거리의 크고 멋있는 살림집도 과분하다고 생각했었는데 평범한 과학자에 불과한 우리 언니를 나라에서 제일 멋있는 살림집의 주인으로까지 내세워주시니 너무도 황송하여 무엇이라고 고마움의 인사를 올렸으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보통강이 한눈에 바라보이는 도로앞 소층아빠트에 있는 그의 집은 편리하면서도 미학성이 높은 수준에서 보장된 특색있는 구조를 갖추고있었다.

경루동의 새집에 입사한 날 너무도 꿈같이 차례진 행복에 격정을 금치 못하던 언니가 또다시 일터로 나가 새로운 연구과제수행을 위해 현장에서 살다싶이 한다는 동생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가 정말 불같은 녀성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는 공동방의 벽면을 가득 채운, 조수경이 위대한 장군님과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찍은 영광의 기념사진들을 돌아보고 그의 지나온 나날이 력력히 아로새겨져있는 사진첩들도 한장한장 번져보았다.

《집안에 기계부문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도 있는가요?》

《우리 집에는 아버지와 어머니는 물론 친척들중에도 기계부문에 종사하는 사람은 한명도 없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의사였고 언니는 어렸을 때부터 바이올린을 잘 타서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사랑을 독차지했댔습니다. 그러던 언니가 중학교때부터는 아버지처럼 의사가 되겠다고 입버릇처럼 이야기하군 하는것이였습니다. 그래서 중학교를 졸업하면서 의학대학시험을 쳤는데 그만 붙지 못하다나니 아버지에게 얼마나 졸경을 치르었는지 모릅니다. 집에서 쫓겨나다싶이 했다가 다음해에 기계대학입학통지서를 가지고 나타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아버지와 어머니는 물론 언니자신도 자기가 이렇게 유명한

기계박사가 될수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동생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조수경을 기다려보았지만 끝내 그를 만나보지 못하고 집을 나서게 된 우리는 평양기계대학에 찾아가기로 하였다.

집에서는 좀처럼 그를 만나기가 쉽지 않을것같아서였다.

다음날 오후 우리는 평양기계대학에서 강의를 끝내고 생산현장으로 나가려던 조수경을 만날수 있었다.

TV나 지하철도 혁신역에 걸려있는 대형인물사진에서는 어딘가 모르게 굳세고 억세보이던 조수경의 모습이 실물로 보니 그리 크지 않은 체격에 아련하게 생긴것이 묵직한 기계를 다루는 그런 일과는 인연이 없어보였다. 어릴 때 음악에 취미가 있었다더니 50대에 들어선 중년녀성이지만 나이보다 퍽 젊어보이는 생기있는 모습이였다.

외모는 소박하고 수수해도 예지가 빛나는 두눈이며 열정적인 모습은 실력가형의 과학자라는 느낌을 주었다.

《이렇게 만나게 되여 정말 반갑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계공학을 전문할 생각을 하게 되였는가요?》

《솔직히 저도 이렇게 기계공학전문가가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전 중학교때 학교기악조의 바이올린수였습니다. 의사인 아버지처럼 의사가 되고싶어 중학교를 졸업하면서 의학대학을 지망하였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음해에 기계대학시험을 치게 될줄이야…

생각지 않게 기계대학입학통지서를 받았을 때는 녀자가 할 일이 아니라는 생각에 아버지앞에서 투정질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학생이 되기를 바라는 부모들의 소망을 거역할수 없어 도무지 정들것같지 않은 대학에서 공부하게 되였습니다.

제가 기계대학에 입학했을 때 대학에서는 신입생들을 위해서 관록있는 로교수들과의 상봉모임을 조직했던적이 있습니다.》

의자를 권하며 조수경은 그때를 더듬는듯 실눈을 짓고 말했다.

이 대학에 처음으로 정을 붙인것이 바로 신입생들을 위한 학위학직, 명예소유자들과의 상봉모임이였다.

김신응강좌장, 40대의 박사이며 로력영웅이며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뵈온 우리 나라 기계공학분야의 권위자인 그가 당시 수산기계분야에서 제일 난문제로 나섰던 명태뱔따는기계를 만들어 어버이수령님으로부터 높은 치하의 교시를 받아안던 영광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까지만 해도 조수경은 그가 자기의 운명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게 될는지에 대해서는 생각지 못했었다.

그러나 그가 하는 이야기를 들으며 한가지만은 명백히 깨닫게 되였다.

자기 마음속의 소망이였다.

(나도 김신응강좌장선생님처럼 될수 있을가? 나도 아버지장군님을 만나뵈올수 있을가?)

그의 마음을 부풀게 한 그 꿈이 《기계》자가 붙은 이 대학교정에 정을 붙이게 했고 도저히 와닿지 않는다고 여겼던 자기의 운명과 《기계》라는 낯설고 이상하게 여겨지던 말을 함께 이어놓게 했다.

그 명태뱔따는기계를 연구하기 위해 10년나마 동해바다가에 나가 살다싶이 한 강좌장, 어쩌면 앞으로의 그의 인생행로와도 같은 그 길을 먼저 걸어간 그 강좌장에게서 조수경은 학창시절에나, 함께 교단에 선 이후시기에나 참으로 많은것을 배웠다.

인간정신과 유기체를 대신하기 위해 인간자신이 인공적으로 만들어내기 시작한 기계라는 물체에 얼마나 많은 인류지성의 력사적축적과 복잡한 정신로동의 결과물들이 루적되여야 하는가를 배움이 전업이던 대학과정에도 미처 다 깨닫지 못했었다.

재료력학, 기계요소, 리론력학, 기구학 등 기초과목외에도 린접과목인 열공학, 류체력학, 유압공학을 비롯한 실로 폭과 심도를 헤아릴수 없는 복잡하고 어려운 학문 그자체도 파악하기 까마득한데 그것을 실지로 응용하기까지 하려면 얼마나 멀고먼 탐구와 고뇌의 길을 헤매여야 하는가.

그 폭과 심도의 방대함에 대하여, 그 어려움에 대하여 륜곽적으로나마 어렴풋이 깨닫게 된것이 비로소 대학졸업후였다.

학문자체가 녀자들에게는 너무도 아름차보였고 다음은 그 육중

하고 드다루기 힘든 쇠붙이가 녀성세계와는 전혀 불상용적인 부조화를 이루는듯싶었다.

더우기 생활상어려움이라는 외부적요인의 영향인자속에서 특히 생활의 많은 몫이 부여되는 녀자라는 불변의 절대조건하에서 그것을 받아들인다는것은 참으로 어려운것이였다.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는 누구에게나 그러했지만 교원, 연구사들에게 있어서는, 더우기 녀성들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2중3중의 시련을 이겨내지 않으면 안되게 한 시기였다.

어느날 지칠대로 지친 조수경은 잊지 못할 스승인 김신응강좌장이 불치의 병진단을 받고 입원해있던 병원으로 찾아갔다.

《난 아무래도 안되겠습니다. 녀자가 무슨 큰 기계를 만들겠다고 이것도 저것도 못하고 괜히… 연구사를 그만두겠습니다.》

그러는 그를 바라보는 김신응강좌장의 마음은 괴롭기 그지없었다.

연구사대렬에 들어선지도 8년, 누구보다 촉망되고 그래서 학생시절부터 많은 품을 넣어온 그가 지난 기간 설계를 완성하면 손도면으로 정확하게 정리해주군 하던 책임적인 조수여서만이 아니였다.

기계는 남자만의 세계로 생각하던 강좌장자신도 언젠가 새로 만든 놋그릇닦는기계가 잘 동작하지 않아 집체협의에 붙였을 때 머리를 맞대고 들여다보던 년장자들속에서 갓 들어온 조수경이 닦기솔여닫는 부분의 불합리점을 정확히 집어냈을 때 새로운 눈으로 기계공학분야에서의 녀성의 섬세성과 기발한 착상력에 놀라 그의 앞날을 크게 기대했던것이다.

이제 그자신으로서는 더는 갈수 없는 기계공학탐구의 길, 능히 자기를 대신할수 있고 앞날이 촉망되는 그런 제자가 녀성이라서 더 기대되고, 더 걱정되기도 하는 모순점앞에서 김신응강좌장은 사정을 보지 않았다.

《수경인 그래도 될 사람이 아니야. 이제 내가 나가면 숱한 설계를 해야겠는데.》

그는 고개를 떨구었다.

《난 이따금 이렇게 생각하오. 나라의 은덕으로 공부를 한 우리

과학자들이 그 지식으로 창조물 하나 내놓지 못하고 저마끔 제 생각만 한다면 종당에 나라가 어떻게 되겠나. 어머니조국의 사랑을 받을 줄밖에 모르는 철부지과학자들이 천이면 뭘 하겠나.》

나약해진 제자의 가슴속에 애국과 량심의 억센 기둥을 세워준 스승은 다음날 세상을 떠났다. 침상에서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설계도면만을 붙안고있던 참된 과학자의 모습은 조수경의 뇌리에 깊이 새겨졌다.

그는 차마 대학을 떠나지 못했다.

떠날수가 없었다.

어버이수령님으로부터 명태뱔따는기계는 자본주의나라에서도 제일 발전된 설비라고 하는것보다 더 좋다는 최상의 평가를 받아안을만큼 높은 지성과 실력을 지녔던 고결한 과학자, 학문앞에 무한히 충실했던 스승!

그 스승의 모습이 이렇게 말하고있었다.

《기계야말로 수경이와 뗄수 없이 유기적련관을 가진 동반자이다.》

조수경은 이미 세상을 떠났어도 여전히 마음속에서 자기를 가르치고 인도하는 스승의 의사를 따르기로 했다.

(어디 보자. 어려워도 끝까지 기계와 함께 운명을 같이해보자.)

그는 짬만 있으면 사색하고 새로운 구상이 무르익으면 부지런히 종이에 옮겨놓았다. 이렇게 생겨난 구상안들이 그의 사무실과 집에 무드기 쌓여지기 시작했다. 외국어실력을 높이기 위해 바친 시간도 얼마인지 모른다. 그는 과학기술자료들과 참고서들을 부지런히 탐독했으며 인민대학습당과 중앙과학기술통보사를 쉬임없이 찾았다.

상점에서 새옷을 살 때보다 책방에서 새책을 살 때 더 기뻐하였다.

대학의 연구집단이 병입상기를 연구하여 대동강식료공장에 도입하던 2009년 어느날이였다.

말은 설계를 단 보름동안에 끝낸 조수경이였으나 마음이 가볍지 못했다.

설계는 끝났지만 제작과정에 어떤 문제들이 생길지 알수 없었다. 그는 어느한 기계공장을 찾아갔다. 로동자들은 그가 찾아온 사연을

알고는 스스럼없이 의견들을 이야기하였다. 그는 기능공들한테서 허심하게 배웠다.

당시 그가 다시 그린 도면은 무려 수백장이나 된다고 한다.

이때뿐이 아니다.

그는 수시로 평양과 지방의 공장들을 찾아가 각종 기계들을 보면서 착상의 실마리를 찾아내군 하였다. 그는 온종일 연구사업을 하고 집에 가서까지 밤새워 실험에 몰두하군 하였다. 그가 깊은 밤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피끗 떠오르는 착상을 실험해본다는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을것이다.

그는 이렇게 기계공학을 전문하는 기계전문가가 되였다.

과학자의 본분을 자각하고 품들여 다진 해박한 지식으로 그 어떤 기계설계도 해낼수 있게 되였다는 조수경의 이야기를 듣노라니 그의 과학자적량심에 머리가 숙어졌다.

《지금까지 수많은 기계들을 만들었겠는데 처음으로 만든 기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제일 처음으로 만든 기계가 바로 양말포장기입니다. 이 자동양말포장기계를 만드는 과정은 다른 나라의 기계제작공업을 따라앞서기 위한 우리 과학자들의 자존심과 량심을 검증받는 과정이라고도 말할수 있었습니다. 이 기계를 만들어냄으로써 우리 과학자들도 자력자강의 정신으로 능히 마음만 먹으면 다른 나라의 앞선 기술을 돌파할수 있다는 신념을 더욱 굳게 가지게 되였습니다.》

조수경은 감회깊은 어조로 자동양말포장기를 만들던 때의 일을 이야기해주었다.

대학적인 녀자여름양말포장기 착상설계현상응모에서 조수경이 내놓은 방안이 당선된것은 정말 뜻밖이였다.

대학에는 기계공학분야에서 한다하는 남성연구사들이 허다했고 그중에는 박사들이 적지 않았던것이다.

그러나 기계설계와 제작에서 기초이면서 관건적공정인 설계방안토론에서는 현상응모에 출품된 설계방안들중 그의 설계방안을 최종선택하였다. 기존방식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다른 응모자들의 방

안과 달리 전혀 새로운 그의 착상설계는 기발하면서도 설비에 대한 까다로운 기술적요구조건에 가장 가까이 접근했기때문이였다.

복잡하고 까다로운 요구조건을 가진 이 설비제작에 대학에서 장치분야의 일인자로, 프로그람분야의 특기있는 쟁쟁한 연구사들로 손꼽히는 교원, 연구사들이 달라붙었고 새 양말공장의 조업날자에 맞추어 서슴없이 1년이라는 기간에 따른 계획을 세웠다.

보무당당히 출발한 개발사업이 진퇴량난에 빠지기 시작한것은 바로 이 기계에 대한 파악이 어느 정도 깊어진 다음부터였다.

세계적으로도 한두개 나라의 독점물로 되여있는 자동화된 양말포장기를 문헌자료 하나 없이 시작한 연구사업인지라 고충이 컸다.

불과 몇달만에 자기들의 과학적실력과 이미 충분히 발휘했다고 믿었던 그 의지로써는 도저히 성공하기 힘든, 거의나 불가능한 목표라는 절망감이 점차 굳어져가기 시작했던것이다.

매일같이 벌어지는 일진일퇴의 실험과 수정, 그를 둘러싼 매 인간들의 각이한 반응앞에서 조수경은 기계가 아니라 자기자신의 실력과 의지를 검증받는듯싶었다.

손로동으로도 힘든 무정형체의 양말을 기계장치로 종이포장지에 단 1㎜편차없이 감는 공정의 불합리점으로부터 시작된 이들의 론쟁은 기계의 매 부분, 매 장치를 놓고 몇달사이에 여러 차례의 설계수정과 그 몇십, 몇백배의 재가공과 조립, 시운전과 실패로 이어졌다.

실패가 반복되자 연구조성원들의 마음은 초조해졌다. 일부 사람들은 우리 나라에서 양말포장기가 나오면 손바닥에 장을 지지겠다고까지 하였다.

《이제라도 그만두겠다고 합시다.》

《할수 있는껏 해보았는데 량심에 꺼릴거야 없지 않습니까.》

《솔직히 현존 우리의 기계제작수준을 가지고서야 어림없지. 애초에 접어들지 말았어야 할 기계였는지도…》

연구조의 성원들이 책임자인 조수경에게 속을 터놓았다.

《저도 이렇게까지 힘들줄은 몰랐어요. 그만두고싶은 마음이 하루에 열번도 더 들구요. 그럴 때면 이 과제를 수행하지 못한채 살아

가는 자신의 래일을 생각해보게 돼요. 그러면 단 하루도 마음이 편할것같지 못해요.》

진심을 터놓는 그의 목소리는 갈려있었다.

《물론 우리가 연구과제를 포기한다고 해서 추궁할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우리 과학자들이 실적내기나 적당히 하면서 세계와 경쟁하는 어려운 연구과제를 외면해버린다면 나라의 과학기술은 어떻게 발전하겠어요. 우린 언제 가도 남을 따라앞설수 없고 사람들은 자기의것은 깔보며 남의것만 쳐다보는 무맥한 인간, 기술의 노예가 되지 않겠나요. 전 이게 더 무섭고 두려워요.》

그의 이 말은 동요에 휘감기는 자기자신에 대한 질책이기도 하였다.

너무도 때이른, 아니 현존상태에서는 불가능한 목표가 아닐가?

그는 무너져내리려는 자신을 붙들어세우려는듯 바로 이 기계공학과 헤여지려 했던 그 순간의 스승의 모습을 떠올렸다.

기계공학과 자기의 운명을 하나로 이어주고 마음속동요를 일으킬 때마다 채찍질하며 다잡아주던 스승의 마지막모습.

그것은 그를 분발시키는 촉매제였다.

(어디 보자. 400여년, 우리의 1년으로 맞서보자!)

그들은 모진 정신육체적고통을 이겨내며 새로운 방안에 기초한 설계를 완성하고 로동자들과 함께 부속품을 가공하고 시운전을 하였으며 성한데가 없는 손으로 밤새워 녀자양말을 접었다폈다하는 동작을 수백번이나 해보면서 끝내 양말접이장치를 개조할 실마리를 찾아내였고 기계를 완성할수 있게 되였다.

섬세하고 부드러운 동작으로 얇디얇은 녀자여름양말을 착착 접어 포장종이에 감고 비닐봉지에 넣어 완성하는 포장기계는 말그대로 사람의 손보다 더 정확히 움직이였다.

이렇게 간고하게 완성한 기계를 위대한 장군님께 보여드리게 되였다.

《박사선생은 여러 차례나 위대한 장군님과 경애하는 원수님을 만나뵈옵는 영광을 지녔다지요?》

《정말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글쎄 위대한 장군님께서 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별로 한 일도 없는 저를 기특한 녀성과학자라고 치하해주시며 여러 차례나 만나주시고 사랑의 기념사진까지 찍어주시며 주실수 있는 영광과 행복을 다 안겨주시였답니다.

그 사랑의 품속에서 저는 온 나라가 다 아는 기계박사로, 공훈과학자로, 시대의 전형으로 떠받들리고 누구나 부러워하는 경루동 호화주택의 주인으로까지 될수 있었습니다.》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격정에 넘쳐 이야기하는 그의 모습을 보며 우리도 격동되는 심정을 금할수 없었다.

주체99(2010)년 12월 평양양말공장을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양말자동포장기를 보아주시고 기계를 참 잘 만들었다고, 양말포장기를 설계한 평양기계대학 연구사가 참으로 기특하다고, 그가 대동강식료공장의 설비를 현대화하는데도 크게 이바지하였다는데 오늘 과학과 기술로 강성국가건설에서 한몫하고있는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 가운데는 녀성들이 적지 않다고 분에 넘치는 평가를 안겨주시였다.

그러시면서 발전되였다고 하는 일부 나라들의 양말공장들에서도 양말포장은 손으로 하고있지만 우리 과학자, 기술자들이 자체의 힘으로 그보다 더 훌륭한 설비를 만들어낸것은 자랑할만한 성과이라고 대단히 만족해하시였다.

기특한 녀성과학자!

인민을 위해 참답게 복무할수 있는 창조자, 탐구의 목표, 참된 과학자의 인생행로를 제시해주고 더는 자신을 이겨낼수 없을것만 같았던 그 걸음걸음마다에 어버이의 마음과 눈길, 어머니의 정으로 손잡아주며 이끌어준 손길, 그 손길이 없었다면 어떻게 오늘의 기특한 녀성과학자가 태여날수 있었으랴.

이날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고 영광의 기념사진까지 찍게 된 조수경은 흥분을 억제할수가 없었다.

행복과 영광의 무아경속에 잠겨 그는 어떻게 자기가 위대한 장군님의 바로 곁에 섰는지, 어떻게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고 영광의 기념사진을 찍었는지도 미처 느끼지 못했다.

응당 할 일을 한 과학자들을 그처럼 높이 내세워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하늘같은 사랑과 믿음에 오직 실적으로 보답하려는 그의 각오와 열의는 더욱 높아졌다.

그를 비롯한 연구조성원들은 재차 다양한 종류의 양말을 포장하는 자동기계들을 만들기 위한 연구사업에 달라붙었다. 추운 겨울 현장에서 쪽잠을 자면서, 언 밥을 먹으면서 피나게 연구사업을 진행한 이들의 가슴속에는 과학에는 국경이 없지만 우리 조선의 과학전사들에게는 위대한 장군님을 높이 모신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이 있다는 긍지와 자부심이 꽉 차있었다.

그들은 설날이나 명절날, 일요일도 녀자무릎양말포장기, 녀자짧은양말포장기, 남자봄가을양말포장기를 자기들이 결의한 날까지 만들어내기 위한데 아낌없이 바쳐왔다.

참으로 고생스러우면서도 보람찬 나날이였다. 자정도 훨씬 지나 일을 끝낸 후에야 저녁식사를 못했다는것을 알고 맹물로 끼니를 에우기도 하고 지칠 때마다 예술영화 《열네번째 겨울》의 주제가 《봄을 먼저 알리는 꽃이 되리라》의 구절구절을 불러보며 용기를 내기도 하던 나날들이였다.

이렇게 현장에서 줄기차게 연구사업을 진행하고있던 이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서거하시였다는 청천벽력같은 비보에 접하게 되였다. 그 비보에 접하고 연구사업을 더 빨리 끝내지 못한 죄책감, 좀 더 분투하지 못한 자책감으로 몸부림치며 현장에서 낮과 밤이 따로 없이 일하여 여러 종류의 자동화된 양말포장기들을 완성하게 되였다.

주체101(2012)년 7월 평양양말공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양말포장기들의 성능이 대단히 좋다고 하시면서 이들의 연구성과를 높이 치하해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만나뵙고 하늘같은 믿음과 사랑을 받아안은 조수경은 감격도 새로운 주체103(2014)년 8월 평양양말공장을 찾아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또다시 뵙는 영광을 지니게 되였다.

뜻깊은 이날들에 나라의 기계공업발전을 위하여 그토록 마음쓰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높으신 뜻을 가슴에 새겨안은 그는 현실

에서 절실하게 요구하는 우리 식의 자동포장기들을 더 많이 개발할 불같은 맹세를 다지였다.

그는 연구사들과 지혜를 합쳐 최근에도 어느한 공장에 요구되는 현대적인 자동포장기를 성과적으로 연구해냈다. 분당 수백개나 쏟아져나오는 제품을 신속히 포장해야 하는 이 기계설비의 연구제작 역시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되는것이였으나 정신력의 강자들앞에서는 불가능이란 있을수 없었다.

조수경은 어떤 어려운 연구과제가 제기되여도 그 가능성을 론하기 전에 나라에 필요한것이라면 누구든 반드시 창조해내야 한다는 자각을 안고 솔선 도맡아나섰다.

그가 전국경공업대회에 참가하게 되였을 때였다.

당시 그는 양말포장을 위한 붙임띠보호막분리 및 접합장치연구를 마감단계에서 진행하고있었다. 그는 누가 시킨 사람은 없었지만 대회장으로 떠나는 날까지 이 장치의 시운전을 하였다.

그는 밤을 꼬박 밝히며 연구사업을 하여 기어이 완성하고서야 대회장으로 떠났고 대회장에 나오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르며 마음속으로 삼가 충성의 보고를 올렸다.

(경애하는 원수님, 우리 식의 장치를 또 하나 개발하였습니다!)

량심이 흐려지면 진정한 과학자가 될수 없다. 과학자라면 애국과 량심을 나란히 놓을수 있는 참인간이 되라.

이것이 20여년간 줄기차게 이어온 과학탐구의 길에서 조수경이 실천으로 터득하고 간직했고 보여준 생활의 진리이다.

개발창조의 길에 타고난 강자란 없다. 조국과 인민에게 필요한 것이라면 하늘의 별이라도 따와야 한다는 각오를 가지고 그 길에서 자신의 모든것을 깡그리 바칠 마음의 준비가 되여있는 그런 사람이 강자가 된다.

이것은 평범한 녀성과학자의 연구성과가 말해주고있다.

조수경박사에 대한 취재과정에 우리는 한 평범한 녀성을 새로운 인간, 시대의 전형이라는 참된 모습으로 태여나게 한 위대한 도약의 시대를 보았다.

고난과 시련은 어려운것이지만 순탄한 행복보다 참으로 많은것을 인간에게 주는것이다.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시련과 그 길에서 끝까지 자기를 이겨내기 위해 흘러온 그 아픔의 눈물과 의지의 나날이 없었다면 조수경은 400여년을 1년으로 도약할 엄두를 내지 못했을것이였다.

그리고 그 기계와 함께 조수경이라는 한 평범한 녀성이 새로운 인간, 시대의 전형이라는 참된 모습으로 새롭게 태여나지도 못했을것이다.

그는 바로 그토록 어려운 시련을 기어이 디디고 올라서서 도약의 봉우리로 솟구치는 우리 시대와 함께 태여난 시대의 산아였던것이다.

보통날에나, 어려운 날에나 변심없이 조국과 운명을 함께 하면서 누가 보건말건, 알아주건말건 탐구의 한길에 깨끗한 량심을 묻어온 결곡한 마음이야말로 그의 인간적풍모의 밑바탕이라고 할수 있다.

《남을 쳐다보면서 연구사업을 할수는 없습니다. 과학자는 자기 실력에 운명을 걸어야 합니다. 실력이 없는 과학자는 살아도 죽은 목숨이나 같습니다.》

조수경이 대학생들과 박사원생들에게 늘 하는 말이다.

그렇다.

과학자가 아무리 비상한 두뇌를 가졌다고 해도 실력향상을 위한 꾸준한 노력과 결합되지 않는다면 재능이 빛을 볼수 없으며 과학자로서의 생명력도 잃게 된다.

취재를 마치며 우리는 행복의 구슬다락, 경루동에 사는 참인간들의 진면모의 단면이나마 이 글에 담을수 있게 된 기쁨으로 부풀어오르는 마음을 억제할수 없었다.

도로관리원대의원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사회주의애국공로자, 공훈도로관리원인
평천구역도로시설관리소 새마을작업반 반장 조길녀)

경루동의 주인들가운데는 벌써 두기째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선거된 녀성이 있다.

그런데 그 대의원은 놀랍게도 평범한 로동자인 평천구역도로시설관리소 새마을작업반 반장 조길녀녀성이였다.

누가 보건말건, 알아주건말건 자기 맡은 초소에서 인민을 위해 성실히 일해오는 나날에 그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표창장을 수여받는 크나큰 영광을 지니였으며 구역인민회의 대의원을 거쳐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성장하였다.

주체103(2014)년 3월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선거가 진행될 때 대의원후보자공시판에 나붙은 조길녀녀성의 사진은 선거장을 찾은 외국기자들을 깜짝 놀래웠다.

이 녀인이 로동자가 맞는가?

로동자가 어떻게 나라의 최고주권기관의 대의원이 될수 있는가?

누가 추천하였는가?

재산은 얼마나 되는가?…

기자들은 조길녀녀성을 직접 만나본 후에야 의문을 풀수 있었다.

《나는 그저 나를 키워주고 내세워준 당과 조국을 위해 적은 힘이나마 깡그리 바쳐 일하려고 애썼을뿐이다. 그런 나를 인민들이 추천하고 찬성투표하였다.》

그의 말을 들은 한 녀기자는 엄지손가락을 내흔들며 도로관리원이, 그것도 녀성이 나라의 최고주권기관의 한 성원으로 된다는것은 오직 조선에서만 있을수 있는 일이라고 감탄을 금치 못해하였다.

주체108(2019)년 3월 조길녀녀성은 최고인민회의 제14기 대의원으로 다시금 선거되였다.

평범한 근로자들을 정권의 주인, 정치의 주인으로 내세우는 공화국의 사회주의제도에서는 도로관리원을 비롯한 평범한 근로자들이 나라의 최고주권기관에서 정사를 론하는 인민의 대표가 되고 값높은 삶을 누리는것이 례사로운 일로 되고있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가운데는 조길녀녀성과 같은 로동자출신의 대의원들이 한둘이 아니다.

사람들은 이들을 두고 로동자대의원이라고 정답게 부르고있다.

로동자대의원.

불러볼수록 인민의 세상, 로동자들의 세상인 공화국의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심장으로 절감하게 하는 말이다.

로동자대의원이 오늘은 누구나 부러워하는 경루동 호화살림집의 주인이 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새 살림집들의 준공식을 진행하고 집열쇠를 받아안았을 때 이 호화살림집들의 주인들 누구나 격정의 눈물을 흘리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

이 세상 가장 성스럽고 가장 아름다운 행복의 구슬다락, 경루동의 주인이 되였다는, 누구나 부러워하는 행운아가 되였다는 행복감, 자기들과 같은 평범한 사람들에게 차례진 행복이 너무도 꿈만 같아서였다.

경루동 첫 입구의 1호동 1현관 2층 1호에서도 흐르는 눈물을 걷잡지 못한채 인민군군인들이 넘겨주는 집열쇠를 선뜻 받아쥐지 못하는 한 녀성이 있었다. 떨리는 그의 손에 열쇠를 안겨주는 인민군군인들의 눈가에도 뜨거운것이 고여올랐다.

새 보금자리의 주인이 된 그는 중요직책에서 일하는 일군인가, 특출한 공적을 세운 과학자인가.

아니였다.

평천구역도로시설관리소 새마을작업반 반장인 조길녀녀성이였다. 20여년전 도로관리원으로 탄원하여 오늘까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말

은 도로를 량심껏 관리해오는 평범한 녀성이였다.

그가 한 일이 있다면 수도의 밝은 거리를 위해 조금이나마 이바지하겠다며 스스로 택한 인생길에서 그 어떤 대가나 보수도 바람이 없이 묵묵히 도로를 쓸고 또 쓸었을뿐이다.

사회주의애국공로자로, 인민의 대의원으로 내세워준 당의 은덕에 보답할길 없어 죄스러운 마음을 안고사는 그였는데 오늘은 또 이렇게 꿈속에서조차 그려본적 없는 행복의 꽃방석에 앉혀주었다.

그날 저녁 그는 잠들수 없어 도로관리원복을 갈아입고 도로에 나섰다. 그런데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까지 저저마다 축하의 인사를 보내는것이 아닌가. 남녀로소 이름모를 그 많은 사람들도 그가 어떤 영광과 행복의 단상에 올랐는가를 알고있었던것이다.

우리도 영광과 행복의 최절정에서 인생을 꽃피우고있는 조길녀녀성을 만나보고싶어 초봄이라고는 하나 아직도 쌀쌀한 기운이 가셔지지 않은 2023년 3월초 어느날 먼저 그가 일하는 평천구역도로시설관리소를 찾았다.

항상 도로에서 살다싶이 하는 그를 집에서는 만날수 없을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기때문이였다.

우리의 판단은 틀리지 않았다.

기업소구내에서 우리는 금방 도로관리를 끝내고 들어서는 조길녀녀성을 만날수 있었다.

해볕에 그슬린 얼굴이지만 보통체격에 젊었을 때는 퍽 아름다웠을 흔적이 력력한, 60을 넘긴 나이라고는 생각할수 없게 건강미가 넘치는 녀성이였다.

우리는 작업반실에서 작업반원들과 함께 조길녀녀성과 마주앉았다.

《이렇게 만나게 되여 정말 반갑습니다. 꼭 한번 만나보고싶었습니다.

도로관리원, 참… 헐치 않은 일인데 어떻게 되여 도로관리원이 되였습니까?》

《제가 도로관리원이 되게 된데는 사연이 있습니다.

군대때 사관장을 하다가 제대되여 시집을 간 다음 저는 아이를

낳고 몸이 좀 편치않아 집에서 쉬면서 인민반장으로 사업하고있었습니다. 그러던 2000년 10월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당창건 55돐을 맞으며 평양시민들에게 갖가지 생활용품들을 가슴가득 안겨주시였습니다. 집집마다 그 사랑과 은정을 전하며 저는 가슴뜨거움을 금할수 없었습니다.

모든것이 풍족할 때 받아안은 사랑이였다면 그다지도 가슴을 끓이지 않았을것입니다.

그때로 말하면 아직 고난의 흔적이 다 가셔지지 않았지만 온 나라가 강성부흥아리랑의 노래소리높이 찬란한 래일에 대한 신심과 락관으로 들끓던 때였습니다. 우리 장군님께서 나라의 방방곡곡에 대한 쉬임없는 현지지도로 온 나라에 강계정신이 차넘치도록 하시여 날에날마다 기적과 혁신이 창조되던 나날이였습니다.

이러한 때 사랑만을 받아안으며 보답을 따라세우지 못하는 자신이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래서 생각던 끝에 우리 장군님께서 현지지도의 길을 조금이라도 편하게 가시게 하고싶어 도로관리원이 될것을 결심하게 되였습니다.》

조길녀는 추억깊은 어조로 말을 이었다.

그가 탄원을 결심하자 인민반의 나이많은 가두로당원들이 자기들의 마음도 합치겠다며 따라나섰고 거기에 녀맹원들까지 나섰다.

그들의 구성상태는 각이하였다.

년로보장을 받고 집에 들어온지 오래된 사람, 몸이 불편한 사람, 가정부인들…

그때 조길녀녀성의 나이가 41살이였다.

제일 젊은 녀성이라야 30대중반이였고 40～50대녀성들이 많았다.

도로를 관리하는 일을 자기들이 꽤 해낼수 있겠는지, 관리소에 짐이나 되지 않겠는지 하는 생각도 없지 않았다.

하지만 받아안은 은정에 보답해야 한다는 불같은 마음만은 하나같이 뜨거웠고 그 마음들이 합쳐져 마침내 그를 비롯한 간성동지구의 27명의 가정부인들로 평천구역도로시설관리소에 새마을작업반이 무어지게 되였다.

새로 작업반을 조직한 날 그들은 자기들의 결의가 담긴 편지를 위대한 장군님께 삼가 올리게 되였다.

《…우리는 경애하는 장군님만 계시면 반드시 이기며 멀지 않아 사회주의강성국가를 건설할수 있다는 신심을 가지고 그 어떤 풍파에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항상 장군님을 마음속에 그리며 일하고 생활해나가겠습니다. …》

오늘의 《태성할머니》가 되여 위대한 장군님을 충성으로 높이 받들어모시려는 그들의 숭고한 정신세계가 그대로 글줄마다에 담겨진 충성의 편지, 그것은 그 어떤 시련과 난관이 앞을 가로막아도 영원히 변치 않을 그들의 억센 의지, 신념의 맹세였다.

그런데 어버이장군님께서 그들이 올린 소박한 편지를 몸소 보아주시고 사랑의 친필까지 보내주시였다. 사랑의 친필까지 받아안고보니 우리 장군님 아시는 도로관리원이 되였다는 긍지로 하여 가슴은 터질듯 부풀어올랐다.

먼동이 터오는 이른새벽에
간절한 소원안고 이 길을 쓰네
…

이 노래는 전후의 어려운 나날 종파놈들의 책동으로 로고가 많으신 어버이수령님의 건강과 안녕을 간절히 바라며 수령님 지나가실 길을 쓸고 또 쓰는 태성의 한 할머니를 형상한것이다.

그들은 언제나 이 노래를 심장으로 부르며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을 안고 그날에 다진 맹세를 지켜 매일 수천㎡에 달하는 담당구간을 관리하며 도로관리에 순결한 량심을 바치였다.

그 나날 힘겨운 때도 있었고 가슴아픈 일도 겪었다.

그들이 처음으로 새 초소에 선 그해 겨울의 날씨는 몹시 사납고 추웠다. 수십년만에 들이닥친 강추위로 나무들이 얼어죽었고 하루가 멀다하게 많은 눈이 내렸다.

얼마나 많은 눈이 왔으면 22번이나 내렸다고 세여본 사람까지 있었겠는가.

자연도 자기들의 의지를 시험해보려고 기승을 부리는것같았다.

현실은 확실히 생각했던것과는 달랐다.

하루종일 눈을 치고나면 온몸이 땅속으로 잦아드는것이였다.

그 많은 눈을 녀성들의 손으로 쳐내자니 힘이 든것은 말할것도 없었다.

손에 물집이 터지고 장알이 박히였다. 온종일 작업반이 맡은 도로구간의 눈을 쳐내면 팔다리가 뻣뻣하고 몸을 가누기도 힘들었으며 하루일을 끝낸 후면 그대로 작업반실에 푹푹 꼬꾸라져 집에 돌아갈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날이 흐를수록 단련이 부족했던 녀성들속에서 너무도 고된 일에 겁을 먹고 동요하고 신심을 가지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함께 일하던 작업반의 한 녀성은 남편이 뜻하지 않게 잘못되자 남편이 일하던 기업소에서 편안한 직업을 가지고 4명이나 되는 자식들을 돌보라는 권고를 받게 되였다.

사실 그가 작업장을 떠난다고 탓할 사람은 없었다. 하지만 가뜩이나 동요하던 사람들이 이때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뒤를 따라 하나둘 작업반을 떠나간다면…

생각할수록 자기가 흔들려 이 길에서 물러나면 물먹은 담벽처럼 작업반이 존재가치를 잃게 될것이 두렵고 무서웠다.

어떻게 조직된 작업반인가.

아니, 절대로 그럴수 없다.

자기의 위치를 깨달은 그는 반원들에게 조용히 말했다.

《저는 남편이 일하던 사업소에 가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우리가 결의한대로 동무들과 함께 위대한 장군님을 더 밝고 깨끗한 수도의 거리에 모시는 길에서 끝까지 살겠어요.》

그의 말에 작업반원들은 자책하며 새로운 결의를 다지고 분발하여 일떠섰다.

위대한 장군님께 올렸던 맹세의 편지구절을 돌이켜보며 마음을

다잡았던것이다.

이들은 작업반실도 자체의 힘으로 새로 번듯하게 꾸리고 자재를 구해다가 필요한 청소도구를 만들어냈으며 부족되고 없는것은 제손으로 해결해나갔다.

도로가 갈라터진것을 자기의 살점이 터진것만큼이나 가슴아파하며 만들어낸 이동식피치녹임로를 리용하여 웬간한 도로수리는 자체로 하면서 도로를 언제나 깨끗하게 관리할수 있게 되였다.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작업반원들은 길쓰는 일도 기계화할수 있지 않을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였고 마침내 무동력도로청소기를 자체의 힘으로 만들 대담한 목표를 세우고 고심어린 사색과 노력으로 기계의 형태를 만들고 그것을 자체로 제작하기 위한 기술혁신조도 무었다.

기술혁신조 성원들은 무동력도로청소기를 만드는데 필요한 자재와 부속품을 해결하기 위하여 평양시안의 공장, 기업소들을 찾아다니기도 하였다.

집체적지혜를 짜내고 땀과 열정을 바쳐 만들어낸 무동력도로청소기가 도시경영일군들과 각 구역도시시설관리소 지배인들이 참가한 어느한 전시회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을 때 그들은 서로 붙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높은 기술혁신목표를 세우고 2002년 2월 16일에는 더 간편하고 쓸모있는 무동력도로청소기를 제작해 내놓았다. 이것을 더욱 현실에 맞게 개조한것이 2017년에 만든 자연에네르기를 리용하는 태양빛도로청소기와 태양빛오물운반차인것이다.

《참, 듣자니까 그 태양빛도로청소기를 요술배우를 하는 아들이 만들었다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아들이 만들었다기보다 우리 작업반녀성들의 힘으로 이 기계를 만드는데 함께 참여했다고 말하는것이 더 옳을것입니다. 이 기계들은 우리 작업반모두의 집체적힘으로 만든것이니까요.》

조길녀반장이 겸손하게 이야기하자 옆에 있던 작업반원들이 이구동성으로 그 기계야말로 반장 아들의 창안품이라며 이런 이야기도 들려주었다.

아마 사람들은 요술배우가 태양빛도로청소기와 태양빛오물운반차를 만들어내는데 이바지하였다고 하면 선뜻 믿으려고 하지 않을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그 주인공은 자력갱생, 현대과학기술을 적극 추동하는 주제의 요술무대들에 많이 출연하여 인민들과 친숙해진 국립교예단의 새세대 요술배우이며 조길녀녀성의 둘째아들인 안철이다.

평양교예학원에서 체계적인 교육을 받고 요술무대에서 활약해오며 그는 현대과학기술성과에 의거하여 요술작품을 창작, 창조할데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가르치심을 실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리하여 요술조곡 《신비한 조화》에서 레이자빛에 의거하는 광선요술이 무대에 오르게 되였고 자그마한 볼트와 나트에서 뜨락또르가 나오는것과 같은 자력갱생을 주제로 하는 기능요술도 창작할수 있었다.

이 과정에 그는 도로시설관리소에서 일하는 어머니를 도와 태양빛도로청소기와 태양빛오물운반차의 설계와 부분품제작에도 이바지할수 있었다.

인민들이 공감하는 요술작품을 내놓으려면 자신들이 첨단돌파의 기수가 되여야 한다는 자세로 요술무대를 이채롭게 장식해가는것이 바로 이들의 창작기풍이였던것이다.

이 태양빛도로청소기는 무동력도로청소기를 3번이나 개조한것이다.

도로관리원들과 요술가들이 힘을 합쳐 새로 창안제작한 도로청소기는 태양빛전지판에서 생산되는 전력에 의해 전동기가 돌아가면서 도로에 있는 오물들을 말끔히 없앨수 있게 되여있다.

이렇듯 연유와 함께 숱한 로력을 절약하는 새로운 태양빛도로청소기는 다년간의 도로관리과정에 생각하고 구상해오던 기술적문제들을 현실적요구에 맞게 그대로 실현시킨 도로관리원들의 창조와 노력의 산물이였다.

현대적미감이 나면서도 실용적으로 창안제작된 태양빛도로청소기는 전시회에서 1등으로 평가되였다.

2001년 4월 작업반에서 자체의 힘으로 수동식도로청소기계를 발

명한 때로부터 지금까지 눈치는밀차, 고인물처리공구, 휴대용오물처리공구를 비롯한 10여종의 도로관리설비 및 공구들이 바로 이 녀인들의 손에서 만들어졌다.

특히 작업반장 조길녀가 창안하고 서로의 집체적지혜를 합쳐 만든 태양빛에 의한 자전거식도로청소기계는 도로관리사업의 효률성을 비할바없이 높인것으로 하여 전국과학기술성과전시회에서 특출한 평가를 받았으며 수도의 도시경영부문에 일반화되였다.

전문과학연구기관의 과학자, 기술자들도 아니고 전문교육도 받지 않은 나이지숙한 도로관리원녀성들이 수많은 창의고안증서들과 과학기술성과전시회증서, 과학기술발표회증서의 주인들이 되였다는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수 없다.

이들이 그동안 받은 창의고안증서만도 12개에 달한다고 한다.

끝이 없을상싶은 이들의 이야기를 듣노라니 자기 직업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무엇이나 자기들의 힘으로 부닥치는 난관을 타개해나가려는 그들의 성실성이 한없이 돋보였다.

자본주의사회에서라면 가장 천한것으로 여겨지는 도로관리원직업이다.

하지만 이들은 당중앙뜨락과 잇닿아있고 나라의 모든 일터와 이어져있는 이 도로관리야말로 제일 중요한 일이며 누구든 해야 할 일임을 자각하였기에 부디 어렵고 힘든 도로관리원직업을 선택하였던것이다.

도로관리원이 되지 않는다고 그들을 탓할 사람은 없었다. 도로관리보다는 훨씬 헐하고 화려한 직업도 얼마든지 선택할수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남들이 선뜻 가기 저어하는 이곳에 삶의 좌표를 정하였던것이다.

이들의 선택을 자식들과 온 가족이 지지하고 따라나섰다.

하여 이 작업반에서는 온 가족이 도로관리원이 되였는가 하면 모녀간, 모자간이 도로관리원이 되여 함께 일하고있다.

자기가 나라앞에 진 죄를 어머니와 함께 도로관리원이 되여 씻겠다고 나섰던 한 청년은 도로관리를 하는 과정에 맡은 임무에 성실하면서도 도로청소기계를 제작하는데 앞장섰고 도로관리를 누구보다도

책임적으로 하여 청년동맹일군으로까지 성장하였으며 함께 일하는 처녀와 가정을 이루고 도로관리원부부가 되였다.

찬바람과 눈비를 다 맞으며 해야 하는 도로관리사업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더우기 조금만 추워도 따뜻한 자리를 찾던 가정부인들과 년로보장을 받은 사람들이 도로관리를 한다는것은 힘에 겨운 일이 아닐수 없었다.

하지만 그들은 《태성할머니》로 한생을 빛내일 지향을 안고 순결한 마음을 도로에 새겨갔다.

그때로부터 세월은 많이도 흘렀다.

하지만 그들은 오늘도 변함없이 도로를 지켜가고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자기 직업을 사랑한다.

흔히 사람들은 춥고 바람이 불면 밖에 있다가도 안으로 들어간다.

그러나 눈이 오거나 무더기비가 쏟아지면 깊은 밤에도 거리로 나와 도로들을 돌보는 사람들이 도로관리원들이다.

그들은 출근시간도 여느 사람들과 다르다.

많은 사람들이 잠에서 깨여날무렵에 그들은 벌써 도로에 나가있다. 주민들이 출근길에 오르기 전에 도로관리원은 담당한 구간의 도로들을 깨끗이 청소해놓는다.

식솔들에게 아침식사며 출근준비를 해주어야 하는 가정부인들에게 있어 아침시간이란 정말 귀중한것이다.

작업반원들은 남편에게 혹은 자식들에게 량해를 구하고 신새벽에 길을 나선다. 작업반의 도로관리면적은 수천㎡로서 아침관리만 하여도 3시간은 실히 걸린다.

시민들의 출근시간이 지나서부터는 또다시 맡은 구간을 관리한다.

그러니 그들이 언제 출근하는지 아는 사람보다 모르는 사람이 더 많은것이다.

이렇게 날이 가고 달이 흘렀다.

20여년세월이 흐르는 동안 처음 작업반을 무을 때 있었던 사람들중에 도로를 떠난 사람은 한사람도 없었다. 그중에는 불치의 병으로

숨지는 순간까지 도로와 함께 있은 사람들도 있었다.

70～80고령의 할머니들이 되여 더이상 도로를 관리할수 없게 된 녀인들도 도로만은 언제나 마음속에서 지우지 않았다.

이들에게서 제일 행복한 순간은 자기들의 손으로 정성껏 다루어진 깨끗한 도로우를 오가며 사람들이 웃는 모습을 볼 때이다.

사람들의 생활을 늘 자기의 생활로 여기고 사회와 집단의 행복속에서 삶의 참된 행복을 찾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나라와 사회의 진정한 주인이라고 한다.

평범한 도로관리원이 나라의 정사를 토의하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되였을 때, 나라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마당에서 이 도로관리원이 손을 높이 쳐들 때 조길녀녀성만이 아닌 작업반성원들모두가 끝없이 감격했다.

도로를 관리하는 자기들의 손, 그것은 결국 사람들의 편의를 보살피는 그렇듯 크고 귀중한 손이였던것이다.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도로는 나라의 경제발전수준과 문명정도를 보여주는 척도이다.

그러니 우리 사는 거리의 수많은 도로들에 정갈함과 아름다움을 더해주는 사람들이야말로 얼마나 고마운 사람들인가.

별로 눈에 뜨이지도 않는 그들의 모습이지만 그들은 거리를 오가는 모든 사람들을 마음에 안고있으며 자신들의 노력이 곧 시민들의 아름다운 생활과 이어져있다는 생각안고 묵묵히 수도의 아름다움을 가꿔가는것이다.

깊은 생각에 잠겨있는 우리의 귀전에 이런 목소리가 울려왔다.

《우리 반장동무가 새로 받은 경루동살림집에 가보았습니까? 얼마나 멋있는지 우린 모두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크고 희한한 살림집을 도로를 쓰는 우리 로동자들이 받아안았다는것이 믿어지지 않아서 말입니다. 한번 꼭 가보십시오.》

《그러지 않아도 들려보고싶었는데 반장동무를 만날수가 없어서 바로 여기에 <체포>하러 왔답니다. 호호호…》

《그럼 당장 <체포>해가십시오. 반장동무, 여기 일은 걱정말고 어

서 가서 <취조>나 잘 받으십시오.》

작업반원들이 롱속에 떠미는 바람에 우리는 조길녀녀성과 함께 경루동집으로 향했다.

《우리 집을 찾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경루동 첫 입구에 있는 제일 높은 아빠트인데 그 아빠트의 아래층에 <경루공업품상점>이라는 간판이 있습니다. 그 간판우에 보이는 창문이 바로 우리 집이랍니다.

창문밖에 공원같기도 하고 산보길같기도 한 넓다란 로대가 있어 경치를 부감하는데는 그저그만입니다.》

집자랑에 여념이 없는 그의 행복한 이야기는 계속되였다.

너무도 집이 크고 희한하여 도로관리원인 평범한 로동자가 어떤 은덕속에 사는지를 깊이깊이 새겨주고싶어 세간냈던 두 아들네 가족들도 모두 모여서 함께 산다는것, 여러 가족이 모여살지만 방이나 위생실이 다 따로따로 있으니 불편한 점이 하나도 없다는것, 우리 두 아들과 며느리들은 직장에 나가면 저저마다 부러워하는 사람들속에 둘러싸여 어머니처럼 맡은 일을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굳히군 한다는것…

어느덧 집에 들어선 우리는 공동살림방의 한쪽벽면이 모자라게 꽉 들어찬 기념사진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며 사진속에서 조길녀녀성의 모습을 찾았다.

인민군대에 복무하면서 사관장대회에 참가하여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과 **김정일**장군님을 모시고 찍은 기념사진, 선군혁명총진군대회에 참가하여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고 찍은 기념사진,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14기 대의원으로 선거받고 최고인민회의에 참가했다가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찍은 사랑의 기념사진들, 조선로동당창건 75돐 경축대회에 참가하여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찍은 기념사진들마다에 조길녀녀성의 모습이 있었다.

평범한 한 녀성의 삶의 자욱자욱을 영광의 화폭으로 빛내여주는 사랑의 기념사진들.

많은 사람들이 일생에 절세의 위인들을 모시고 단 한장의 기념사진

이라도 찍어보았으면 하는것을 소원하고있다.

그런데 조길녀녀성은 평범한 도로관리원에 불과하지만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과 **김정일**장군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모시고 이렇게 여러상의 기념사진들을 찍는 영광을 지니였다.

남들이 바랄수도 없는 영광의 최절정에 오른 그는 말한다.

《도로를 관리하는 평범한 로동자인 제가 호화주택을 사랑의 선물로 받아안았을 때 정말 내가 이 집주인이 맞나, 잘못 들어오지 않았나 도무지 믿어지지 않아 한참이나 멍하니 서있었습니다.

부엌에 들어서니 어느 고급식당홀에 들어온것같았고 방만도 5칸에 랭온풍기까지 있는것을 보고 깜짝 놀라 그 자리에 주저앉은채 어린애마냥 울었습니다.

만약 자본주의사회에서 살았다면 길가의 조약돌마냥 천대를 받고 사람값에도 들지 못하는 신세가 되였을 제가 경애하는 원수님의 품속에 안겨 인생의 황혼기에도 꽃을 피우는 행복한 녀인이 되였습니다.

이렇게 희한한 새집까지 받고보니 먼저 간 남편이 생각났습니다.

처음 도로관리원이 되기를 결심했을 때 그 몸을 가지고 꽤 할수 있겠냐며 만류하는 남편을 설복하던 일이며 작업반에 늘어나는 기계들을 다룰 사람이 없어 안타까와하는 저의 속마음을 헤아려 어느한 기업소의 운전사로 일하던 남편이 도로관리원으로 배치되여왔을 때 기뻐하던 일이며 함께 도로관리에 온갖 정성을 바쳐가던 일들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경애하는 원수님 안겨주신 이 새집에서 하루밤이라도 살아보았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저희들은 하늘땅이 변하고 세상이 열백번 변한다 해도 이 대해같은 은정을 한시도 잊지 않고 오직 경애하는 원수님만을 믿고 변함없이 한길을 가는 량심의 인간이 되겠습니다.》

행복에 겨워 웃고 떠드는 아들, 며느리, 손자, 손녀들의 모습을 흐뭇한 미소속에 바라보며 조길녀녀성은 자기가 받아안은 크나큰 사랑과 배려에 대를 이어가면서라도 기어이 보답할 열의에 충만되여있었다.

취재를 마치고 그의 집을 나서며 우리는 귀중한 하나의 진리를

얻게 되였다.

한 인간을 위해 자신을 바치면 사랑을 얻고 집단을 위해 자신을 바치면 존경을 얻으며 조국을 위해 자신을 바치면 영광과 영생을 얻는다.

바쳐서 높아지는것이 인격이며 바칠수록 아름다와지는것이 인생이다.

바친다는것은 잃는다는것이 아니라 얻는다는것이다.

바친것보다 더 큰 행복과 영광을 안겨주는 위대한 어머니조국, 그 품을 위해서라면 바치고바쳐도 끝이 없는것이 우리들의 투쟁이고 생활이며 생의 보람이라는것을.

*　　*

우리는 이 한권의 책에 애국자동네에서 사는 사람들을 만나본 소감을 다 적을수 없었다.

하지만 한방울의 물에 온 우주가 비낀다고 우리가 만나본 사람들을 통하여 이 애국자동네에 보금자리를 편 사람들이 어떤 순결한 마음을 안고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헌신의 땀방울을 아낌없이 바쳤는가를, 어떤 은정속에 호화주택의 주인으로 될수 있었는가에 대하여 잘 알수 있었다.

경루동의 호화주택에 자리잡은 평범한 애국자, 공로자들을 보며 사람들은 애국의 열의에 충만되여 어렵고 힘든 전선으로, 조국이 부르는 곳으로 너도나도 탄원열기를 높여나가고있다.

이들처럼 한생을 값있게 살자!

평양의 경루동, 보통강강안다락식주택구는 오늘날 온 나라에 인민의 무릉도원을 전파하는 또 하나의 발원구로 되고있다.

경루동과 송화거리에 이어 오늘은 화성거리로, 래일은 더 화려하고 웅장한 새 거리와 마을, 일터와 공원, 로동자구들과 농촌리들로 인민들의 행복의 반경은 나날이 넓어져 사회주의대전경화를 더욱 장쾌하게 펼쳐갈것이다.

보통강의 경루동이 온 나라에 제2, 제3의 경루동으로, 훌륭하고 멋들어진 인민의 무릉도원으로 끝없이 넓어진다는것은 결코 건설경험이나 물질적부의 전수와 이동만을 의미하는것이 아니다.

그것은 이 땅 그 어디에나 인민의 리상향을 더 빨리, 더 많이 일떠세워 세계가 우러러보는 사회주의강국의 휘황한 래일을 앞당기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리념, 억척의 신념과 불변의 의지가 온 나라에 전면적으로 구현된다는것이다.

평양의 경루동은 이렇게 넓어지고있다.

이리하여 온 나라의 경루동으로 되고있다.

경루동이 번영하는 로동당시대,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제도와 더불어 온 나라 방방곡곡에 자기의 모습을 확장해간다.

이와 더불어 이 땅전체가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멸의 업적으로 만대에 길이 빛나리라는것은 의심할바 없다.

공화국이 모든것이 풍족해서 인민을 위한 번화가, 행복의 보금자리들을 건설하는것은 결코 아니다.

인민을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존재로 내세우고 인민을 위해 모든것을 바쳐가는 진정한 인민의 나라이기때문이다.

인민의 나라에서 사회주의번화가가 나날이 늘어가고있다.

멀지 않은 앞날에 온 나라를 뒤덮을 사회주의번화가들에서 인민의 꿈과 리상은 더욱 활짝 꽃펴나게 될것이다.

아름다운 구슬다락의 주인들을 찾아서

필 자 고 영 숙
편 성 김 일 미
장 정 채 대 성 교 정 림 향

낸 곳 평 양 출 판 사
인쇄소 평 양 인 쇄 공 장
인 쇄 주체112(2023)년 9월 1일
발 행 주체112(2023)년 9월 4일

ㄱ－1620ㄷ

ⓒ Pyongyang Publishing House 2023, DPR Korea
ISBN 978－9946－31－173－9

ISBN 978-9946-31-173-9